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4
1955

청년생활 제 4 호 (67)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四호 내용

사설

민청 사업을 창조적이며 생기 발발하게!

민청은 로동당의 충직한 방조자이며 전투적 후비대이다. 당은 자기의 전투적 방조자에게 청년들을 높은 계급적 각성과 용감성 그리고 생기 발발한 혁명적 락관주의와 당과 로동 계급의 위대한 힘을 믿으며 곤난과 애로를 뚫고 나아가며 조국과 인민에게 헌신 복무하는 투사로 배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자면 민청은 자기의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완성해야 한다.

민청 사업은 정열과 희망으로 들끓는 청춘 남녀들과의 생동적 사업이다. 때문에 민청 사업에는 창조성과 혁명적 랑만성이 넘쳐 흘러야 하며 샘물 솟듯하는 청년들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여야 한다. 거기에는 진부한 형태와 고식적 방법과 정체가 용납될 수 없다. 민청 사업이 복잡하며 더욱 세심한 주의와 연구가 요구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일부 민청원들에게서 『민청 사업이 딱딱하고 활기가 부족하지 않은가?』 『민청 생활을 좀더 흥미 있게 할 수 없겠는가?』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이 의견들이 정당하며 그것은 일부 민청 단체들의 사업에 창조성과 생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극진한 배려 하에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 앞에는 자기의 정력과 재능을 무한히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여 있다. 국가의 모든 아름답고 귀중한 것이 청년 세대들을 위하여 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 환경은 그들의 성격을 더욱 명랑하고 활달하게 배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부 청년들의 생활과 민청 사업을 『딱딱하고』 『활기 없고』 『흥미 없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인들로부터 출발한다고 인정된다.

그것은 첫째로 민청 사업이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창발성에 의거하지 않고 아직도 거기에는 고정 불변한 틀과 낡은 고식적 방법이 답습되고 있다.

민청은 청년 남녀들의 성격을 배양하며 그들의 과학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는 교양적 단체이다. 그런데 사람을 교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각 계층 청년들과 매개 청년들에게는 각기 다른 성격과 흥미와 요구가 있으며 꼭 같은 두 청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민청 단체 지도적 기관의 일군들은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무시하고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서 작품을 쓰듯이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쉬운일은 언제나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꾸며진』 사업이 청

년들의 어떤 흥미를 끌 수 있겠는가!

청년들은 그들의 즐거운 휴식에 대하여, 사회주의에로 향하는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문학에 대하여, 애국자들에 대하여, 과학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청 회의들과 강연 보고들에서 이런 문제가 드물게 취급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초급 단체들에서는 상급 단체에서 회의 안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회의를 하지 않으며 많은 초급 단체 총회들은 아직도 딱딱하고 흥미 없이 천편 일률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자립성이 없는 단체에서 어떤 창조성과 생동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청 정치 교양 사업에 형식주의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청강자들의 생생한 취미를 끄는 능숙한 담화가 적으며 『내려먹이는』 강의와 암송해둔 술어와 명제를 전달하는 무미 건조하고 권태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강연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소년단 사업에 있어서 자립성과 랑만성이 계속 무시되고 있으며 성인식 지도 방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평남도 성천군 제五 중학교와 장림 인민 학교 대들에서 바로 그렇게 사업하고 있다. 소년들이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상 깊은 모임이 적으며 무용 오락들의 형태와 방법들도 구태 의연하다.

이와 같이 민청 사업에서의 고식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무미 건조하게 사업하는 단체에서 청년들의 생기 발발한 분위기가 없을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둘째로 일부 민청 일군들의 사업 작풍 및 그들의 도덕적 풍모에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당의 심심한 배려로 말미암아 민청에는 총명하고 재능 있는 일군들이 장성하고 있다. 진정한 청년 지도자의 참된 품질은 청년 대중과의 련계를 가지고 그들의 의견을 허심히 접수하며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며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민청 일군들은 마땅히 청년들의 실제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구속없이 어울리고 담화하고 또 당 정책을 잘 설복하여 그의 실천에로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민청 일군들은 자기의 사업 시간의 대부분을 청년들 가운데서 지내야 하며 만약 그가 하부 단체에 내려 갔다 오면 그 단체의 생활 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겨 놓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민청 일군들은 공식적 환경 즉 회의 시간에만—그것도 청년 군중과 거리가 떨어진 주석단에서—청년들과 접촉할 뿐이며 청년들의 기숙사와 구락부에서나 휴식 시간에는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청년들의 휴식 시간에 흥미 있는 체육과 오락을 조직해 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어찌다 청년들의 오락 장소에 나가서 청년들이 노래부를 것을 요청하면 이 청년 지도자는 『내가 무슨 노래를 알겠소!』라고 늙은이 답게 행동한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마치 청년 지도자의 『위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묻노니 이런 사람이 청춘 남녀들의 마음에 드는 사업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부정적으로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민청 일군들이 마땅히 청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친근한 벗이 되여야 하며 동시에 그는 청년들의 마음에 잘 맞는 사업을 조직하여 줄 줄 아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째로 일부 민청 단체에서는 필요한 설복대신에 명령 방법이 많으며 새로운 발기에 대한 지지와 평가 및 표창 대신에 강압과 욕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설복 방법이 민청 사업의 기본 방법이라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만약에 청년들이 어떠한 과업을 료해하고 들끓는 심정으로 접수하여 그것을 완수하려고 결심한다면 그들은 태산이라도 허물어낼 정열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과장없이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민청 단체 지도적 기관의 일군들은 이 훌륭한 방법을 『시간이 걸린다』느니 『청년들의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

다」느니 등 괴상한 구실로써 채용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하부 단체들로부터의 신소와 제의 및 요구들이 왜 종종 묵살되고 있는가? 신양군 민청 위원회는 一三三명의 청년들의 가맹 청원을 접수한지 一—二년이 경과하도록 처리하지 않았으며 강령군 민청 위원장은 분 초급 단체를 분할할 데 대한 부포리 민청 위원장의 一五차의 제의를 묵살하였다。 민청원들의 신소 제의 및 요구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민청 단체의 지도 기관 일꾼들은 『연구하여 봅시다』 또는 『좀 기다리시요』라는 답변으로 그것들은 깔아버리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통용되고 있는 단체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생동적이며 창조적 활동이 기대되겠는가?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설복 방법에 정통하기 위하여서는 청년들과 정상적으로 대면하여 그들의 생활과 요구와 지향을 료해해야 하며 또 당의 정책과 실무적 경제적 지식에 정통하여야만 한다。 지금은 구호와 선전만으로 지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만약 그가 공장 기업소 민청 일꾼이라면 생산 경험과 로동 조직을 잘 알아야 하며 농촌 민청 일꾼이라면 농학 지식과 선진 농업 경험을 알아야 한다。 알지못하고서는 지도할 수 없으며 설복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청 일꾼들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바 자강도 민청 선전 선동 부장은 독서와 인연이 먼 「교양자」로 되고 있다。

네째로 이상에 렬거한 모든 사실들은 일부 민청 일꾼들에게 의심할바 없이 악독한 일제 잔재인 관료주의가 존재하여 민청원들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열성의 발양을 억제하고 있다는 론쟁할 수 없는 결론을 지어준다。

사실에 있어서도 민청 단체의 지도적 기관들에서는 창조적이며 생동적인 사업이 종이장과 번잡한 결정서와 총화 보고서에 파묻히고 있다。 시 군(구역) 민청 단체 지도적 기관들에서 번잡한 회의와 초급 단체 위원장들을 괴롭게 하는 각종「제도」가 계속되고 있는 바 강서군 민청 위원회는 매월 二회 이상이나 초급 단체 위원장들을 소집하여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유해로운 기계적 사무실적 방법으로 사업하고 있다。 또한 숭호군 민청 위원회와 같이 三개월 간이나 교양 사업이 중단된 원신리 초급 단체의 교양 사업 통계를 『월 四회 진행—출석률 九八%』라고 기입해 놓고 자위하는 비량심적 사업 방법을 계속하는 민청 단체가 적지 않게 있다。

관료주의와 행정적 사업 방식은 민청 사업의 본질로 보아 용납될 수 없는 일제의 악독한 잔재이며 해독적 방법이므로 우리는 그것과의 전투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현시기에 당은 민청 단체들이 민청원들과 청년 대중의 전투력과 창발성을 더욱 앙양시켜 당의 정책 즉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 촉진을 위한 민주 기지—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초과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과업을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민청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는 민청원들로 하여금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로、사회주의적 경쟁의 돌격대로 되도록 교양하며 동시에 민청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성과 생동성이 넘쳐 흐르게 하는 데 있다。

민청 사업의 창조성과 생동성을 위하여서는 처방된 묘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민청 사업의 창조성과 생동성—그것은 생기 약동하는 청년 남녀들의 생활과 로력과 학습 그 자체에 있다。 민청의 과업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청년들의 창발성과 생동성을 찾아내며 그것에다 정렬의 불을 질러 놓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각급 민청 단체들과 민청 일꾼들이 대중과 리탈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대중들의 머리 우에 자기를 세울 것이 아니라 선봉적으로 그들의 앞에 설 것이며 청년들의 무진장한 창발성과 다양한 요구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진정으로 인민적인 사업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용감하고 명랑하고 생기 발발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그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배양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레닌에게서 배우자

리 기 영



모쓰크바 브·이·레닌 중앙 박물관의 한 방에는 울라지밀르·일리이츠·울랴노브(레닌)의 당증이 진렬되여 있다。

당증에는 다음과 같이 찍혀 있다。

『당증 번호 No. 〇〇〇〇〇一

성 울랴노브

이름과 부칭 울라지밀르·일리이츠

생년 一八七〇

입당년 一八九三

당증을 수여한 기관명 전련맹 공산당(볼쉐위크) 모쓰크바시 자모쓰크보레쯔끼 구역 당 위원회』

이 작고 소박하고 평범한 책자를 볼때마다 그 누구든지 크나큰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것을 보고 거대한 기쁨과 자랑을 느끼게 된다。

기쁨과 자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당증이 다음과 같은 위대한 사실 즉 『레닌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책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바 그것은 바로 이 당증이 우리들에게

『너는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레닌처럼 행동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며 그때마다 우리들은

『아니요。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한 사상、한 규률、한 목적、한 도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레닌적 당과 함께 전진하고 있지만、하여 놓은 사업은 대해 같은 레닌에 비해 볼때 작은 련못、아니 지어 한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레닌의 당증은 우리들의 자기 비판을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끌어 준다。

『레닌을 향하여 더욱 잘 배우자!』

바로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지구상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명절인 四월 二二일 『브·이·레닌 기념일』을 맞이한다.

특히 오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위업에 총 궐기하고 있는 우리 조선 인민들과 그의 젊고 믿음직한 세대들인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전 세계 근로 대중의 수령이며 스승이신 위대한 레닌을 향하여 배우는 것은 고상한 애국적 임무로 된다.

우리는 레닌에게서 백전 불패의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배우는 동시에 그에게 고유한 고상한 작풍 즉 인민의 창조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 불쉐위크적 원칙성과 견결성, 곤난 앞에 두려움을 모르며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의 위업에 바치는 혁명적 락관주의와 자기 헌신성, 용감성, 겸손성, 혁명적 경각심 그리고 참다운 프로레타리아 인도주의 정신을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울라지밀르·일리이츠·레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혁명가였으며 맑쓰주의 과학의 천재적 대가였다. 그는 맑쓰주의 학설을 가일층 발전시키면서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에 모든 근로자들의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쟁취할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였다. 레닌은 맑쓰주의 력사에서 맑쓰주의적 혁명적 새형의 당에 관한 리론을 완성하고 그러한 당을 실지로 창건하였으며 이를 령도하였다. 레닌은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에네르기를 개발시키여 인류 력사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다 준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의 전 세계사적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력사상의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을 창건하고 그를 령도하였다.

레닌이 작성한 계획에 따라 쏘련 공산당은 쏘베트 나라에 사회주의를 건설하였으며 오늘은 웅장한 공산주의 건설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한 인민 대중의 운명을 천재적으로 해결하면서 레닌은 항상 자기를 인민의 충복이라고 간주하였으며 단 한시도 인민과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인민 대중의 힘과 근로 대중의 혁명적 에네르기를 제한없이 신뢰하였다.

『오직 인민을 믿는 자 만이 인민적 창조력의 생생한 샘물에 젖어 있는 자 만이 승리할 것이며 정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울라지밀르·일리이츠·레닌은 가르치시였다.

브·이·레닌 중앙 박물관에는 울라지밀르·일리이츠가 직접 쓴 여러 지령들이 진렬되고 있는데 이 매개 지령들에서도 인민에 대한 레닌의 깊은 배려가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그 중에는 一九二〇년 붉은 군대가 크림을 해방하였을 때 이 지대를 근로자들의 료양과 휴양 지역으로 리용할 데 대한 다음과 같은 지령도 있다.

『일찌기 대 지주와 자본가들이 쓰고 있던 훌륭한 별장 및 저택들과 이전 짜리 및 대 공작들의 궁전들을 로동자 농민들의 료양소 및 휴양소로 리용할 것』

알렉쎄이·막씨모위츠·꼬리끼는 一九〇七년 당 대회 시에 레닌이 바쁜 틈을 타서 항상 로동자와 함께 담화하였으며 심지어 그들의 가정 문제까지 세밀하게 물어 보았다고 회상하고 있다.

레닌은 항상 인민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인민들의 제의를 주의 깊이 연구하였다.

一九二二년 一월 二六일, 신문 『베드노뜨』(『빈농』) 주필에 보내는 편지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까르뻰쓰끼 동무!

〃베드노뜨〃에 보내온 농민들의 편지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많더라도 一―三페지) 써 보내 줄 수 없겠습니까?

이 편지들에서 중요한 것(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새로운 것은 무엇인지? 정형은? 당면한 난문제는?

두달에 한번씩 이러한 편지를 받을 수 없겠는가? (다음 것은 一九二二년 三월 一五일까지)

(ㄱ) 편지의 평균수

(ㄴ) 정형

(ㄷ) 가장 중요한 당면된 난문제, 공산주의적 인사를 보내면서 레닌』

이와 같이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간을 막론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개선할 문제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심을 돌리는 것은 레닌에게 고유한 특성이였다. 만일 그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레닌은 가장 적은 것이라도 적발하여 이것을 인민들의 행복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투쟁에 리용하였다.

一九二〇년 五월 二一일 공민 전쟁의 한 전선에서 작가 쎄라피모위츠의 아들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쎄라피모위츠에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는 인간에 대한 레닌의 깊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여 주는 문건의 하나로 된다.

『친애하는 동무!

나에게 방금 누이 동생이 당신에 닥쳐온 아주 큰 불행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손을 굳게 굳게 잡으며 용기와 견고한 정신을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좀더 종종 만나며 좀더 가까히 사귀려는 념원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몹씨 후회합니다. 누이가 읽은 당신의 작품들과 소설들은 나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깊은 동감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고통스러운 심정을 타개하고 다시 일을 착수하기 위하여 당신의 일이 로동자와 우리 모두들에게 그 얼마나 필요하며 지금 당신의 용기가 그 얼마나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몹씨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급히 쓴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요. 다시 한번 당신의 손을 굳게 잡으면서, 당신의 레닌』

이와 같이 레닌은 불행에 빠진 동지들에 항상 따뜻이 대하였다.

동시에 레닌 자신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락심과 우울한 기분에 빠질줄 몰랐고 항상 혁명적 락관주의로써 모든 사람들을 고무하였다.

안나·일리이츠나·울리야노바-예리자로바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편지가 모든 락심과 신경 쇠약과 모든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샘물의 파도로 나타나군 한 것이 기억된다. 즉 그 편지들은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었으며 정신적으로 분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것은 레닌에게 고유한 다른 또 하나의 특성 즉 깊은 혁명적 동지애에 대한 실례로도 된다.

레닌이 쓰딸린에게 보낸 거대한 동지애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바 심지어 레닌은 쓰딸린의 개인 생활과 그가 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는 의사들의 배치에 이르기까지 깊은 배려를 돌렸다.

꼬리끼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一九一九년 한재가 심한 이해 레닌은 각 성의 동지들과 병사와 농민들이 그에게 보내준 음식물을 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였다. 그의 춥고 간소한 방에 이 선물이 올때면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시원치 않게 여기면서 이 밀가루 과자, 우유들을 앓고 있는 동지들과 식량이 부족한 병사들에게 속히 가져다 주라고 재촉했다』

레닌은 자기 개인의 리익은 전혀 생각치도 않고 극히 간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였으며 모든 것을 다만 당과 인민의 리익에만 바쳤다.

이에 대하여서는 一九一八년 五월 二三일, 자기의 봉급을 승인없이 올린 인민 위원 쏘베트(현재의 내각) 사무국 국장에게 보낸 레닌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례로 든다 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인민 위원 쏘베트 사무국

울라지밀르·드미뜨리예위츠·불츠—부루예위츠에게
당신이 一九一八년 五월 一일부터 나의 월급을 五백루블리에서 八백루블리로 인상한 근거를 밝혀 달라는 나의 긴급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는 리유로 그리고 당신이 一九一七년 一一월 二三일부 인민 위원 쏘베트의 지령을 직접 위반하여 쏘베트 비서의 동의 밑에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인상의 명백한 비법성으로 해서 나는 당신에게 엄중 경고를 선포한다」

이와 같이 레닌은 자기 개인 생활에 있어서 극히 소박하였다。

一九二四년 一월 二八일 이·브·쓰딸린은 「레닌에 대하여」라는 자기 연설에서 울라지밀르·일리이츠의 특성의 하나가 그의 무한한 겸손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인류 앞에 절세의 공훈을 끼친 가장 위대한 천재였으나 단 한번도 자기의 두각을 나타낼려고 하지 않았다。 거만、교만、자만심은 레닌의 사업 작풍과 조금치도 공통성이 없었다。

레닌에게는 어느때나 그 어느 곳에나 조금도 흐린 구석이 없었다。 동시에 레닌은 다른 동지들에게도 소박하며 겸손하며 결백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레닌은 탐오 랑비 분자에 대하여서는 이를 혁명의 원쑤로 보아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을 주장하였다。

레닌은 모든 간부와 당원들과 일반 공민들이 당의 규률、쏘베트적 법률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엄수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였으며 솔선 그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였다。 레닌의 누이동생 안나·일리이츠나·울리야노바—예리자로바는 레닌이 자기의 일생을 통하여 약속한 시간 특히 회의 시간을 어긴적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회상하면서 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개별적인 현상을 「야만적이고 추악한 일」이라고 규탄하였다고 쓰고 있다。

레닌은 일체의 반 맑쓰주의적 경향、 정치적 우매성、 비속적이고 교조주의적인 리해등과 무자비하게 투쟁하였으며 이 비타협적 투쟁을 통하여 레닌주의 학설을 완성하고 그것을 지구의 六분지 一이 되는 지역에서 승리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결성은 그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그리고 가장 세밀한 학습 태도에도 잘 표현되고 있다。 울리야노바—예리자로바는 학생 시절 때의 레닌이 항상 최우등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완강한 로력의 결과였다고 하면서 레닌은 선생으로부터 받은 숙제를 一주일전부터 세밀히 준비하군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학습에 있어서 「적당히」라든가 또는 「큰 것은 해도 작은 것은 안한다」라는 옳지 않은 경향이 조금도 없었다。 맑쓰주의 학설의 보물고에 끼친 천재적 로작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발전」을 쓰기 위하여 레닌은 六백여권의 책을 정독하였고 자기 로작 원고지 수 보다 몇 一〇배나 더 많은 장수를 가진 노트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레닌은 일생을 통하여 열심히 학습하였으며 젊은이들에게 새 과학 새 지식을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라고 가르치였다。

「오직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일체 풍부한 지식으로써 자기의 지식을 풍부히 할 때 비로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레닌은 청년들 앞에서 연설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위대한 레닌의 학도이다。 우리들은 레닌의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 로동당이 가리키는 이 길、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에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길 우에는 무수한 곤난과 시련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우리의 수령이며 스승이신 위대한 레닌에게서 더 잘 배우며 레닌처럼 생활하고 사업한다면 이 곤난과 시련을 쉽게 극복하고 우리의 그 위대하고 무한히 아름다운 리상을 급속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레닌을 향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 청년들의 결의와 신념은 확고 부동하다

민청 중앙 위원회
부 위원장 김 봉 운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조선 인민이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 一〇년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량단된채 아직 통일 독립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매국 역도들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이다。

국토의 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남반부 인민들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 속에 신음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불행이며 불안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민족적 량심을 가진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조국의 조속한 통일 독립을 위하여 불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작년 一〇월 三〇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는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대표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의 호소문의 제의는 남북 조선 인민들 간의 련계와 친선을 강화하며 조선 사람끼리 모여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였다。

이 제의는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책이였기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또한 일본 하와이 등 기타 해외에 있는 동포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도 이를 지지 찬동하였다。 금년 一월에 소집된 전국 중학、전문、대학 학생 대회는 최고 인민 회의의 호소문을 지지 환영하며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공화국 전체 학생 청년들의 확고한 결의와 신념을 시위하였다。

조선 인민은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의 제의의 실현을 위하여 시종 일관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또 노력하고 있다。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공화국 내무상은 남반부로 부터 북반부로 래왕할 인사들의 신변 보호와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을 성명하였으며 군사 정전 위원회 우리측 대표는 남북 조선 간의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무장 지대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공화국 체신상은 남북조선 간의 정상적 우편 련락 보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체신 대표 간의 회담을 제의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이와 같이 시종 일관한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은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의 실천을 발악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의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九五五년 二월에

소집하기로 예정되였던 남북조선 대표들의 회의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방해 책동으로 말미암아 실천되지 못하게 되였다. 이미 온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미제 침략자들과 리승만 도당들에게 있는 것이다.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들이 조선 인민의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하여 남북조선 간의 협상의 길이 영원히 막힌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최고 인민회의의 제의를 거부한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에 대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증오와 분노는 더욱 격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과 청년의 투지와 신념은 일층 공고해지고 있다. 원쑤들의 여하한 발악적 책동도 자기의 힘을 믿으며 정당한 위업 실천에 궐기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앞길을 막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三월 一一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는 제四기 쏘련 최고 쏘베트 제一차 회의의 선언과 관련하여 최고 인민회의의 선언을 채택하였는 바 이 력사적 선언에는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조선 인민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가 다시 한번 명백히 표명되여 있다. 최고 인민회의의 엄숙한 선언에는 미국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 군대가 급격히 확장되며 미군측에 의하여 정전 협정이 위반되며 남조선에서 전쟁 준비가 로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오늘 미국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 남아 있어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적극 반대하면서 리승만 괴뢰들을 놈들의 총검으로 비호하여 팟쑈 테로 제도를 더욱 강화하며 리승만 괴뢰 군대를 확대하는 한편 「북진 통일」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대량의 작전 물자를 비법적으로 반입하여 리승만 괴뢰군을 증강시키고 있는 바 이미 괴뢰군 一六개 사단을 二〇개 사단 七五만명으로까지 확장하였으며 또 다시 一〇개의 예비병 사단을 편성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의 학교들은 괴뢰군의 군사 훈련소로 전락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괴뢰군에 강제 징발되고 있다.

최근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조작한 『한미 군사 경제 원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은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는데 리승만 역도들은 『귀속 재산』을 외국 자본가, 예속 자본가, 모리 간상배들에게 방매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반부의 산업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로동자들은 혹심한 노예적 로동과 실업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농촌은 황페화되였으며 물가는 날마다 폭등하고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와 같은 사태는 조선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 즉 미국 침략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지 않고서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왜냐 하면 력사적 경험이 뵈여주는 바와 같이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남아 있는 한 조선에 대한 놈들의 내정 간섭은 필연적인 것이며 오직 미국 군대가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만 조선 사람은 외국의 간섭 없이 자체의 손으로 자기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제 침략 군대의 간섭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오래전에 평화적으로 통일 독립되였으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남조선에 조성된 사태는 또한 조선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 즉 남조선 괴뢰 군대를 확장하는 것은 조선 인민의 현실적 생활상 리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왜냐 하면 군비 확장은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켜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

적 지출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오늘과 같은 처참한 생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발광적 군비 확장을 반대하여 그것을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때문에 최고 인민회의 제九차 회의의 선언에는 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사활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미국과 남조선 간에 체결된 각종 군사 조약들을 견결히 배격하며 조선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제거하고 조선에서의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조속한 기한내에 일체 외국 군대를 조선 지역으로부터 철거하며 남북조선의 군대 수효를 一〇만명까지로 각각 축소할 것을 강경히 주장한다』라고 성명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가장 정당한 방책인 것이다.

최고 인민회의의 선언에는 또한 『관심을 가진 국가들의 광범한 참가 하에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국제적 회의가 조속히 소집될 것을 희망하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문제를 토의 협상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국회 대표단의 호상 파견과 출연, 남북조선 간의 접촉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기타 모든 조치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또 그의 실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애국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시종여일한 념원의 표현이며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불변한 립장이다.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조선 민족의 사활적 리익에 관한 문제이며 이것은 동시에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와 세계 평화와 아세아의 안전에 중요한 기여로 된다. 때문에 조선 인민의 이 념원과 립장은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민주 진영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인민 지원군이 작년에 七개 사단을 본국으로 철거시킨 후 이번 또 다시 六개 사단을 철거시킨 것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또 하나의 뚜렷한 노력의 표시인 것이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평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며 또한 통일 독립된 국가의 화목한 가정에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배우며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 청년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담보인 혁명적 민주 기지의 위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하여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창조적 로력 전선에서 자기들의 정력을 배가하여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최근 공화국 청년들은 원자 무기를 반대하는 세계 평화 리사회 윈나 회의의 호소문에 한결같이 서명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촉진시킬 데 대한 조선 청년들의 불패의 투지와 신념의 시위로 되였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평화를 요구하며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달성할 것을 념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힘이 연약한 표현이 아니며 그것은 자기들의 무진장한 힘을 확신하며 원쑤들의 여하한 도발적 모험이라도 능히 격파하고 자체를 보위할 수 있는 준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일찌기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는 『조선 민족은 하나이며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조선 문제는 응당 조선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일치한 념원이며 철석 같은 결의이며 확고 부동한 주장이다.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김일성 원수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을 향하여 만만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고 있다.

정의와 인민의 힘을 막을 그러한 힘은 세상에 없다. 조선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제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제3회)

리 갑 기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 법규와 인류 도덕을 란폭하게 유린하며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어떤 야만들도 상상하지 못한 천인 공노할 범죄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 식인종들은 아름다운 우리 강토에서 평화로운 도시와 마을들을 재떼미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으며 우리 인민들을 헤아릴수 없는 고통 속에 잠기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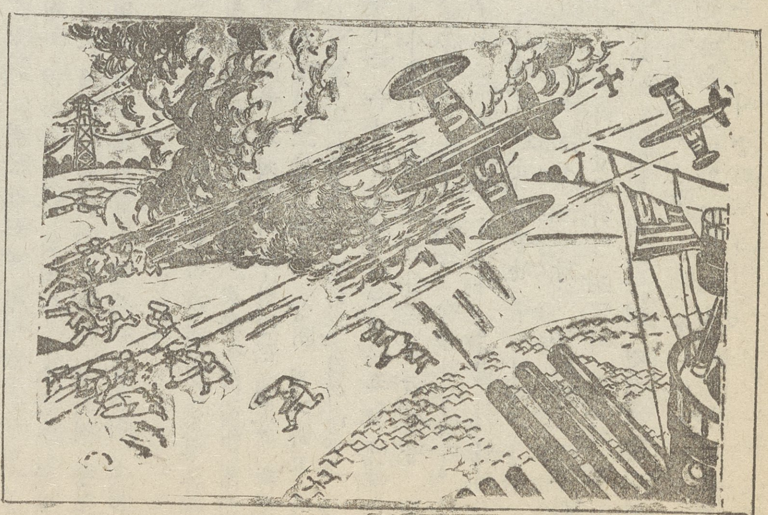
조선에서 감행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만행은 바로 그들이 평화와 인류 문명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며 인간 리성의 마지막 한조각까지 상실한 살인귀들이라는 것을 전 세계 인류 앞에 뵈여 주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미제 야수들이 우리 조국에서 감행한 범죄적 만행을 영원히 잊지 않고 천추 만대를 두고 저주할 것이다。

평화적 도시와 마을에 대한 맹폭

미제 략탈자들은 조선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평화적 주민지대와 지어 산간 벽촌에까지 폭탄과 시한탄과 나팜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였으며 학교、병원、탁아소、극장、저수지、발전소 등을 가리지 않고 맹폭하였다。

미제는 전쟁 기간에 八、七〇〇여개소의 공장과 총 건평 二、八〇〇만 평방메터에 달하는 주택、五、〇〇〇개소의 학교 一、〇〇〇여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二六三개소의 극장、영화관들을 파괴 소진하였다。





평화적 주민들을 사격 목표로 삼았다

미제 공중 비적들은 운동장에서 뛰노는 천진 란만한 어린이들、강가에서 빨래하는 부녀자들、전원에서 농사하는 로인들을 사격의 목표로 삼고 폭격과 기총 소사를 감행하였다。

一九五〇년 八월 八일 평안북도 정주군 문례리에 래습한 미제 공중 비적들은 산나물을 캐는 부녀자들을 향하여 九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三명을 살상하였다。

고귀한 문화 유물의 파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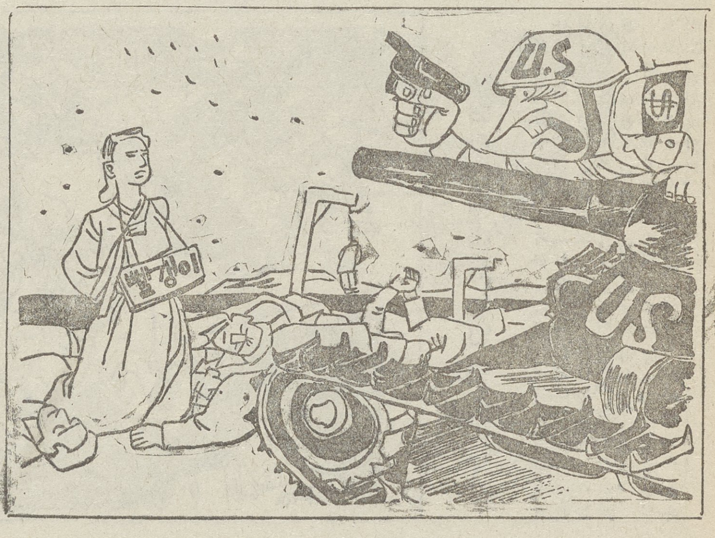
미제 야만들은 우리 선조들의 창조적 로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 인민들이 애지 중지 전해오는 고귀한 력사적 문화 유물들을 계획적으로 파괴하였다。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 일대에 수백개의 나팜탄과 소이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보물인 장안사를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석왕사、신계사、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대웅전、만세루、해주시에 있는 부용당、평양에 있는 숭영전、숭인전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일시적 강점 지역에서의 대량적 인민 학살

미제 략탈자들은 일시적 강점 지역 도처에서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는 바 미국 인육 석자들은 총살、자살、타살、입살、소살、생매장 등 전고 미문의 잔인하고 포악한 학살 방법을 다하였다。 황해도에서만 하여도 一〇만여명、평양에서는 一만 五천여명 해주시에서 六천여명의 애국자들과 평화적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미국 흡혈귀들은 경기도 파주군에서 애국자들과 그의 가족 一三五명을 체포하여 길복판에 엎드리게 하고 그 우로 땅크를 몰아 압살하였으며 六명의 어린 아이들은 입술을 도려내고 집게로 혀를 끊어 죽였다。



신천 대중 학살 사건

신천군을 일시적으로 강점한 미국 식인종들은 미군 중위 해리손의 직접 지휘 밑에 가장 야수적 방법으로 평화적 주민 三五、三八三명을 학살하였는 바 그 중에는 一六、二三四명의 녀성들이 포함되여 있었다。

미제 야수들은 원암리 창고에다가 二〇〇명의 유아들을 따로 가두어두고 굶겨 죽였는 바 어린이들은 어머니를 찾어 아우성쳤으며 먹을 것을 찾어 담벽과 마루창을 허비여 손톱은 닳아 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여 첩첩 쌓여서 죽었다。



강도적 략탈

미제 고용병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드는 첫 걸음부터 조선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재물들을 강도적 방법으로 략탈하였다.

한가지 실례만 들어라도 평남 개천군에서 놈들은 七천여두의 돼지와 一〇만여마리의 닭을 략탈하였으며 소는 군내의 四분의 三 이상을 강탈하였다.





부녀자들에 대한 천인 공노할 폭행

살인귀의 두목 맥아더는 一九五〇년 九월 인천에 상륙하는 악당들에게 『서울을 탈취하라! 거기에는 처녀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다. 三일간 이 도시는 너의들의 것으로 될 것이다. 너의들은 서울의 처녀들과 부녀들도 차지할 것이다!』라고 명령했다.

미국 야만들은 강점 지역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문적으로 녀자들을 『사냥』하며 그들을 야수적으로 능욕하고 학살하였다.

전쟁 포로들을 대량 학살

미제는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 전쟁 포로들을 가장 야수적 방법으로 고문 학살하였다.

원쑤들은 거제도와 봉암도, 기타 포로 수용소들에서 고향으로의 귀환을 요구하는 적수 공권의 우리측 포로들을 땅크포와 기총과 화염방사기로 학살하였으며 끓는 가마에 삶아죽이며, 때려죽이며, 굶겨 죽이며, 얼어 죽이는 등의 방법으로 三만 三천 六백여명을 학살하였으며 수만명을 불구자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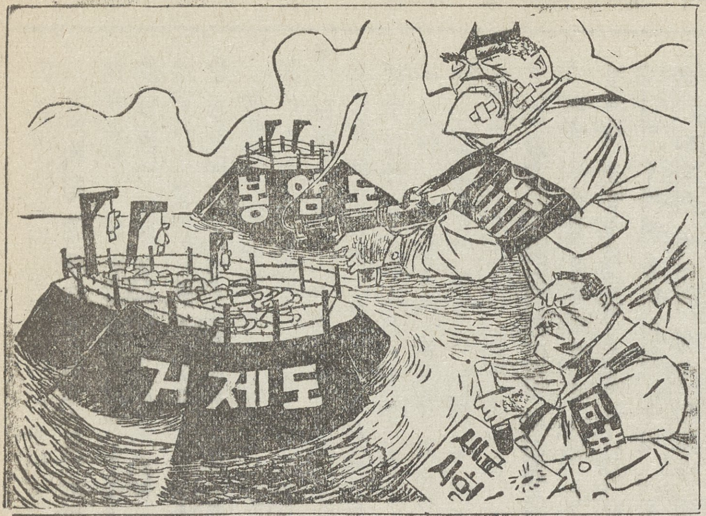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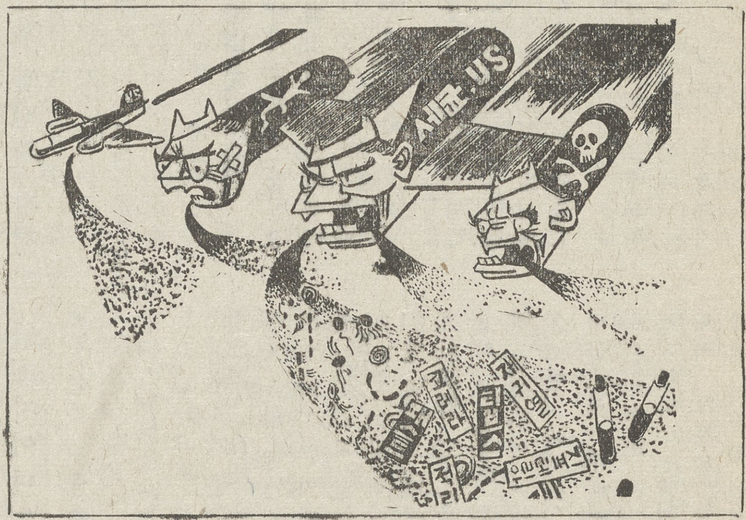
병상 포로에 대한 세균 실험

미제는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 전상 포로들을 『의학적 실험』 세균 실험, 무기의 성능 시험 대상으로 리용하였다.

원쑤들은 『치료』라는 명목 밑에 우리측 전상 포로들의 뼈와 내장을 갈라내며 고기를 뜯어 자기들의 전상자들을 치료하였다.

우리측 귀환 포로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미제의 이와 같은 『의학적 실험』의 결과 二、〇一八명의 우리측 포로들이 학살당하였고 一、一一六명이 불구자로 되였다.





대중적 학살 무기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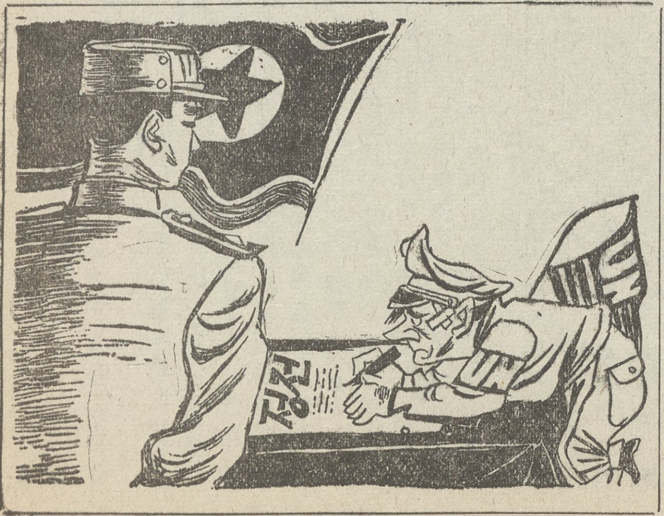
우리측에 포로된 미 공군 대좌 앤드류 제이·엔반스 등이 증언한 바와 같이 미국 식인종들은 국제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조선 전선에서 지어 후방에까지 화학 및 세균 무기(五백폰드 폭탄형 세균탄、一천폰드 폭탄형 세균탄、락하산형 세균탄、『문』형 세균탄、기름 상자형 세균용기 등)를 사용하였다.

실례로 一九五一년 五월 미제 항공기들은 남포시 부근 일대에 까스탄을 투하한 결과 一、三七九명이 중독되고 그중 四八〇명은 죽었다.

침략자들의 말로

二〇세기의 『문명』한 야만들인 미제 략탈자들은 자기들의 『기술적 우세』를 총동원하고 一六개국 고용병까지 끌어들여 갖은 야수적 전쟁 방법과 만행으로 조선 인민을 『정복』해 보려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영웅적 조선 인민은 중국 인민 지원군과 함께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어 미제 략탈자들로 하여금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미제는 력사적으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에서 미제 략탈자들을 하루속히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청 초급 정치 크루쇼크 지도자들에게 주는 자료

쏘련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농업 국가로 되였는가?

(제四 학습 제목 「쏘련은 평화와 민주의 성새이며 조선 인민의 진정한 원조자이다」의 참고 자료)

강 선

쏘련은 가장 선진적 사회주의 농업 국가이다

쏘련 농업은 대규모적 집단적 농업이며 고도로 발전된 강력한 공업—기술적 토대에 의거한 최신식 농기계들에 의하여 무장된 농업이며, 농산 과학이 달성한 높은 성과들에 의하여 선진적 영농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농업이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에 의거하여 농촌 경리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온갖 시책을 베풀고 있다.

전후 시기에 있어서 쏘련 농촌들에서는 소규모의 꼴호즈들을 대규모화하는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一九五〇년 一월 현재 二五만 四천개의 소규모적 꼴호즈가 있었다면 오늘(一九五三년 九월 현재) 九만 四천개의 꼴호즈와 四천 七백개의 쏩호즈가 있다. 대규모의 꼴호즈들은 농업 생산 능률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집단 농장들은 광활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바 一九四〇년에 그의 총 파종 면적이 四、〇三〇만 헥터였다면 지난해에 와서는 무려 四、九三〇만 헥터로 장성되였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一九五四년 二—三월 전원 회의 결정 『국내에서의 곡물 생산의 가일층의 증가와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에 관하여』에 립각하여 거대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까자흐쓰딴, 씨비리, 우랄, 볼가 류역 및 일부 북깝까즈 지방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는바 지난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무려 一、七六〇만 헥터의 처녀지와 황무지가 기경되였다. (계획은 一、三〇〇만 헥터) 이것만 하여도 불란서, 모로꼬, 호주, 아르헨찐의 곡물 파종 면적을 합한 것과 비슷한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광활한 지대에서 한 헥터당 최저 한도 一톤의 곡물을 수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 一、八〇〇만톤의 방대한 수량에 달한다. 一九五六년에 가서는 三천만 헥터에 달하는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간할 것이 예견되여 있는 바 이는 실로 위대한 쏘베트 국가의 위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거사인 것이다.

지난해에 곡물 수확고는 一九二六—二七년 당시에 비하여 四배 이상에 달하였는 바 소맥 생산은 그의 총 수확고에 있어서나 一인당 생산고에 있어서나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미국을 훨씬 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연코 세계 제一위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의 목축 생산도 비상히 발전되였으며 계속 발전되고 있다.

쏘련 농촌은 지금 최신식 기술로써 장비되고 있다. 농촌에는 八、九五〇개소 이상의 엠·떼·에쓰가 있는 바 이에 소속된 一〇〇만 여대의 뜨락또르(一五마력으로 계산하여), 二七만대의 곡물 꼼바인, 四五만대의 곡물 파종기, 二六만대의 풀베기 기계 등 각종 농기계들이 작업하고 있다. 이 중에는 맥류를 매시간 四톤 이상이나 탈곡할 수 있는 탈곡기 『오·에쓰·엠—一三』, 五〇명 이상의 로력을 대신하여 매일 四헥터의 면화를 수확할 수 있는 면화 수확기 『에쓰·하·엠—四八』과 각종 자동추진식 꼼바인, 전기 뜨락또르 등 최신식 기계들이 있다.

쏘련에서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관개망 건설과 호전림 창설 및 습지 건조를 위한 대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몇해 동안에만 하여도 이미 수백만 헥터의 면적에 걸쳐 대 호전림 식수 사업들이 진행되였으며 一만 수천개의 못과 저수지들이 건설되였다.

근년에 와서 쏘련 농촌들에서는 비단 개별적 지역들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지방들에서 화력 및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미 전체 쏩호즈와 약 六만여개의 꼴호즈들이 완전히 전기화되고 있는 바 이는 쏘련 농업으로 하여금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케 하며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청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다.

쏘련은 현대 과학의 높은 성과를 농업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명한 미츄린—윌리암쓰—리쎈꼬 학설은 쏘련 농업의 새 앙양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를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쏘련은 어떻게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농업 국가로 되였는가?

쏘련이 오늘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농업 국가로 발전된 것은 전적으로 레닌의 교시에 립각하여 농촌의 소상품 경리를 집단적 경리의 길로 이행시킨 쏘련 공산당의 현명한 정책의 결과이다. 레닌은 맑쓰주의 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계획을 리론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의 실천적 방법을 교시하였다. 레닌은 『만일 우리가 종전대로 소규모적 경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설사 우리는 자유스러운 땅에서 살고 있는 자유스러운 공민들이라 할지라도 의연히 불가피적인 멸망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협동조합이야 말로 소규모적 개인 경리로부터 대규모적인 협동 경리에로 이행하는 방법이며 쏘련에서 사회주의적 산업과 함께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레닌의 협동 조합 계획은 농업 집단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의 행동 강령으로 되였다.

쏘련 공산당은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명확한 투쟁 강령으로서 인민 대중을 무장시켰다. 사회주의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고

리로 되는 것은 국가의 공업화이다。 국가의 공업화 측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업을、특수적으로는 중공업를 백방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의 물질—생산 토대의 축성을 위한 투쟁에서 첫째가는 과업이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고도로 발전된 중공업의 토대 우에서만이 쏘베트 국가의 위력을 강화하며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 걸쳐 현대적 최신식 기술을 급속한 템포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계통적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인민 대중의 복리를 부단히 증진시키는 원칙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당적 뜨로쯔끼、리꼬브 도당들과 우익 투항주의자들은 쏘련에서 사회주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로선을 비난하고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조소하였다。 이 변절자들은 중공업의 건설을 반대하면서 자금을 중공업으로부터 경공업에로 돌릴 것을 요구하는 반혁명적 제의를 들고 나섰다。

쏘련 공산당 제一四차 대회는 쓰딸린의 지도하에 반역자들의 반당적 『견해』를 분쇄하고 레닌에 의하여 작성된 중공업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유일하고 옳바른 로선을 채택한 후 당은 이 로선에 따라 견결하고 확고하게 전진하였다。 력사적 경험은 이 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제一四차 당 대회가 있은 이후 二八년 간에 쏘련의 중공업은 무려 五五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업 제품 생산은 二九배로 장성하였다。 중공업이 현저하게 발전되면 될수록 국방력의 강화 뿐만 아니라 인민 소비품 생산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제 조치들이 더욱 성과적으로 실행되였다。 一九五四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쏘베트 국가는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一八만 三천여대의 각종 뜨락또르、五만 七천여대의 각종 수확 콤바인、四八만 八천여대의 보습、파종기、중경기、건초 채취기、一만 六천여대의 화물 자동차를 공급하였던 것이다。 로동 계급과 농민 간의 동맹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공업과 농업 간의 련계가 부단히 강화되였다。

만일 쏘련에서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을 창건하지 않았드라면 사회주의적 개혁의 나머지 과업—농업 집단화와 같은 그러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중요 과업을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쏘련 공산당 제一五차 대회는 사회주의 공업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하여 농업의 락후성은 전체 인민 경제에 있어서 위험한 사태를 조성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농업 집단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력사적 결정을 채택하고 그의 목적 달성을 위한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였다。

전반적 집단화는 농촌에서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가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는바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농민들이 꼴호즈에 손쉽게 평화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꿀라크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대중적 투쟁의 방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자기들의 멸망이 닥쳐 옴을 깨달은 꿀라크들은 쏘베트 정권에 대한 각종 형태의 해독 행위를 점점 더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 국가는 처음에 꿀라크에 대한 제한 및 억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국정 가격에 의하여 곡물을 국가에 판매하게끔 책임지우며 그들의 토지 사용과 그의 경영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였다。 아직도 농촌에서 계급으로서의 꿀라크를 청산할만한 제 조건이 성숙되지 못하였던 그 당시에 있어서 이는 완전히 정당하고 가능하고 유일한 정책이였다。 一九二九년 말에 이르러 비로소 쏘베트 정권으로 하여금 계급으로서의 꿀라크

학 습 · 교 양 자 료

에 대한 제한 정책으로부터 청산 정책에로 전환할 수 있게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조성되였다。 꼴호즈와 쏩호즈들은 一九二七년에 꿀라크가 국가에 제공한 것 보다 더 많은 상품 곡물을 국가에 제공하였던 것이다。 쏘베트 정권은 토지 대차에 관한 법령과 고용 로동에 관한 법령을 철폐함으로써 꿀라크로부터 토지와 고용 로동자를 빼앗아 버렸으며 꿀라크의 재산 수탈 금지령을 해제함으로써 그들의 가축과 농구들을 몰수할 것을 허용하였다。 이리하여 꿀라크는 수탈되였으며 쏘련에서 자본주의 부활의 마지막 원천이 근절되였으며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건들이 조성되였던 것이다。

사회주의의 원쑤들은 비단 경제적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 분야에서도 집단화를 반대하는 맹렬한 반항을 일으켰다。 전반적 집단화의 시기에 뜨로쯔끼파는 마치 로동 계급과 농민 간에 적대적 모순이 있는듯이 묘사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호상 불신임을 선동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부하린—리꼬브파는 『계급 투쟁 소멸론』을 제창하면서 꿀라크들이 반항이 없이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장성 발전』해 들어갈 것이므로 건드리지 말고 자유스럽게 발전할 가능성을 줄 것을 제의하였다。

쓰딸린의 지도하에 쏘련 공산당은 이 변절자들의 반당적 기회주의적 『리론』의 부르죠아적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계급으로서의 꿀라크를 청산하는 레닌적 로선을 확고 부동하게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국내의 반혁명 세력에 의하여 쏘련에서 자본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던 외국 자본가들의 희망도 가련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쏘련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꼴호즈 운동의 조직을 위하여 일련의 국가적 방책들을 실시하였다。 막대한 재정적 원조를 주었으며 세금을 면제하며 꿀라크의 경영 재산을 꼴호즈에 양도하며 종곡을 제공하며 농기계를 공급하며 꼴호즈 운동의 선진자이며 조직자로서 수만명의 로동자들을 농촌에 파견하였다。 一九二九년은 꼴호즈에 대중적 가입이 진행된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一九二九—三〇년에 이르러 농민들은 이전과 같은 개별적 그루빠로서가 아니라 질풍과 같은 속도로서 꼴호즈에 대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였다。 一九三〇년 五월에 와서 벌써 꼴호즈들은 농가의 四〇—五〇%를 포괄하였는바 이는 쏘련 농업 발전에서의 근본적 전환이였다。 이제는 쏘베트 정권은 사회주의적 산업 뿐만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부분에도 립각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집단화의 행정에서 당의 로선을 의곡하며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현상들이 발로되였다。 여러 지방들에서 정세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레닌적 원칙을 위반하고 농민들의 준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기한전에 집단화를 완수하려고 하였으며、아르쩰을 뛰여 넘어 꼼무나에로 이행하려고 하였으며、중농에 대하여 그릇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당은 성공에 도취한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꾼들이 범한 오류와 『좌경적』 의곡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있어서 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 『꼴호즈 운동에 있어서의 당 로선의 의곡과의 투쟁에 관하여』와 쓰딸린의 력사적 론문 『성공으로 인한 현훈증』은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은 꼴호즈 운동에서의 당 로선의 의곡을 퇴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꼴호즈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달성하였다。 꼴호즈의 급격한 량적 증가에 따르는 인재의 부족、경영과 관리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엄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 허다한 꼴호즈들에서는 로력이 불합리하게 조직되였

으며, 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족수에 의하여 분배함으로써 로동 의욕을 저하시켰으며, 기계와 가축에 대한 무책임한 취급과 태공 등의 현상이 발로되였다. 특히 일부 꼴호즈에서는 꿀라크들의 잠입 및 그의 파괴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의 부패와 혼란이 혹심하였으며 목축과 기계들에 대한 해독 행위가 빈번하였다. 꿀라크의 해독 행위를 근절하며 꼴호즈의 무질서를 청산하기 위하여 꼴호즈 건설의 제一단계로부터 제二단계에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만일 이전에 그의 량적 증가의 로선에 따라 진행되였다면 제二단계에서는 그의 질을 제고하는 로선에 따라 발전시킬 과업이 제기되였다. 一九三三년 一월에 당 중앙 위원회는 엠·떼·에쓰와 꼴호즈에 복무하는 정치부를 창설하고 一만 七천명의 당 일군들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는 바 이들은 그후 二년 간에 걸쳐 꼴호즈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一九三四년말에 이르러 꼴호즈는 견고한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되였다. 당시 사회주의 농업은 전체 파종 면적의 九〇% 이상을 경작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과거의 二천 五백만의 분산된 개인 농촌 경리는 거의 완전히 대규모적 집단적 경리로 개조되였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경제 체계는 벌써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것으로 되였던 것이다.

쏘련에서 농업 집단화의 승리 『이것은 가장 심각한 혁명적 변혁, 사회의 낡은 질적 상태로부터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이여서 그 결과로 보면 一九一七년 一〇월의 혁명적 변혁과 동등의 의의가 있는 것이였다』(쓰딸린)

꼴호즈 제도는 쏘베트 농촌의 세기적 락후성과 빈곤과 무지에 대한 종말을 지었으며 쏘련 농업의 전고 미문의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을 지어 놓았다. 쏘베트 농민은 인류 력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농민—꼴호즈 농민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되였다.

위대한 조국 전쟁 당시에 팟쇼 도당들의 야수와 같은 파괴적 만행에도 불구하고 꼴호즈 농민들은 전선과 후방 인민들에게 식량과 경공업 원료를 부단히 공급하였다. 가혹한 전쟁은 꼴호즈 제도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 없이 확증하였다. 조국 전쟁 시기에 혹심한 피해를 당한 쏘련 농업은 전후 시기에 있어서 오직 꼴호즈 제도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내에 미증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쏘련에서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경험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하여 더욱 더 풍부히 되였으며 발전된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과 쏘련에서 그의 실천적 경험은 전세계의 맑쓰—레닌주의 당들의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투쟁 강령으로 되였다.

쏘련 농업이 달성한 성과들은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농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촌 경리는 당과 정부의 옳은 정책과 쏘련 농업의 선진 경험을 부단히 섭취하면서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점차 선진 기술로 무장되면서 있다. 실로 쏘련의 사회주의 농업이 달성한 찬란한 성과들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그와 같은 앙양과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의 고무적 모범으로 되고 있다.

왜 자본주의의 사멸이 불가피한가?

칼·맑쓰는 그의 전우이고 친구인 프리드리흐·엥겔쓰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사멸에 관한 법칙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완전한 붕괴를 준비케 하는 놀랠만한 모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례컨대, 부르죠아지 지배 하에서의 공업 생산은 미증유의 규모에 이르렀다. 최신 기술과 기계들에 의한 상품의 대량 생산은 대공장 기업소들에 집중된다. 매개의 이러한 기업소들—이것은 기계 제작 공장이거나 방적 공장이거나 제과(製菓) 또는 제화 공장일 것이다—은 다른 지역과 지방, 때로는 다른 나라들의 로동자, 농민 대중이 생산한 원료를 가공하는 것이다. 상품들은 시장으로 나가며, 전국을 돌아 다니며 심지어는 가장 멀리 떨어진 국가들에까지 운반된다. 상품 생산에는 수공업자의 한 사람이나 한 그루빠가 아니라 로동자 대중이 참가한다. 그리하여 생산은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고, 일군들의 거대한 집단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모든 것을 자본가가 략취한다. 큰 공장들과 제조소들은 일부 자본가들의 소유인데 그들은 근로자들의 수요는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리득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의 가일층의 발전과 전체 사회를 위한 생산품 및 상품 생산의 제고를 저해한다.

생산 도구 및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는 사회 발전과 그 생산력 발전의 제동기로 되였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자본주의의 제도가 불가피하게 사멸할 운명을 지게 하였다. 또는 생산의 무계획성에 관한 문제를 들어 보자. 거대한 기업소들은 그것이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라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것이다. 제때에 원료들을 수매하여 각 분공장들에 공급하여야 하며 숙련된 로동자들과 잘 정비된 공장에 운수 기관과 창고들을 가져야 하며 준비된 상품들을 제때에 판매하여야 한다. 이것은 한 공장이 아니라 전체 공장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계획은 어떤 기업소에도 있다. 이로부터 자연히 전 사회적 생산을 위해서도 또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생산은 거족의 진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개 자본가가 자기의 최대의 리윤을 보장하는 것만을 생산한다. 라사(羅紗)를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자본가는 이것을 만든다. 목 긴 녀자 양말의 생산이 더 유리하게 되면 자본가는 이것을 생산하는데로 옮긴다. 자본가는 기업소와 자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회적 생산에서의 무질서와 완전한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다.

허다한 발명과 발견도, 이것이 자본가들의 돈 주머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면 생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들은 기계가 완전히 낡아서 못쓰게 되기 전까지는 새로운 기계들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더 큰 리윤을 약속하기만 한다면 공업과 농업에서 손으로 하는 로동까지라도 유지하려고 고집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기술 및 과학의 무한한 발전과 로동자들의 로동을 경감하기 위한 생산에서의 그 성과들의 리용을 저해한다.

자본가들의 리윤 추구와 생산이 오로지 탐욕적인 그

들의 리익에 종속하는 것은 로동자와 농민이 자기들의 가장 필요한 상품들도 살 수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이 없는 조건 하에서 공황과 대량적 실업을 초래한다。

로동자들은 빵과 상품을 요구하나 이것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리며 헐 벗고 다니지 않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진다。 그와 동시에 자본가들의 창고와 상점들에는 아무데도 팔 데 없는 상품과 식료품들이 그득 차 있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돈 주머니를 보지하기 위하여 비싼 값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하여 준비된 거대한 량의 식료품과 상품들을 없애 버린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사회적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절함에 있어서 완전히 고립 무원하다는 것을 뵈여 주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립증한다。 여기에 또 하나 첨부해야 할 것은 전쟁이다。 전쟁 시엔 수백만 사람들이 백만 장자들의 리익 때문에 그들의 리윤의 증대 때문에 죽는 것이다。 즉 사회의 가일층의 발전은 부르죠아지의 지배와 량립할 수 없게 된다。

도대체 누가 사회를 부르죠아지가 몰아 넣은 막달은 골목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겠는가? 누가 수억의 근로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로동 계급만이 할 수 있다。

맑쓰와 엥겔쓰의 위대한 공적은 그들이 로동 계급을 계몽하였고, 로동 계급에게 자본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가리켜 주었다는 데 있다。

자본가와 지주가 주인 노릇을 하는한 로동자와 근로 농민과 전체 근로자들은 착취, 기아 및 빈궁의 운명을 질머지게 된다。 로동자에게는 확보된 작업조차 없다。 로동자가 오늘은 일하지만 래일은 자본가가 그를 해고하여 로동자는 그 가족과 함께 빵 한 쪼각 없이 남게 된다。 실업은 항상 그림자처럼 로동자의 뒤를 따른다。

실업자——이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에 대한 무서운 채쭉이다。 해마다 로동자들은 더욱 더 많은 상품과 재부들을 만들어 내지만 그들 자신은 점점 더 빈궁해 진다。 로동자와 농민들이 일년 동안 자기들의 로력으로써 만든 것의 절반 이상이 진탕만탕 사치를 부리며 생활하는 자본가들과 지주들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의 로동자들은 농노 농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만일 농민들이 사적 소유 즉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줌의 땅과 련결되여 전국에 분산되여 있다면 로동자들은 사적 소유로부터 해방되고 대 생산과 련결되며 거대한 집단을 이루어 공장과 제조소들에 집결되여 있다。 전체 로동자들의 처지는 다 한가지이며 그들은 모두 자본가들에게서 착취를 당한다。 공동 작업과 생활 조건은 그들이 급속히 누가 로동자들의 원쑤인가 하는 것을 구명하도록 도우며 자기들의 리익을 위한 공동 투쟁을 위하여 단결하도록 방조한다。 농민에 비하여 로동자들은 문화적 수준이 더 높다。 즉 그들은 기계를 운전할 줄 알아야 했으며 간단한 도면을 알아볼 줄 알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로동자들은 급속히 자연 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계급 투쟁으로 이행한다。 그들은 선진적인 부대 즉 로동 계급의 투쟁을 지도하고 향도하며, 그 대렬을 결속시키며, 로동 계급이 그릇된 길로 탈선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당을 선택한다。

맑쓰와 엥겔쓰는 로동 계급이 자기의 리익을 고수하며 자기 자신과 전체 근로자들을 자본주의적 착취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가리켜 주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전체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비 타협적인 계급 투쟁의 길을 말한다。 최고 절정 즉 자본의 지배의 전복, 국가 주권의 장악, 다시 말하면 혁명에까지 이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바로 이것이 자

본가들에 대한 로동 계급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다。

맑쓰는 계급 투쟁의 리론을 만들어 내였다。 그는, 계급들은 영구한 것이 아니며, 계급으로의 사회의 분리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며, 토지, 직장, 탄광 및 공장들이 노예 소유자, 지주, 자본가들의 소유로 되여 있는 사회 발전 단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맑쓰는 현대 사회에서 계급 투쟁은 불가피적으로 로동자들의 정권 수립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정권은 전체 생산 수단을 인민의 소유로 넘겨 주기 위하여 또 계급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가 없고 부자와 빈자가 없을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것이다。

맑쓰주의적 계급 투쟁의 리론은 먼 지난 날과 오늘날의 근로자들의 처지를 밝혀 주었다。 이 리론은 사회의 발전과 그 력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여 계급들이 발생한 이후 사회의 선행한 모든 력사는 계급 투쟁의 력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 리론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투쟁 행정을 옳게 리해하며 부르죠아지와 지주들을 승리하기 위한 옳은 길을 찾도록 방조하였다。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위대한 힘으로 되는 것은 로동 운동의 대렬의 통일이며, 전체 민족의 로동자들의 협조와 호상 원조이며,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이다。 로동자들의 대렬을 통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대렬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부르죠아지는 한 민족의 로동자들을 다른 민족의 로동자들에 대하여 사촉하여 그들이 서로 서로 충돌하게 하려고 하며 그들간에 적개심을 부식시키여 그들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로동 운동의 분렬과 약화를 목적으로 부르죠아지는 아르메니야 사람에 대하여 따따르 사람을, 유태인에 대하여 아라비야 사람을, 불란서 사람에 대하여 독일 사람을, 니그로에 대하여 아메리카 사람을, 중국 사람에 대하여 일본사람을…사촉하려고 한다。 자본가들에게는 로동자들을 따로따로 떼여 놓고 분쇄하는 것이 손쉬운 것이다。

맑쓰주의는 근로자의 원쑤들의 이 교활한 간계를 폭로하고 어느 민족의 로동자들의 리해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어느 나라에서나 로동 계급의 공통적인 원쑤는 자본가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이 더욱 더 일치 단결하여 행동한다면 그만큼 그들은 더 큰 성과들을 달성할 것이다。 저명한 로작『공산당 선언』에서 맑쓰와 엥겔쓰는『전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이 호소는 로동자들을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사들의 단일한 군대에로 단결시킨다。 이 호소는 이미 一〇〇년이 넘도록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에서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되고 있으며, 전 세계 로동자들의 옳은 교양 및 계몽의 기초로 되고 있다。

자본주의 파멸의 시기는 二〇세기에 닥쳐 왔다。

一九세기와 二〇세기 어간에 자본주의 발달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공업과 기술은 사뭇 발전하였다。 자본가들의 강력한 련합들 즉 독점체들이 형성되였고, 이것들은 자기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생산의 개별적 부문들, 판매 시장 및 원료 원천지들을 자기 수중에 틀어 쥐였고 전 세계를 호상간 분할하였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기업소들의 관리를 고용된 지배인들과 기타 감독들에게 위임함으로써 그들은 종국적으로 기생자 계급으로, 사회 발전의 방해물로 전환하였다。 리득에 대한 욕망은 지난날 보다 더 강하게 그들을 휩쌌다。 즉 백만 장자는 억만 장자로 장성한다。

오늘날 분할된 세계의 재 분할, 시장, 원료, 세계 제패 등을 위한 투쟁이 개별적인 자본가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본가들의 거대한 련합들 사이에서 시작되였고 자본가

들은 이 투쟁 속에 일련의 국가들을 끌어 넣고 있다。세계 재분할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들은 불가피한 것으로 되였다。

독점체들의 지배는 자본의 기반을 강화한다。프로레타리아트의 처지는 해마다 더욱 악화된다。이것은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계급 투쟁을 첨예화한다。자본주의 나라들의 수백만 로동자들 앞에는 자본의 발굽 아래서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혁명 투쟁에서 부르죠아지의 정권을 전복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과 전체 근로자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식민지들과 가장 큰 자본주의 국가들에 예속된 나라들의 수억 인민들 앞에도 꼭 같은 문제가 제기되였다。압박 받는 인민들은 허리를 펴고 자기들의 세기적인 억압자들과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해방 투쟁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로동 계급은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더 성숙되였고 정치적으로 더욱 더 자각되였으며 투쟁에서 단련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자본주의가 二〇세기에 더 높은 단계 그러나 동시에 그 존재의 최후 단계에 들어 섰다는 것과 그 사멸과 더 높은 제도 즉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의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를 제국주의라고 부른다。이 단계는 자기의 특성과 법칙을 가지고 있다。

맑쓰주의 학설에 의거하여 새 시대의 경제적 및 정치적 특수성을 연구한 다음, 레닌은 분쟁과 전쟁을 초래하는 제국주의 하에서 여러 나라의 불균형적 발전 법칙의 결정적 역할을 지적하였다。례컨대, 독일과 일본은 一九세기 중엽에는 아직 다른 나라들의 꼬리에 붙어 다녔다。二〇세기 초엽에 이르러 이 나라들은 一등국들의 서렬에 나섰고, 이 나라들이 원료를 날라오고 자본과 상품들을 날라갈 수 있을 식민지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미 분할되여 있었다。전쟁에 의한 세계 재분할에 관한 문제가 나섰다。세계는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였다。한 진영의 선두에는 미 영 및 불란서의 자본가들이 나섰고 또 하나의 진영의 선두에는 독일의 자본가들이 나섰다。자본가들의 돈 주머니를 위하여 一九一四—一九一八년의 류혈적인 제一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침략적인 제국주의 전쟁들은 자본주의를 더욱 더 뒤흔들어 놓고 그의 사멸을 촉진시킨다。

제국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의 철쇄를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 돌파할 수 있게 된다。로동 계급 앞에는 우선 수개국에서 또는 심지어 개별적인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혁명이 승리할 가능성이 열린다。다른 한편 여러 나라의 로동자들 자신도 꼭 같이 혁명을 준비한다。그러므로 전체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동시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개별적인 어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이 결론을 레닌은 一九一五—一九一六년에 내리였다。이 결론은 세계 혁명 운동을 위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새로운 레닌적 혁명 리론 즉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리론은 모든 나라의 로동자들이 다른 나라들에서의 승리를 기다리지 말고, 팔장을 끼고 앉아 있지 말고, 그 자신 혁명 투쟁을 시작하며, 자기들의 자본가들을 전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며, 그리하여 전 세계에서의 로동 계급의 전반적 승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호소하였다。자본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전복의 시기가 닥쳐왔다。

로동 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할 과업을 실현하는 것은 공산당의 령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프로레타리아트 당에 관한 학설을 창시한 것도 또한 맑쓰와 엥겔쓰였다。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적 조직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공산당에 관한 학설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울라지밀르·일리이츠·레닌이였다。로씨야의 로동 계급은 브·이·레닌의 교시를 받들고 그의 령도 하에서 이러한 당 즉 쏘련 공산당을 창건하였고, 쏘련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하였다。

왜 로동 계급은 공산당의 령도가 없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가?

그것은 로동 계급이 강력하고 간악한 원쑤를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자본가들의 수중에는 온갖 재부, 국가 기관, 군대, 경찰, 재판소 및 감옥들이 있다。허위적인 출판물, 영화 및 기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들이 그들의 관리 하에 있다。그런데 로동 계급은 우선 자기의 조직성과 자각성만을 자기 원쑤에게 대치시킬 수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것도 온전한 것으로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전체 로동자들이 다 꼭 같은 정도로 공동 투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즉 어떤 사람들은 이 투쟁에 자기들의 전력을 바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방관한다。가장 적극적이고 자각적인 로동자 부대는 당에 결속된다。

공산당은 로동 계급과 가장 자각적이고 가장 활동적인 그 대표자들의 선진적인 부대이다。공산당은 단일한 견해, 강령 및 규약에 의하여 결합되고, 통일된 의지와 철석 같은 자각적 규률에 의하여 결속된 로동자들의 조직된 부대이다。규약의 요구는 평당원이나 당내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 당원이나 할 것 없이 전체 당원들에게 의무적이다。

공산당——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의 최고 형태이며, 이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다른 조직들 가운데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다。직업 동맹, 문화, 체육 및 기타 로동자 단체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과업들을 추구하고 당은 이 모든 단체들을 련합시키며, 한가지의 목적 즉 자본의 주권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이 단체들이 강화되도록 이끈다。

공산당——이것은 로동 계급의 투쟁에 있어서의 그의 참모부이며 령도자이다。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근본적 리익을 표현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책을 수립한다。공산당의 위력은 로동 계급 및 근로 대중과 불가분리의 련계 속에 있다。이러한 것은 공산당이 로동자들과 전체 근로자들의 형편과 기분을 정확하게 타산하여 그들을 투쟁으로 동원시키며, 로동자들의 사업의 성과를 보장할 가능성을 준다。

공산당의 위력은 공산당이 사회 발전 법칙을 옳게 인식하며 실천 사업에서 이 법칙에 의거할 가능성을 주는 맑쓰—레닌주의 리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데 있다。당은 이 리론으로써 로동 계급을 무장시키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며, 혁명적 정신으로 육성한다。당은 로동 계급에게 자기 사업의 정당성, 착취자들에 대한 승리의 불가피성에 대한 신념을 주입시킨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은 공산당의 령도 없이는 자본가들에 대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이것은 로동 운동의 전체 경험이 확증한다。이것은 쏘련의 경험 즉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 승리의 경험과 중국 인민 및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제 인민의 승리의 경험에서 특히 뚜렷이 볼 수 있다。

성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로동 계급은 확고한 동맹자**들을 가져야 한다。프로레타리아트의 충실한 **동맹자는**

근로 농민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이 필요한가?

소 경리로 말미암아 분산되여 있는 근로 농민은 자기의 공고한 혁명적 조직을 창건할 수 없으며, 지주와 꿀라크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농민은 더 조직된 지도자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도자를 공업 로동자들에게서 찾는다. 이번에는 로동 계급이 또한 근로 농민 속에서 특히 빈농 속에서 자기의 확고한 동맹자를 찾는다. 이것은 그들의 근본적 리해 관계가 부합된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즉 로동자들도 농민들도 꼭 같이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권의 전복, 근로자들의 온갖 착취의 철폐, 새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등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가장 조직적이고 혁명적이며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가장 단련된 계급으로서 당연히 전체 근로자들과 도시 및 농촌의 피착취 대중의 수령으로 된다.

로동 계급과 공산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로동자와 농민의 전투적인 동맹은, 쏘련에서 짜리 제도를 전복하고, 자본주의 제도와 전체 착취 계급을 숙청하고,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고케 한 결정적인 력량이였다.

공산당은 근로자들의 전체 원쑤들 즉 로동자들과 농민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질 하게 하려고 한 반혁명적 뜨로쯔끼파, 우익 변절자들,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 및 이와 류사한 로동 계급의 원쑤들의 공격으로부터 로농 동맹을 고수하였다.

서구라파 사회 민주당들의 근본적인 죄과중의 하나는 이 당들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있어서 로농 동맹을 수립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의 전복은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또 준비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자들의 획득, 당면한 혁명에 대처한 동맹자들의 옳은 교양과 훈련에 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를 근로 농민과의 동맹이 아니라 부르죠아지와의 동맹에로 이끈다. 사실 이것은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온갖 투쟁의 거부와 같은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와 전체 근로자들의 리해 관계에 대한 배반을 의미한다.

로동 계급이 만일 동맹자들이 없이 자본가들에 대하여 一대一로써 투쟁한다면 자본가들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은 전체 근로 대중을 착취로부터 동시적으로 해방시키며, 그들의 정치적 령도자(수령)로서 진출하는 경우에라야만 자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 근로 농민의 광범한 대중과의 동맹이 없이는 로동 계급은 공고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이렇게 가르친다. 력사의 경험과 쏘련 및 기타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경험은 이렇게 말해 준다.

뻬·체롬니흐 저

『계급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계급 투쟁은 왜 진행되는가?』 중에서

(리 원 주 역)

개인과 집단

김 영 기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들의 모든 활동은 사람들 호상간의 일정한 관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도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서는 단 한시각도 살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례를 들어보자, 독자들이 먹는 량식이며 사는 집이며 읽는 책 등등 모든 생활 자료들은 어데서 났겠는가? 이것들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근로 인민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고립되여 살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와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그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에 따라 규정된다. 즉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계급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호상 대립되는 계급 관계이며 착취와 피착취, 억압과 피압박의 관계이다. 그와 반대로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사회적 소유로 된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착취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동지적 협조와 친선의 관계이다.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판이한 두 관계는 대립되는 두개의 사상 조류——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발생시킨다. 개인주의는 부르죠아 도덕의 근본으로 되며 집단주의는 프로레타리아 도덕의 특징으로 되고 있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매개 성원은 집단을 위하여 책임지며 집단은 개인을 위하여 책임지는 원칙에 립각하고 있다. 집단주의의 이러한 원칙은 집단과 집단의 매개 성원의 리해 관계가 일치하다는데 기초하고 있다. 때문에 집단주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가 소멸된 사회——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고 국가 주권을 인민을 자신이 장악한 사회 제도하에서만 발생 발전하는 것이다

집단주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도덕인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특징의 하나이다.

생산 수단이 전 인민적 공동 소유로 된 기초 우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공동 로동을 통하여 서로 단합하고 동지적 협력 및 호상 원조의 관계를 맺게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이 사회를 위한 자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전체 사회 성원의 공동 로동으로 된다. 근로자들이 창조한 물질적 부는 착취자들, 기생적인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자신들의 복리와 사회를 위한 것으로 된다. 집단주의는 진실로 매 개인이 자기들의 운명을 집단과 련결시킬 줄 알며 집단의 행복을

떠나서는 자기의 행복도 리상도 실현될 수 없다는 자각밑에 자기들의 개인적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킬 줄 아는 고상한 품성이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八・一五 해방 후 일제 통치 제도가 전복되고 인민 민주 제도가 수립된 토대 우에서 우리 인민들 속에서는 새로운 인민적 도덕 품성이 형성 발전하고 있다。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교양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집단 속에서 생활하며 로동할 줄 아는 그리고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고상한 집단주의적 도덕 품성이 배양되고 있다。

민청은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며 생활하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집단적 생활 처소이다。민청 생활을 통하여 민청원들은 집단의 힘을 자각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규률에 대한 자각적 준수의 정신은 그들 속에 배양되고 있는 집단주의 정신의 명백한 표현으로 된다。

집단주의 정신은 또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에의 적극적 참가와 농업 협동 조합에의 자원적 참가에서 또한 고상한 동지적 우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정전 후 생산 기업소에 새로 진출한 수 많은 로동 청년들은 동지들의 집단적 방조에 의하여 단시일내에 기능 급수를 높였는 바 一九五四년 三・四분기 기간에만 해도 七천 六백명의 로동 청년들이 기능공으로 자라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 로동 청년들 속에서의 호상 원조와 아름다운 동지애의 명백한 실증이다。

집단의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자기의 최대의 영예로 알고 집단의 리익과 자기 개인의 리익을 련계시킬 줄 알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자기의 전체를 복종시키고 필요할 때에는 서슴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줄 아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은 특히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뚜렷이 표현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의 마뜨로쏘브들이 적 화력의 희생으로부터 동지들을 구원하며 전투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심장으로 적 화구를 막았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는 우리 나라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훌륭한 품성으로 날로 공고 발전되고 있다。

개인 리기주의는 부르죠아 도덕의 기초이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분렬시키며 호상 반목케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는 지배와 예속、착취와 피 착취、압박과 피 압박의 관계이며 타인의 희생과 고통에 의하여서만 개인의 리익과 행복이 획득된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도덕의 원칙은『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사상이며 이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 리기주의가 발생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는『……네가 남의 것을 빼앗느냐、그렇지 않으면 남이 네것을 빼앗느냐、네가 남을 위하여 일하느냐、남이 너를 위하여 일하느냐、너는 노예 소유자가 되느냐、그렇지 않으면 노예가 되느냐、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노예 소유자이건、노예이건、소 소유자이건、소 사무원이건、소 관리이건、인테리겐챠이건、요컨대 인간은 다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격정할 것이며 남의 일까지 격정할 필요는 없다는 심리와 습관과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리기주의는 개인의 탐욕적 리익과『출세』를 위하여서는 부모도 형제도 친우도 없으며 모든 것을 꺼리

낌 없이 희생시키는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이미 인민 민주 제도가 수립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 인민과 청년들의 사상 의식에는 자본주의적인 낡은 사상 의식의 잔재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의 전진을 방해하는 유해한 작용을 놓고 있다。

이러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은 우선 국가 사회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시키며 개인의 리익을 선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사회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리익을 줄 것인가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 중에도 특히 엄중한 것은 국가 사회 재산을 랑비、횡령、절취하는 탐오 랑비 현상이다。 최근『민주 청년』지가 폭로한 바와 같이 만포군 민청 위원장이던 문 학룡은 공공 재산 六만원을 횡령 절취하여 음주 방탕하였다。 농촌에 있어서 일부 농업 협동 조합내 청년들 속에서는 조합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여러가지 부정적 경향들이 발로되고 있다。 그들은『조합의 것』과『내 것』을 가리며『내 것』을『조합의 것』보다 더 소중히 하는 것이다。 개인 소유의 터밭을 협동 경작지보다도 더 정성들여 가꾸며『자기의 소』에 더 애착을 갖고 먹이며『자기의 연장』은 소중히 다루고『조합의 연장』은 함부로 다루는 일이 있다。

국가 사회 집단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선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공명주의로도 표현된다。

공명주의자들은 자기의『공로』와『명예』와『출세』를 위하여 하지 않은 것도 한듯이、잘 못한 것도 잘 한듯이 상부에 보고하며 전반적 국가 사회 사업에 해독을 끼친다。

또한 공명주의자들은 기술 기능을『독차지』하려 하며、증산 경쟁에서는 앞선 자를 질투하며 뒤떨어진자를 원조하지 않는다。

개인 영웅주의도 역시 개인 리기주의의 표현인 바 그들은 집단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과대 평가하고 자고 자대하며 동지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개인 리기주의는 또한 각종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공장、기업소、전설장들에서 일부 로동 청년들은 국가 규률과 로동 규률을 종종 위반하며 일부 청년들은 사회 공공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

끝으로 집단 생활에서 묵과할 수 없는 옳지 않은 편견은 개인 사생활과 집단 생활을 분리하여 보려는 경향이다。 일부 민청 단체의 일군들은 민청원들의 로동 행정에서의 생활에는 관심하나 그의 가정에서의 생활에는 적게 관심을 돌린다。 농촌에서는 최근 여유 량곡을 국가에 수매시켜 일시에 다액의 현금을 받은 청년들 중에서 일부 음주 방탕하며 심지어 도박을 하는 자가 있어도 이에 관심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기의 사생활이『사사로운 일』이라 하여 집단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며 일부 민청 일군들은 사생활을『개인에 속하는 사소한 문제』라 하며 묵과하고 방임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은 관점이다。 왜냐 하면 개인의 사생활은 사회 생활과 분리시킬 수 없으며 그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경향들은 우리 사회에서 적대적인 자본주의 사상의 잔재이며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청은 청년들의 머리 속에 잔존하는 개인 리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을 조직해야 하며 민청원들과 청년들에 대한 집단주의의 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집단주의 교양을 강화하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집단주의자로 배양한다는 것은 그들이 집단의 리익에 의거하여 살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당과 정부가 제기한 과업을 실행함에 헌신분투하며 사회주의의 적극적 건설자로 용감한 보위자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한다 함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인민에게 더 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며 집단 속에서 살며 집단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할 줄 아는 정신이 그들의 관습이 되여 일거일동에 표현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일상적 사회 생활—로력과 건설 특히 사회주의적 경쟁에서 집단주의의 교양을 받고 있다. 각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의 작업반과 브리가다 농촌에서의 품앗이반 및 협동 조합내 작업반, 각급 학교 집단들에서의 공동 사업과 생활, 그리고 민청 사업과 민청 생활은 청년들에 대한 집단주의의 교양의 훌륭한 학교이다.

그들은 집단에서의 사업과 생활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며 위임된 과업을 성실하게 집행하며 이 행정에서 제기되는 난관을 극복하는 투쟁을 통하여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불가분리의 것으로 련계시킬 줄 알며, 집단의 리익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자각하게 될 것이며, 고상한 규률성과 조직성으로 훈련 될 것이며,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도와주며 협력하는 미풍이 배양될 것이다.

집단주의의 정신으로의 교양은 온갖 개인 리기주의, 개인 영웅주의, 공명주의, 자유주의 등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과 병행되여야 한다.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드라도 이를 묵과하지 않으며 집단의 리익을 전체 집단이 책임적으로 수호하는 그런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은 당 단체의 일상적 지도 밑에 행정 및 가정과 긴밀한 련계를 갖고 일상적으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교양 훈련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매개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자기를 조국 건설의 위대한 부대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자기 손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조국을 재건하는 영예로운 역군』(김일성) 이라는 자각을 갖고 자기들의 생산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투사로 배양하여야 한다.

용감성과 강인성의 학교

八五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로 조직된 우리 민청 청년 돌격대원들은 지금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 제四호를 높이 받들고 다층 주택 건설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과 창조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민청 청년 돌격대가 조직된 것은 지난 三월 초였다. 중앙 제二건설 트레스트 민청 위원회에서는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 제四호를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八·一五 해방 一○주년 경축 증산 경쟁 운동에서 민청 단체의 과업을 토의하는 회의를 소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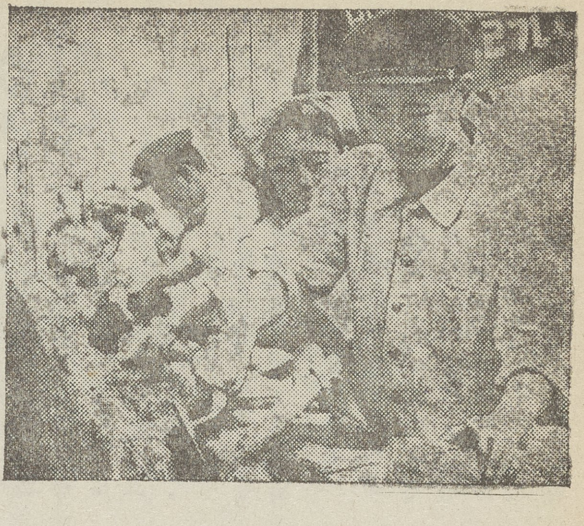
민청원 김석홍과 리윤실이 회의에서 민청 청년 돌격대를 조직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들은 「민주 수도의 복구 건설장은 우리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로력 위훈을 뜨겁게 부른다. 우리 사업소 전체 종업원 수의 절반 이상이 청년들이다. 제四사업소를 민청 청년 사업소로 만들자, 민청 청년 돌격 건설대를 조직하자, 건설장의 어려운 요새를 우리의 돌격대가 점령하자』고 제의하였다. 그의 발기는 젊은 건설자들을 흥분시켰으며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트레스트 당 단체와 행정은 젊은 건설자들의 애국적 발기를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민청 청년 사업소와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이 창설되고 민청 청년 돌격 건설대가 조직되였다.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 제四호를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八·一五 해방 一○주년 경축 증산 경쟁 운동에서 민청 청년 사업소 앞에는 八·一五까지 다층 주택 九六세대를 건설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우리 돌격대는 사업소에 부과된 이 방대한 건설 공사 중에서 六二%에 해당한 六○세대를 담당하였다. 민청 청년 돌격대는 작업장을 다층 주택 건설 공사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자원 설정하였다. 민청 단체는 돌격 대원들의 조직적 활동을 옳게 보장하기 위하여 九개의 돌격 브리가다를 만들었으며 브리가다별 경쟁을 체결하였다.

한편 우리의 돌격대는 다층 주택 六○세대를 八·一五까지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 투쟁 목표를 수립하였다. 목표는 우선 로동 생산 능률을 매일 평균 一七三% 이상으로 보장하여 연 九천 八백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며, 출근률을 九九% 이상 보장하며, 四八○분의 로동 시간을 효과 있게 리용하며, 공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표준 시공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기자재의 절약과 유휴 자재를 재생 리용하여 원가를 八·六% 저하시켜 국가에 四二만 七천 三백 원의 리익을 주며, 무기능공 六○명중 三○



* 돌격 건설 대원들의 기초 공사 작업



※ 벽돌 축조 작업을 하는 돌격 건설 대원들

명을 기능공으로 양성할 것 등이다。

우리 돌격대의 구체적 목표는 실천에 옮기여지고 있다。 돌격대원들은 건설장에서 불요 불굴의 용감성과 강인성을 발휘하고 있다。 돌격 건설장이 창설된지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산데미와 같이 쌓여 있었든 잔토와 수 많은 폭탄 구뎅이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아름답고 튼튼한 근로자들의 다층 주택이 일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성과는 초보적인 것이나마 그간 적지 않는 애로와 난관을 돌격 대원들이 극복한데서 이루어졌다。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의 기초 공사는 가장 힘들었다。 잔토는 열어 붙었기 때문에 브로도제르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동결토는 곡괭이로 파서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메워진 폭탄 구뎅이를 생땅이 보이도록 파야만 되였다。

민청 단체는 전체 돌격 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로동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였다。 민청 단체는 돌격 건설장의 형편과 결부시켜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로동에서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하자』라는 제목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돌격 브리가다 선동원들은 매일 작업 총화에서 기초 공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차용희、 한이돌 돌격 대원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그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돌격 대원들은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주 수도ー평양시를 아름답고 튼튼하게 건설하려는 그들의 결의는 더욱 굳어져갔다。 돌격 대원들은 풀리지 않는 언땅과의 싸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난관은 또 있었다。 기초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땅 속에는 그전에 기초 공사를 하였든 철근 콩크리트가 나타났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였다。 언땅을 파서 제거하는 작업보다 배 이상의 로력이 소요되였다。 이렇게 二중 三중의 난관이 부닥쳐도 돌격 대원들은 더욱 용감성과 강인성을 발휘하였다。 리윤실 돌격 브리가다에서는 이상의 모든 장애물을 철거할때에 一五〇ー二〇〇%까지의 능률을 높이였다。

민청 단체는 김 석홍 돌격 브리가다의 작업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벽보 『로력』에 광범히 게재하였다。 벽보『로력』은 돌격 대원들의 기세를 더욱 높이며 경쟁을 더 치렬하게 하는 말없는 교양자이며 고무자로 되고 있다。



돌격 대원 리 윤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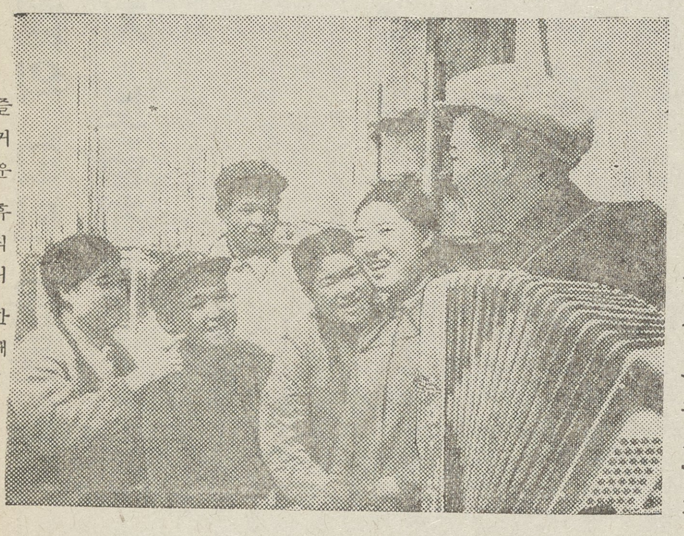
돌격 대원들의 이와 같은 열성으로 하여 지난 三월二〇일까지 약 一六일 동안에 동결토 一천 二백 九〇여립방메터를 제거하였으며、 땅 속에 묻혀 있었든 기초 콩크리트 三二四여립방메터를 망치로 까서 그를 운반하였으며、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수 많은 폭탄 구뎅이에 메워졌든 흙을 다시 두길 반이나 생땅이 보일 때까지 파냈다。 이리하여 다층 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북구 건설장에서

一천七백여평방메터의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기초 공사에서 四六〇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국가 계획보다 八일간 단축하였다。 돌격 대원들은 이와 같은 로동을 통하여 단련되였으며 자체의 용감성과 강한 의지력을 배양하고 있다。

민청 단체는 이 건설장에서 뿐만 아니라 돌격 대원들의 문화적 휴식에 대하여、 그들의 사 생활에 대하여서도 세심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돌격 대원들의 합숙을 깨끗이 수리하였으며、 사업소 녀맹원들의 방조를 받아 돌격 대원들 중 독신자들의 의복의 수리、 세탁 등에도 배려하고있다。 휴식 시간과 휴식일 마다 작품 감상회、 영화 감상、 오락회、 돌격 브리가다별 체육 경기회、 써클 발표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돌격 대원들은 또한 어떻게 하면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며 자체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인내성 있게 노력하고 있다。 돌격 대원들은 절약 투쟁에서 모범이 되고있다。 돌격 대원 한이돌의 발기에 의하여 산재되여 있는 벽돌을 매일 一인당 석장、 三월말까지 못 반키로씩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유휴 자재 수집 운동에는 사업소 전체 종업원들과 돌격 대원들이 참가하였는바 이미 지난 二〇일 현재 八、〇〇〇여매의 벽돌과 一二키로의 못을 수집하였다。 우리의 돌격 대원들은 이와 같은 유휴 자재의 수집과 온갖 절약 투쟁을 통하여 얻은 금액으로 다층 주택 두 세대를 지을 목표로 계속 로력하고 있다。



즐거운 휴식의 한때!

돌격 대원들은 지금 자기들의 기술 기능 급수를 한급씩 더 높일 것과 한걸음 더 앞서 다기능공이 될 경쟁도 전개하고 있다。 돌격대는 또한 공사장에 벽돌이 다량 요구되므로 대성 요업 공장 청년 직장 민청원들과 청년들도 우리들과 발맞추어 벽돌 증산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다고 제기한 돌격 대원 리 시철의 발기에 의하여 대성 요업 공장 민청 청년 직장 민청원들과 호상 경쟁을 체결하였다。 우리 돌격 대원들은 이 경쟁 운동에서 앞서기 위하여 더욱 건설 속도와 그의 질을 높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의 젊은 벽돌공들은 쏘련의 선진적 벽돌 축조 방법을 적용하여 매일 三천장의 벽돌을 쌓고 있다。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의 면모는 날로 아름답게 개변되고 있다。 건설은 급속히 진척되며 민청원들의 용감한 의지는 튼튼히 단련되고 있다。

중앙 제二 건설 트레스트
민청 청년 사업소
민청 청년 돌격 건설대
대장 리 신 천

민청 생활

민청원들의 창의 고안 운동을 백방으로 지지 보급하자

김책 제철소 민청 위원회
위원장 최 동 필

작년 一二월 우리 제철소 민청 세탄 분 초급 단체는 一인 一건 이상의 창의 고안 운동을 발기하였다.

이 운동은 크나 적으나 간에 一인 一건 이상의 창의 고안 및 작업 조직의 합리화로써 국가에 공헌하려는 민청원들의 고상한 애국심의 표현이였다.

제철소 당 단체는 공장 민청 위원회 세탄 분 초급 단체, 민청원들의 이 발기를 보급시킬 데 대한 조언과 적극적인 지도 방조를 주었다. 민청은 당 단체의 지도 밑에 이 운동을 통하여 새기술의 도입, 작업의 기계화 및 합리화 등으로서 로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하며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며 원가를 저하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는 투쟁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또 달성하고 있다.

민청은 우선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의 고상한 의의를 광범한 민청원 군중 속에 침투시키기 위한 선전 해설 사업을 강화하였다. 민청은 『창의 고안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국가에 어떤 리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조직하였다. 강연에 출연한 기사 김 필훈은 제철소에서 수다히 배출된 창의 고안을 실례를 들어 해설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생산에 도입되여 국가에 리익을 주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설하였다. 강연회, 좌담회, 혁신자들의 경험 교환회와 아울러 선동원들은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의 내용과 의의를 민청원들 속에 해설하였다. 동시에 공장 신문 "선철" 벽보 "번개"에 『동무는 어떤 창의 고안을 제안하려는가?』 『창의 고안은 조국에의 귀중한 공헌이다』 등의 제목으로 세탄 분 초급 단체 민청원들의 애국적 발기를 지지하는 선동적 보도를 게재하였으며 공장 유선 방송은 이 운동에 호응한 민청원들의 결의를 소개하여 그들의 열성을 고무하였다.

민청원들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일하는 처소에서와 기대에서 일을 더 쉽게 잘하며 능률을 높일 수 있을가에 대하여 호상 연구하고 토론하며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였다. 민청은 이 운동을 조직 전개함에 있어서 로동 청년들의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며 낡은 방법에 매달려 새 것을 억제하는 그릇된 경향과 투쟁하였다.

공장 민청은 또한 행정 기술 간부 및 직맹 책임자들과의 협의회를 조직하였는 바 협의회에서는 이 운동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민청반에서 매개 민청원들의 창의 고안에 대한 예비적 토의를 진행한 다음 초급 단체 공개 총회를 열기로 하

였다.

이 사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특히 민청반 활동을 현저히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창의 고안은 비록 개별적 민청원이 제기할 수 있으나 그의 성공적 해결은 많은 경우에 민청원들의 집단적 총명이 발휘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창의 고안이 제기되였을 때 서로 그 내용을 잘 알며 호상 방조를 주며 창의 고안을 성공케 하는데 민청반의 활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는 큰 것이다. 공개 총회를 수일 앞두고 진행된 부산물 민청 반회의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었다. 민청원들은 민청반 회의에서 제안된 창의 고안에 대한 진지한 호상 토론을 전개하였다. 반 회의에 참가한 기사 김 석현은 민청원들의 토론을 종합하여 기술적 해명을 줌으로써 창의 고안 제안자들에게 확신과 그에 대한 의욕을 더욱 높여 주었다. 이날 부산물 민청반 회의에서만도 창의 고안과 합리화 제안이 수건 제기되였다.

우리는 이 경험을 보편화하였다. 매 분 초급 단체들에서는 이 경험을 살리며 민청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초로 하여 총회 준비를 갖추었다.

초급 단체 공개 총회가 시작되였다. 여기에는 도 민청 지도 그루빠를 비롯하여 당 및 행정 기술 일군들과 민청 사업에 유능한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공개 총회는 민청원들과 공장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성 속에 진행되였다.

용광로 민청 분 초급 단체 총회에서는 대소 一七건의 창의 고안이 제기되였고 제선 분 초급 단체 총회에서 리 수남은 한 사람이 하루 벽돌 一五○매를 가공할 수 있는 벽돌 가공기를 창안할 구체적인 설계를 말하였다. 공개 총회에서 기술 수준이 어린 신입 로동 청년들은 폐품 회수 운동을 호소하였다.

우리가 분 초급 단체 공개 총회를 총화하였을 때에는 실로 一七五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제안이 제기되였다. 불과 二○여일이란 짧은 기간내에 제기된 이 숫자는 작년도 一년간 우리 제철소 전체적으로 제기된 창의 고안 건수의 九七%에 해당되는 놀라운 숫자였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우로부터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제때에 충족시킨다면 민청 사업은 더욱 활기 있고 내용 있게 되며 청년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휘시킬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실제로 체험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은 민청원들에게 새 것을 위한 투쟁에서 항상 용감하며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비타협적인 비판의 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좋은 계기로 되였다. 우리는 창의 고안 운동에 기술적 산 방조를 옳게 줄 데 대한 방안을 당 단체와 행정에 제기하였는 바 당과 행정은 이 제의를 적극 지지 방조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기사 기수들은 이미 민청원들로부터 발기된 창의 고안의 설계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매개 직장별로 자기들이 직접 담당 지도하여 창의 고안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민청원들을 친절히 지도하였다. 주물 직장 민청원 최 윤주는 『접판 리용 조형법』으로써 작업 기일을 五一일간 단축하였으며 로력을 三、六○○공수 절약하여 국가에 一九만 二천여원의 리익을 주었다. 분석부 민청원들이 오래도록 집체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자들의 기술 지도를 받아온 량형갑이 제안한 까스로도 생산에 도입되였다. 이 까스로의 작업으로 말미암아 로력 一、○九五공수와 석탄 四五八톤을 절약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다. 분석부에서는 이외에 一三건의 창의 고안이 성공되였는 바 이는 실로 국가에 二一만 八천원이란 거액의 리익을 주었다.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매개 민청원들로 하여금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은 증산 경쟁 의무 조항의 완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이 전개되자 민청원들 사이에는 로동 규률에 대한 자각적 준수의 정신이 더욱 높아졌다。그들은 브리가다 총화와 민청반 사업을 강화하여 무단 결근자、오작품 생산자、그날 하루일을 어물 어물 지내려는 일체 그릇된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지금 우리 제철소 내 二〇개 민청 청년 브리가다들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업 총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민청 청년 브리가다 전부가 자기들의 생산 과제를 一〇〇내지 一四〇%씩 넘쳐 실행하고 있다。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의 성과적 진행 여부는 민청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향상에 많이 달려 있다。때문에 우리는 행정에서 진행하는 기술 전습회에 민청원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기술 전습회의 강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부단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특히 로동자들의 창의 고안 사업을 계통적으로 발전시키며 선진 기술과 새로운 작업 방법을 부단히 도입하여 높은 생산 능률을 보장함에 유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는 발명 및 합리화 끄미씨야、기술 연구 끄미씨야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행정에 제기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민청이 정기적으로 조직하는 기술 강연회는 민청원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기술 전습회에서는 창의 고안으로 제기된 실제적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민청원들의 기술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이 진행된지 불과 二개월이 지났으나 우리는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보게 되였다。현재 민청원들이 제기한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제안은 二〇〇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생산에 도입된 건수는 七七건이다。그리하여 로력과 원료 자재를 절약한 것만도 一一五만여원에 달하고 있다。그중 대표적인 것을 례로 든다면 용광로 직장 민청 청년 브리가다 반장 로 동길이 창안한 『스갚 자동 장치』는 과거 七〇%밖에 내지 못하든 기계 가동률을 九八%로 높였으며 전기 수리 직장 민청원 장 남수가 창안한 『변압기유 류동식 건조 방법』은 一개월에 "로가지" 一、二三〇매를 절약하며 三〇〇%의 작업 능률을 내여 국가에 매달 五만 六천원의 리익을 주고 있다。이 외에도 용광로 직장 최 병선、세탄 직장 한 국준의 『침천판 배출 곡꾸』 창안 등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 투쟁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신입 로동 청년들이 전개한 페품 수집 운동도 역시 二월말에 이르러 볼트、낫트、철제품、기계 부속품 등을 회수하여 국가에 二三만 五천여원의 리익을 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군중적인 지지를 민속히 조직하고 있다。공장 신문 "선철"에는『연만섭 동무가 창안한 선반 三본 작구에 四각 물체를 물리는 작업 방법』과 주물 직장 리 금자、세탄 직장 리 옥분의 창의 고안들이 게재되였다。한편 제철소 민청은 직업 동맹과 행정에 제기하여 창의 고안자들에게 물질적 보장을 옳게 조직함으로써 그들의 연구와 열성을 제고시키고 있다。공장 행정으로부터 창의 고안자들에게 수여된 상금이 二월에만도 二만 四천여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민청원들의 열성과 창의 창발성을 더욱 고무하며 그들의 애국적 발기를 계속 발전시키여 우리 제철소에 부과된 三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불러 일으킬 정치—조직 사업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지금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은 우리 공장내에서 뿐만 아니라 성진 제강소、청진 제강소 등 다른 공장 기업소에도 파급되고 있다。

민청원들은 도급제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함흥 제사 공장 민청 위원회
위원장 리 병남

사회주의적 임금 제도의 우월성은 한 방면으로는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시키며 다른 방면으로는 로동자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도급제는 사회주의적 임금 제도의 한 형태로써 그것은 투하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앙양시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큰 자극을 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및 개인적 리해 관계를 가장 철저하게 결합시키는 임금 제도이다。

도급제에 참가하는 로동자들의 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국가에 주는 리익은 막대한 것이다。

우리 공장 민청 위원회는 一九五五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도급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데 적지않은 주목을 돌리여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다。현재 우리 공장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九〇%가 개인 도급제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四〇%에 불과하였다。

그의 중요한 원인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도급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낮은데 원인이 있었다。공장 민청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도급제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한 첫 사업으로써 도급제의 우월성과 그의 의의를 해석 침투시켰다。

우선 공장 민청 위원회는 도급제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주기위하여『도급제란 무엇이며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이에 참가할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연 선전 사업을 조직하였다。

강연 선전 사업과 함께 직관물 선전을 효과 있게 조직하였다。벽보『번개』는 도급제에 참가한 우수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생활을 보도하였다。특히 로력 영웅 김 정숙 동무와의 경쟁자인 한 정여 동무가 도급제에 참가하기전과 이후의 생활 수준을 대비하여 쓴 기사『옳은 생각』은 공장 로동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한 정여 동무를 비롯한 우수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생산 경험은 경험 교환회、좌담회를 통해서도 광범히 선전 보급되였다。

그리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중에서 도급제에 참가할 대상의 거의 전부가 도급제에 참가하게 되였다。공장 민청 위원회는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로동의 량과 질에 적응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행정을 적극 방조하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도급 단가 및 계산법"을 해석 침투시키는 한편 행정에 제기하여 "도급단가 규정 및 계산법"을 작성하여 매 공정별로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도급

책임량 실행 정형을 매일 "로동 수첩"에 기록해 두었다가 一○일에 한번씩 생산 실적 대장과 대조하는 제도를 세우도록 행정에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한 결과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정확한 도급제 임금을 받게 되였다.

다음으로 공장 민청 위원회는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목을 돌리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우선 불합리하게 조직되였던 기술 전습회를 행정 기술 협의회에 제기하여 기능 급수별로 하되 교대별로 조직하도록 하고 이에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책임적으로 참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젊은 기사 기수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고치의 구성 성분" "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등 제목으로 기술 강연도 정상적으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사 작업에서 새로운 기술적 혁신으로 되는 로력 영웅 김 정숙 동무의 립조식 작업 방법을 적극 지지 보급시켰다.

젊은 기사 심 복실, 전 창해는 공장 민청의 위임에 의하여 김 정숙 동무의 작업 방법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여 각 민청 청년 브리가다와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도입시키기에 노력하였다.

그들은 현지 생산 지도를 통하여 선진 기술을 전습시켰으며 한편 브리가다별로 되는 기술 강좌도 조직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공장 민청 위원회는 작년도에 二五○명의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하였으며 一○○여명의 기능공들의 기능 급수를 각각 한급씩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기술 기능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려는 군중적 기세가 앙양되였다. 결과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지난 一二월중 도급 책임량을 一三五%로 초과 완수하였다.

그러나 실수률은 생산 실적에 비하여 낮은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례를 들면 박 재기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 도급제에 참가한 한 명숙, 리 락관 동무들은 지난 一二월중 도급 책임량은 一二六·二%로 초과 실행하였으나 실수률과 품질은 국가 지표에 비하여 ○·五%나 저하시켰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공장적으로 락후한 박 재기 민청 청년 브리가다 사업을 집중 지도하였다. 여기에서 공장 민청은 품질과 실수률이 제고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작업 규률이 해이하며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으며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없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공장 민청 위원회는 품질과 실수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주의를 돌리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당 및 행정과의 협의 밑에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제품 전람회를 二회에 걸쳐 조직하였다. 전람회에 출품된 로력 영웅 김 정숙 동무가 생산한 생사는 도급제에 참가한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대책과 함께 공장 민청 위원회는 작업에서 지나친 조급성과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표준 조작법을 위반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군중적인 비판을 강화하며 특히는 작업 규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매개 브리가다들에서는 작업 규률을 강화하고 표준 조작법을 위반하는 무규률적 현상들을 반대하는 군중적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박 재기 민청 청년 브리가다에서는 작업 규률을 강화하고 민청원마다가 검사원이 되여 하루 작업이 끝나면 그날 작업에 대한 작업 총화와 함께 제품의 호상 검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브리가다의 한 명숙, 리 락관외 도급제에 참가한 一五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종전에 비하여 一—二등품 비률을 二六%나 더 제고시켰으며 실수률은 八·五%를 더 제고시켜

국가에 막다한 리익을 주었다. 이와 같이 도급제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보람찬 로동은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의 물질 생활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오늘 도급제에 참가한 우리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수입은 달마다 높아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 결혼한 조사공 최 갑순은 보람찬 로동의 댓가인 도급 임금을 받아 가정 생활을 더 풍부히 더 문화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바 그는 다섯달 동안에 저금해 두었던 돈 五、一○○원으로 새끼 돼지 한마리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는 다림을 비롯하여 가정 생활에 필요한 가구들을 장만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동무들은 임금을 정확히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랑비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공장 민청 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도 사업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리 공장 민청 위원회는 一九五五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하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발성을 높이기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잔재이다



1. 심심한데 화토 노리나 할가.
2. 이번에는 담배 내기를 하자.
3. 그것도 슴슴한데 돈내기를 하는게 어떻니
   응—좋다.

지방 신문들에서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농경지 복구 및 보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공화국 각지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경지 복구 및 보호 사업에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황해남도 연안군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지난 二월 二三일부터 三〇여년간이나 묵어오던 배수끈벌의 황무지 개간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공사에는 군내 一四개리에서 三천여명의 청년들이 자진 참가하였다. 그중에서 七〇〇명 이상이 동원된 봉덕리 민청원들은 개간 작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첫날에는 네사람이 한조가 되여 두사람은 흙을 나르고 두사람은 흙을 파주었는데 더욱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두조를 합쳐 세사람이 흙을 파주고 네사람이 흙을 날랐다. 그것을 또 다시 三인 한조로 개편하고 一조에서 두개의 흙나르개를 사용하면서 호상 교대로 첫번 패가 돌아오면 둘째패가 또 떠나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루에 一인당 二一二·二립방메터의 흙을 파냈다.

이런 창발적 작업 방법은 각 작업반에도 널리 보급 적용되였다. 개간 작업의 능률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매일 평균 二、五〇〇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로력으로써 五만평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수만석의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벽성군 벽성읍 취야벌은 해마다 수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왔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몸소 겪은 이곳 민청원들은 지난 二월 二六일 읍 민청 전원 총회에서 룡호 남창 제방 공사와 내동 소 저수지 복구 사업에 연 一一、七〇〇여명이 동원되여 三월 一五일까지 완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읍 민청은 작업 조건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토지 복구 작업반을 편성하였다. 반과 반, 개인과 개인 사이에는 경쟁이 체결되였다. 김 한주가 일하는 작업반은 매일 계획량을 一八〇%로 초과 실행하였으며 김 순덕의 작업 반원들은 一三五%로 자기의 계획을 초과 완수하였다. 공사는 계획대로 一七일 동안에 결쳐 넓이 三〇메터, 길이 四〇〇메터나 되는 제방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리하여 六만평의 경지 면적을 더욱 확장하게 되였다. (『황남일보』 三월 九일부)

평안북도 의주군 상단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그들의 창발적 발기로써 국가 계획에 예견되지는 않았으나 三〇〇메터의 제방 수축 공사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五、〇〇〇립방메터의 흙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一〇여개의 작업반을 조직하고 경쟁을 체결하였다.

한편 선동원들을 통하여 공사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이 공사를 완료하는 날에는 가을에 가서 벼 二一〇톤 이상이 생산되며 이는 발 곡식보다 九〇톤이나 더 많은 수확이라는 것을 선전 해석함으로써 그들을 작업에 더욱 고무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三〇〇메터에 달하는 제방에 五、〇〇〇립방메터의 흙을 쌓아 올리여 제방 수축 공사를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평북일보』 三월 四일부)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에 궐기한 민청원들!

민청 중앙 상무 위원회는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자급 비료 증산 경쟁 운동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농업성과 공동적으로 조직 전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지금 공화국 각지 농촌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이 결정을 받들고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치렬한 경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평안북도 운전군 일신리 一八〇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월현리 민청원들과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경쟁을 체결하였다. 지난 三월 二一일 현재의 실적은 일신리 청년들이 앞서고 있다. 그들은 지난 二월 一七일부터 三월 二一일까지의 사이에 二천톤의 자급 비료(객토를 포함)를 생산하였다. 일신리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경쟁 대상자인 월현리 청년들도 일신리 청년들에게 못지 않게 투쟁하고 있다.

함경북도 명천군내 민청원들은 린근에 있는 화대군 민청원들이 보내온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자급 비료 증산에서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들은 三월 一〇일 현재로 동기 자급 비료 생산 목표 一、九四三톤을 二、四七八톤으로 초과 생산하였다.

조국의 산야를 푸른 락원으로!

금년에 민청 중앙 위원회는 一억 九천 五백여만본의 춘기 식수 과제를 내세웠다. 공화국 각지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산야로 나아가 민청 청년 식수 브리가다를 조직하고 나무 심기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리내 민청원들은 지난 三월 二일에 一五〇명이 동원되여 三월 一〇일까지 一〇만본의 나무를 심었으며 강동군 명의리 청년들은 三월 一五일까지 一〇만 二천본의 식수를 끝냈다. 온천군 금성리 민청원들은 五개 경쟁반을 조직하고 지난 三월 三일부터 호상 식수 경쟁을 전개하여 매일 자기의 식수 계획을 一五〇%로 초과하였다. (『평남일보』 三월 一七일부)

강원도 철원군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三월 七일부터 삽목 조림에 착수하였는바 지난 三월 一〇일까지 五〇정보의 면적에 뽀뿌라, 황철나무 등 三〇만본을 심었다. 또한 이 기간에 이깔나무는 九만본을 심었다. 군내 청년들의 모범적 활동에 고무되여 군내 인민들도 식수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바 그들은 三월 말 전으로 식수를 끝마칠 계획 밑에 눈부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강북일보』 三월 一三일부)

함경남도 단천군 룡연리는 해풍을 심하게 받는 곳인바 이 마을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방풍림을 조성할 것을 한결같이 결의하고 지난 三월 一〇일부터 一五일까지 기간에 一八만본의 나무를 심었다.

민청원들은 반간첩 투쟁의 초소에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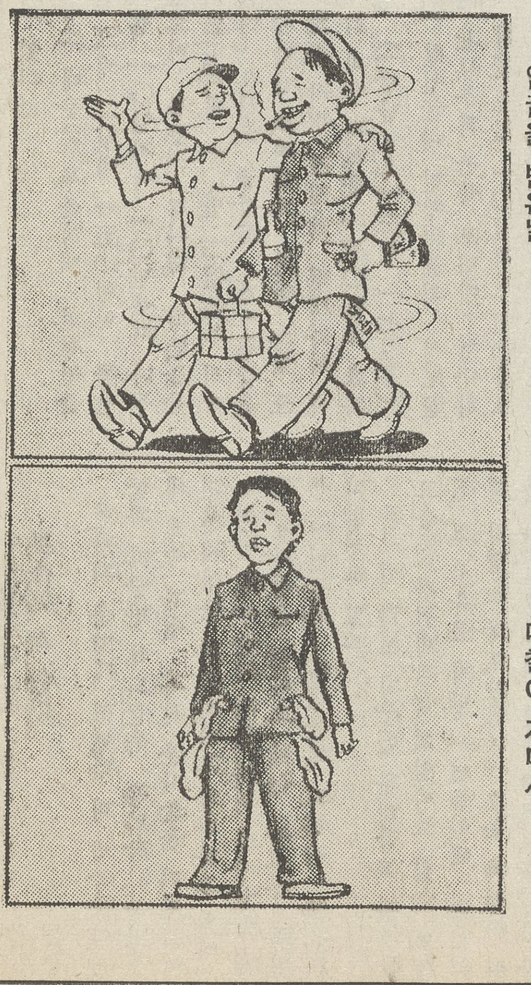
멸망의 운명에 직면한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계속 간첩 파괴 분자들을 파견하여 건설 사업을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의 간첩 파괴 분자들은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에 의하여 모조리 적발되고 있다.

분계선 린접 지구인 황해북도 장풍군 고읍리 자위대장을 책임지고 있는 민청원 조 성옥은 지난 一년동안에 六명의 적 간첩을 체포하였다. 그는 지난해 여름 자위대원들과 함께 우리 후방에 잠입하여 군사 비밀을 탐정해 가지고 넘어 가려던 소년 간첩을 체포하였으며 그 후에도 一七세난 간첩을 체포하였다. 지난해 가을이였다. 이 마을 천교동 외따로 떨어진 집에 수상한 자가 잠복했다는 정보를 수집한 조 성옥은 녀성 민청원이며 자위대원인 리 삼령, 정 정삼, 김 정애들을 그 집으로 파견하였다. 그들은 놀려온 것 같이 하면서 그에게서 여러가지 수상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옷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세수를 못해 지저분했다. 수상한 그놈은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다 북반부에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였다。그리하여 자위대원들은 그놈을 분주소에 인도하였다。 분주소에서 심문한 결과 그는 남반부에서 파견된 적 간첩이였다。지난 二월 四일에도 조 성옥은 자위대내 민청원들과 함께 철도 일꾼으로 가장한 간첩 두놈을 체포하였다。(『황북일보』二월 一五일부)

판문군 평화리 자위대원 김 현일은 지난 二월 二八일 마을의 자위 사업을 위한 경비 초소에 서 있었다。아침 동이틀 무렵 중국 인민 지원군복을 입은 젊은 사람이 초소 앞을 향하여 걸어왔다。그는 두리번 거리면서 당황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이곳 지대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대개 알고 있는 김 현일은 수상한자의 행동에 대하여 더욱 의심을 품게 되였다。수상한자가 초소막 앞까지 왔을때 그는 숲 속에서 뛰여나와『어데로 가십니까』하고 물었다。수상한 그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였으나 조그마한 궤짝 두개를 천천히 내려 놓으면서『분주소가 어데입니까?』하고 조선 말을 하였다。김 현일은 더욱 수상하여 그자를 분주소에 유도하여 체포케 하였다。심문한 바에 의하면 그 놈은 지원군으로 가장한 김모라는 적 간첩이였다。

강원도 김화군 제一중학교 二학년생인 엄 증룡 민청원은 적 간첩을 자위 대원들이 체포케 하였다。그는 지난 一월 초순 어느날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던 도중 산 길에서 내려오는『인민군대』一명을 만나게 되였다。『인민군대』는 학생을 귀여운듯 달래며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였다。엄 증룡은 그의 여러가지 믿을 수 없는 태도와 수상한 모습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였다。그는『항상 원쑤에 대한 경각성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상기하였다。얼마쯤 같이 걸어 가다가 엄 증룡은 좋은 기회를 리용하여 재빨리 근처의 부락 자위대에게 이 사실을 련락하여 체포하였다。엄 증룡이가 수상하게 본 그는 과연 원쑤들이 파견한 흉악한 간첩이였다。(『강북일보』二월 一六일부)


임금을 받은날
며칠이 지나서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전 병 철

위대한 쏘베트 군대에 의한 八·一五 해방 이후 공화국 북반부에 로동당의 지도하에 진정한 인민 정권이 수립된 사실은 우리 나라 교육 제도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였다。

해방 직후 벌써 공화국 북반부에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노예 교육의 잔재를 숙청하고、인민들의 교육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며、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제반 대책이 수립되였으며、인민적 민주 교육 제도가 확립되였다。이리하여 조선 인민 앞에는 처음으로 학문에 대한 광활한 길이 열렸으며 누구나 다 교육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였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도발한 전쟁은 북반부 교육 시설에 대한 전대 미문의 파괴와 청년 후대들에 대한 류례없는 고통과 불행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당과 정부의 심심한 배려와 시책은 전후 시기에 들어와서 인민교육 사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하였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되였던 각급 학교들은 일찌기 우리 나라에 있어 보지 못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고층 건물로써 복구 신설 확장되고 있으며、학생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상적인 학습에 돌아갔다。

국가는 우수한 민족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전후에 벌써 종전에 있던 전체 대학을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 대학、송도 정치 경제 대학、인민 경제 대학을 신설하였으며、생산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야간 및 통신 교육 기관을 더욱 확장하며、또한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 더욱 많은 류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대학、전문 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무의무탁한 학생들은 장학금의 八〇%를 더 받고 있는바 남반부에서 온 학생들은 당과 정부로부터 특별히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오늘 북반부 학생들은 쏘련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에서 달성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최신 과학의 성과와、우수한 민족 문화의 전통을 학습하고 있으며、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받고 있으며、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온갖 열성을 다하여 공부하고 있다。

금번 소집된 최고 인민 회의 제九차 회의에서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간부의 대량적 양성과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 준비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실로 공화국의 인민 민주 제도는 우리 나라 학생 청년들의 온갖 재능의 발휘 및 개화의 기초로 된다。오늘 북반부 청년들 앞에는 자기의 모든 재능과 력량을 발휘할 온갖 조건이 구비되여 있으며 그들은 가장 행복한 세대에 살고 있으며 학원은 학생 청년들의 락원이며 과학 문학 발전의 요람지이다。

그러나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고

있으며 리승만 괴뢰 도당의 팟쇼적 통치제도가 수립된 공화국 남반부에는 극악한 반동적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가 수립되고 미래 조국의 주인공으로 되여야 할 젊은 세대들은 죽엄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

八·一五 해방 이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를 청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가장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부패한 미국식 양식을 가미하였다。 실로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교육 정책의 본질은 근로 인민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온갖 가능성을 박탈하고 인민들을 무지몽매화하며, 청소년들에게 반동적 침략 사상을 주입함으로써 그들을 침략 전쟁의 값싼 대포밥으로 만들며, 인민들에게 온갖 부패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함으로써 조선 인민을 자기들의 무기력한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데 있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형무소와 교회당은 늘어 갔으나 학교 교육 시설은 확장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혹심하게 파괴 페쇄되였다。 특히 전후에 있어서 남조선 학교 교육 사업의 파괴와 혼란은 더욱 혹심하다。

인민들의 계몽과 교화에는 털끝만치도 관심이 없이 오직 착취만을 일삼는 리승만 역도들의 교육 사업에 대한 방임 상태는 그들의 망국 예산에서 표현되고 있는바 一九五四 회계년도에 소위 『문교부』 예산은 괴뢰 정부 총 세출의 五%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전쟁 예산의 무제한한 증대와 함께 『북진』 발광증에 걸린 리승만 역도들의 망국 정책의 가장 뚜렷한 표시로 된다。 이리하여 학교 시설은 복구될 대신에 더욱 혹심한 파괴를 당하고 있는바 그들 자신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국민 학교에서만 수만개의 교실이 부족하며 서울시에만 하늘을 지붕삼아 야외에서 공부하는 국민 학교 교실이 七백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미군의 강탈 파괴가 혹심하며 서울시에서만 一, 〇〇〇개의 교실이 소위 『유·엔군』에 의하여 점령당한 것을 비롯하여 남반부 각처에서 학교 시설은 미군과 괴뢰군에게 점령되여 병사, 창고, 무도장, 병원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학생들은 배움터를 빼끼우고 방황하며, 一九五四년 입학기에만 六一만명의 학령 아동들이 취학 못한채 내버려졌으며, 수一〇만명의 전재 고아들이 페허 우에서 헤매고 있다。

리승만 역도들은 자신들이 조성한 혹심한 학교 시설의 부족과 살인적인 입학난을 기회로 하여 학원을 일대 모리장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빈궁과 기아에서 헤매는 인민들과 학생들에게서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강탈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一九五四년 봄에는 소위 『교육 재건』 이라는 요란스러운 간판밑에 八六억환이란 거액을 인민들로부터 수탈할 계획을 수립하고 『신영비』(新營費) 라는 명목으로 매개 신입생들에게서 七천—一만환을 징수하였다。 이외에도 신입생들은 『당국』이 인정하는 것만 하여도 『입학금』『수업료』『사친회 입회비』『사친회비』『호국단비』『실습비』 등과 또한 학교 관리자들이 제멋대로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실로 중학, 고등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一五—二〇만환의 거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九五四년에 중학생 매인당 一개월 비용은 一三, 〇〇〇환이며 一九五五년에는 배액으로 폭등될 것이라고 서울시 교육 『당국』은 발표하였다。

남조선 로동자들의 임금이 월 평균 一, 五〇〇환 정도이라는 것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의 처지를 고려할 때 이 각종 징수금은 실로 살인적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근로 인민들의 자제들이 전문 대학을 감히 바라볼 수 있으랴!

이리하여 근로 인민들의 자제들은 배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해방후 一〇년이 되는 오늘에도 남반부에는 놈들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一七〇만명 이상의 문맹자들이 있다。

남반부 학생들의 비참한 처지는 놈들의 출판물들도 음페하지 못하고 있는바 학생들과 부모들이 절망과 고통끝에 자살하는 사건을 빈번히 보도하고 있다。 열마전에 『한국일보』는 서울시내 한 국민 학교에서 『사친회비』를 내지 않는다 하여 살을 어이는 추운날 어린 아이들을 어두운 창고에 밤새 감금하여 한 아이를 얼어 죽게한 몸서리치는 사실을 전하였다。

오늘 남반부에는 막대한 수의 『고학생』들이 있는바 그들은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며 『학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피까지 팔고 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 작년 九월 악독한 흡혈 기관인 『국립 중앙 혈액 은행』에 피를 판매한 자들중 九〇%가 학생들이며 그들의 수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배움의 가능성은 오직 인민의 흉악한 원쑤인 리승만 역도들의 자제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의 죄악적 본질은 그들의 학교 교육의 내용에서 가장 명백히 표시되고 있다。 남조선의 학교 교육의 내용은 반동적인 꼬쓰모뽈리찌즘과 전쟁 선동으로 일관되여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각성을 억제하며 조선 인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와 식민지 노예화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세계 제패를 위한 자기들의 사상적 무기인 꼬쓰모뽈리찌즘을 설교하면서 조선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를 말살하고 있다。 그들은 온갖 허위적 수단으로 타락한 아메리카 문화의 『우월성』과 아메리카 인종의 『선택된 절대적 지배권』을 찬미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의 『락후』와 『렬등』을 『론증』하기 위하여 장구한 세기에 걸친 조선 인민의 우수한 문화 예술 활동의 결정인 고귀한 문화적 유물을 무참히 파괴 략탈하고 있다。 얼마전에 리승만 역도들은 소위 『문화재 해외 전시법』을 조작하여 가지고 고귀한 문화 유물들을 미국 모리 간상배들에게 팔아 사복을 채운후 그 진상을 음페하기 위하여 유물을 보존하였던 부산 거리에 불을 질러 놓고 마치도 유물이 불타버린 것처럼 떠벌렸다。 또한 조선 인민의 고유한 민족어와 문자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소위 『한글 간소화 안』을 조작하여 인민들 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인민들의 민족적 의식을 말살하며 『민족적 긍지의 포기』를 강요하는 동시에 학원을 청소년들에게 악명높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연단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사회의 온갖 도덕적 부패와 추악상은 학교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바 그것들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무서운 타락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범람하는 모든 출판물들은 그의 명색과 대상 여하를 불문하고 추악한 『미국식 생활양식』과 살인 강도 폭행등을 찬미하며 영화와 연극등은 모두 비관, 타락, 색정, 부패, 절망, 죽엄에 대한 찬사에 충만되여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정 동명의 시 『양갈보』 모윤숙의 시 『유혹』과 정비석의 소설 『자유 부인』 연극 『밤마다 꿈마다』 영화 『혈투』 『녹크할 필요없다』 등과 같은 변태적 성욕과 부패한 생활 관념을 찬미하며 인간의 동물적 본능을 구가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걸작품』으로 류행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침략 전쟁을 도발하며 청년 학생들을 대포밥으로 내몰기 위하여 학원을 전쟁 선동장으로 전변시키고 있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와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국에 대한 온갖 중상과 악선전을 진행하면서 공공연히 『반 공산주의 전쟁』을 떠들며 『원자 실력전』을 호소한다。 이리하여 이미 파산 당한지 오랜 『말사스론』과 인간 증오 사상, 약육 강식의 『법칙』 등은 그들에게 가장 유력한 『무기』로 되고 있으며 인간 도살과, 『미국의 세계 지배』와, 『공산주의 위협』을 설교하는 『리

론가』들과 원자 광인들은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저서』들은 남반부의 대학 및 기타 학교들에서 교과서로 강요되고 있다。

그리하여 현대 제국주의의 가장 도전적인 이데올로그인 미국의 악질적인 반동『철학가』죤·듀이와 같은 자가 고명한 교육『리론가』로『신봉』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리승만 역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침략을 획책하면서 『전쟁은 자유와 단결의 참뜻을 알고저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고귀한 피를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묘사하며、 천진 란만한 학생들에게 강제로 『북진 통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며 매일 『북진』의 맹세를 외우게 하고 있다。

리승만 역도들은 학생들의 날로 비등하는 반항과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온갖 간교한 기만적 술책을 다하여 자기들이 『통치』하는 남조선을 『자유 세계』로 미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각종 출판물을 통하여 소위 『유지』(有志) 『고관』 『재산가』(財産家)들의 『자선심』과 『덕망』에 관하여 떠들므로써 학생들의 분노와 반항심을 마비시키며 소위 『위인』들의 전기(傳記)를 통하여、 그들이 모두 학생 시절에 빈궁과 천대 속에서 살았다고 허위 묘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적 생활고(苦)와 『운명』에 만족하도록 기만하고 있다。 또한 리승만 역도들은 학생들의 정치적 의식의 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반동적이며 허위적인 소위 『학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떠들면서 정치 생활에 대한 불간섭을 표방하고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주의를 저주와 죄악과 모순에 찬 현실 생활로부터 리탈시킬 목적으로 작문과 도화 등의 작품에서 사회 생활에 관한 제목을 선택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 기간 리승만 역도들이 표창한 수다한 소위 『입상 작품』(入賞作品)가운데 사회 생활을 묘사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인간 생활과 무관계하게 자연을 묘사한 것인데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반부에서는 각종 미신이 조장되고 있는바 그것들은 모두 『신』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리용하여 청년 학생들을 온순한 노예로 만드는 무기로 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의 략탈 정책으로 인한 극도의 생활난과 반동적 식민지 노예 교육과 사회의 혼란과 부패화는 남반부의 청년 학생들을 무서운 범죄와 죽엄의 구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의 축소한 보도에 의하더라도 一九五四년 一월부터 六월까지 법정에 압송된 청소년 학생들의 범죄 건수가 무려 四、六四二건에 달하였는바 이는 실로 一일 평균 二五명이상의 청소년들이 무서운 범죄를 감행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또한 남조선 괴뢰『치안국』의 발표에 의하면 一九五四년 七월 二〇일부터 八월 一五일까지 학생들의 『법』위반 사건은 무려 二、七四〇명에 달하였는바 그중에는 녀학생이 九二八명이나 된다。 작년 五월 부산『소년원』에는 수용 인원중 국민 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九〇%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남조선 괴뢰 당국과 반동 출판물이 보도하는 바에만 의하여도 학생들의 살인、강도、부화、타락、풍기 물란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실로 이것은 흉악한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조성한 민족적 불행이며 비극이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의 학생 청년들의 고통과 불행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남반부의 학교들은 문자 그대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값싼 대포밥을 조달하는 련병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새 전쟁 도발에 미쳐 날뛰면서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무기와 탄약을 대량적으로 반입하는 동시에 괴뢰군의 급속한 증강을 위하여 소위 『국민 개병』의 구호 밑에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정전 후 대학과 중학、고등 학교

에 더욱 대량적으로 『배속장교』와 『조교관』을 배치하며、 각종 무기까지 공급하고、소위 『기합』을 넣는다는 구실 하에 야만적인 구타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괴뢰 당국은 『훈련에 락후한 자는 징소집 연기를 취소하고 즉시 소집한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반항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만적으로 설정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징소집 연기』는 사실상 철폐된지 오래다。 이미 一九五三년 一一월에 三、六〇〇여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간부 후보생』으로 강제 편입되였으며、 一九五四년 七월에는 『집단입대 군사 훈련 방책』을 채택하고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강제로 광주 『보병 학교』에 수용하고 七〇일간의 집단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一九五五년도에는 다시 三월에 대학을 졸업할 학생들에게 一四주간의 장기 집단 군사 훈련을 실시한 다음、 모조리 현역 또는 예비역 『사관』으로 편입시킬 것을 선포하였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학생 교원들에 대한 강제 징모、 강제 군사 훈련 실시와 함께 대량적으로 학교를 폐쇄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대학 설치 기준안』에 위반된다는 리유로 사립 학교를 강제 폐쇄함으로써 학생들의 비등하는 애국적 기세를 억제하며 그들을 더욱 몽매화하고 대대적으로 전쟁 대포밥으로 내몰며 자기들의 학교 시설에 대한 강탈 파괴 등을 음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금년 一월상순과 하순에만 하여도 서울 시내에서 二四개의 사립 교육 기관들이 폐쇄 당하였다。 또한 놈들은 학원의 군사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학도 호국단』『소년 경찰대』『소년 수양단』『반공 십자군』 등의 테로 단체를 조직하고 학원을 경찰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것이 대체로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의 교육 정책의 본질이며 학교 교육의 내용이며 진상이다。 놈들은 조국의 미래를 우려하며 청년 학생들의 장래를 위하여 싸우는 모든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교원들 및 학원의 자유와 교육의 권리를 요구하는 일체 학생들을 학살 투옥、축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반부의 학생 청년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식민지 노예 교육과 학원의 모리화 및 군사화를 반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남반부 학생 청년들의 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최고 인민 회의 제八차 회의 호소문과 전국 중학、전문、대학 학생 대회 호소문이 나온 후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남반부 학생 청년들은 최근 괴뢰군에의 강제 징모를 반대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바 리승만 괴뢰 정부『국방부 장관』손 원일은 지난 三월 말부터 四월 五일까지 사이에 결쳐 진행된 금년도 남조선 각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강제 징모가 학생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실패하였다고 성명하였다。 남조선 통신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소집령장』을 받은 대학 졸업생들의 八〇%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늘 남반부 학생 청년들의 강제 징병을 반대하는 투쟁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왜냐 하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없이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통치 제도를 타도함이 없이는 자기들의 여하한 권리와 요구도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남반부 학생 청년들은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반부 학생들은 암흑과 죽엄의 남조선과는 달리 저마다 배움의 권리를 가지고 광명하고 행복으로 충만된 미래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세계—공화국 북반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과학과 진리를 목마르게 찾고 있는 자기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북반부의 민주 학원을 무한히 동경하고 있다。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여하한 흉책과 만행과 발악도 남반부 학생들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불타는 념원과 억센 투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

공업은 인민 경제중에서 주도적 부문이다

공업은 인민 경제의 토대이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 있어서 공업은 첫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어째서 인민 경제 중에서 공업이 주도적 역할을 놀게 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 기인된다.

즉 공업, 농업, 운수업, 상업 등 부문은 비록 호상 련계되고 호상 의존하고 있지만 근본적 의미에서 말하면 농업, 상업 등의 발전이 공업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의 발전이 농업, 운수업, 상업 등의 발전을 결정하는 것이다.

례를 들면 공업이 먼저 발전되여 농업 생산을 위하여 농업 기계, 비료 등을 충분히 생산하여야만 기술이 락후하고 분산적인 농업으로부터 선진적인 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농업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 공업의 강대한 원조 하에서만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운수업은 주로 공업과 농업(먼저 공업 생산을 위해) 생산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 경제 부문이다. 공업 생산의 발전이 운수량의 확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운수업은 단독으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운수업의 발전 여부는 공업이 운수업을 위하여 각종(레르, 기관차, 차량, 자동차, 기선, 비행기 등) 운수 도구를 생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렸으며 공업이 운수업을 위하여 충분한 연료와 전력을 공급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렸다.

끝으로 상업의 발전에 관해서 말하더라도 공업과 농업(특히 공업)이 대량의 상품을 생산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렸다.

그러므로 공업의 발전은 전체 인민 경제 발전의 토대로 된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우리는 공업 발전에 첫차례의 주목을 돌리며 각종 방법으로 공업 건설이 신속히 성공하도록 촉진시켜야 한다.

공업에는 어떤 부문이 있는가?

공업은 여러가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야금 공업, 연료와 동력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목재 공업, 건축 재료 공업 및 소비품 제조 공업 등이다.

야금 공업—주로 흑색 야금 공업(즉 강철 공업)과 유색 야금 공업(동, 연,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금속을 생산하는 공업)이 포함된다.

연료와 동력 공업—주로 석유 공업, 석탄 공업, 까스 공업, (천연 까스, 석유 분산 까스 및 혈암으로 제조하는 까스를 생산한다) 및 전력 공업,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을 포함)이 포함된다.

기계 제작 공업—공작 기계 제작 공업, 동력 기계 공업, 전기 기계 제작 공업, 중기계 제작 공업, 기관차 제작 공업, 조선(造船) 공업, 자동차 및 뜨락또르 제조 공업, 비행기 제조 공업, 검사 측정 도구 제조 공업 등이 포함된다.

화학 공업—류산, 알카리, 광물질 비료, 합성 고무, 인조 알콜, 염료, 콕스, 부산품 등을 제조하는 공업이 포함된다.

목재 공업—벌목 펄프 제조, 목재 화학 공업 등이 포함된다.

건축 재료 공업—쎄멘트, 벽돌, 유리 생산 등 공업이 포함된다.

소비품 제조 공업—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등이 포함된다.

야금 공업, 연료와 동력 공업, 화학 공업, 목재 공업, 건축 재료 공업 등은 중공업에 속하고 소비품 제조 공업은 경공업에 속한다.

공업에 포함되는 부문은 매우 많으며 또한 생산 기술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부단히 새로운 공업 부문이 출현되는 것이다.

공업 건설의 목적은 이 모든 공업 생산 부문을 계획성 있게 건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이 모든 부문을 질서 있게 건립하며 그들을 강대하게 발전시켜야만 우리 나라가 강대한 공업국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공업 부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중공업이며 중공업 중에서도 다음의 공업 부문들이 특히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업—중공업 중에서도 기계 제작 공업은 주도적 역할을 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바로 생산 도구 즉 기계가 생산력 발전의 수준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공업이 발전되였다면 그 나라에 정밀하고 우수한 각종 기계로 장비된 선진적 공업, 농업 및 운수업이 있게 될 것이며 사람의 힘을 많이 들이는 수공업 대신에 모든 부문의 기계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전기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생산 및 기타 경제 부문의 점차적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계의 수량 및 그의 질은 직접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한다. 동시에 기계 공업은 각종 군수품과 무기를 제조하므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쓰딸린은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의 심장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의 발전을 공업 발전의 기본 고리로 보시였다.

기계 제작 공업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공업 건설중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야금 공업—기계 기구 및 병기, 무기는 금속으로 제조한다. 각종 성능의 선철과 강철은 대다수의 기계를 제조하는 중요한 재료이다. 각종 유색 금속은 기계 제작 공업 중에서 역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강철은 중요한 건축 재료이다. 건물, 철도, 교량 등을 건축하는데 많은 강철이 요구된다. 만약 야금 공업의 강유력한 발전이 없다면 공업, 운수업 혹은 농업을 막론하고 그 자체의 견고한 기초에 대하여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쓰딸린은 야금 공업의 발전은 『전체 공업 일반과 인민 경제 일반의 장성의 기초이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강대한 야금 공업 특히 강철 공업을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연료 동력 공업—연료와 전력은 기계의 량식이다. 모든 사람들이 량식이 있어야 로동할수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기계들은 연료와 전력 공급이 있어야 움직이게 된다. 석탄이 없다면 증기 기계는 죽은 물건으로 될것이고 내연기의 발동에는 석유 혹은 기타 연료가 있어야 한다. 전기 공업의 발전은 더우기 인민 경제 각부문의 생산을 신속히 증대시킬 수 있고 기술을 신속히 개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연료, 전력은 기계, 강철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민 경제 부문의 재생산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으로 된다. 이밖에 콕스도 야금 공업의 중요한 원료이다. 동시에 연료 혹은 전력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연료와 동력 공업은 공업중

에서 언제나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연료와 동력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 나라 공업 건설의 중심 과업의 하나이다.

기계 제작 공업, 야금 공업, 연료와 동력 공업은 모두 중공업의 주요한 부문이다. 이밖에 화학 공업, 목재 공업, 건축 재료 공업 등도 역시 매우 중요한 중공업 부문이다. 그 중에서 화학 공업은 많은 종류의 중요한 공업 원료와 광물질 비료를 생산하며 동시에 그는 국가를 보위함에 필요하다. 목재 공업, 건축 재료 공업은 더우기 기본 건설에 필수적인 부문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여야 할 것은 경공업 부문에서 중요한 소비품 제조 공업이다. 그의 임무는 수량적으로 많고 품질이 좋은 일용품(면직, 견직, 모직, 의류, 피혁 제품과 각종 식료품, 종이 문방구 등)을 제조하여 인민들의 생활 수요를 직접 만족시키는 것이다.

소비품 제조 공업 부문은 그 생산을 위하여 날로 정밀한 기계와 날로 증가되는 연료와 동력을 공급하여 주는 생산 수단 제조 공업 부문에 의지하여서만 발전할 수 있으므로 어느 때를 물론하고 확대 재생산 중에 있어서 선차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생산 수단의 생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품 제조 공업의 발전을 우리가 홀시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의 생산 목적은 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 목적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산은 무의미한 것으로 된다.

오늘날 우리들이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다른 일면으로는 바로 소비품 제조 공업의 발전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은 인민들의 부유하고도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며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비품 제조 공업에 대하여 반드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며 중공업을 발전시키는 기초 우에서 이에 소비품 제조 공업을 상응적으로 발전시켜 소비품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어떠한 공업 부문이든지 인민 경제 발전 중에서 자기의 특수적인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들은 공업의 각부문은 호상 밀접히 련계되여 통일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일체 공업 부문은 반드시 기계 공업, 야금 공업, 연료와 동력 공업에 의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허다한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해낸(그중 일부분은 농산품) 많은 원료와 보조 재료 그리고 시험 연구에 필요한 기재와 화학 원료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어느 공업 부문에서든지 사업이 잘 되지 못하여 국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곧 기타 공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전체 공업 생산과 전반적인 인민 경제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농산물의 비배 관리



과학원 농학 연구소

기사 김 동 현

一、비배 관리

아무리 우량 종자를 골라 선진적인 방법으로 파종하였다 할지라도 비배 관리를 옳게 하지 못한다면 다수확을 거둘 수 없다. 때문에 파종 후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농작물에 대한 관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1、씨 솎음

씨 솎음을 잘 함으로써 매개 작물들이 영양 면적을 고루 차지하여 잘 자라도록 하며 필요 없는 개체들이 많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소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씨 솎음의 방법은 굳어진 땅 표면을 부드럽게 해 주는 쇄토 작업과·함께 실시하는데 조에 있어서는 립종 후 一四일 쯤 지나서 본엽이 二—三매 생겼을 때 첫 씨 솎음을 하고 뒤이어 두번—세번에 걸쳐 씨를 솎아 주어야 한다. 수수는 립종 후 二〇—二五일 지나서 본엽이 三—四매 나온 후 제一회 씨 솎음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전체 二—三회 솎음을 실시할 것이다. 옥수수는 립종 후 二〇일 경과하여 본엽이 三—四매 되였을 때 첫 씨 솎음을 실시하고 그후 다시 한번 씨솎음을 해 주어야 한다.

콩은 립종 후 一五—二〇일을 지나 본엽이 二매 생겼을 때 첫 씨 솎음을 하는 것이 적당한 바 전체 二회 씨솎음을 실시하여야 한다. 면화는 립종 후 三〇일 쯤 경과하여 본엽이 三매되였을 때 一회 씨 솎음을 해줄 것이며 전체 三회의 씨 솎음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씨 솎음은 적당한 시기를 놓쳐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작물 생육에 지장이 많으며 따라서 수확의 감소률도 많아진다.

2、중경 제초 및 배토

중경 제초 및 배토 작업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중경 제초는 잡초를 없이 하며 토양에서의 수분 증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작물 뿌리에 공기가 잘 류통하여 뿌리가 튼튼하게 뻗으며 밭이랑의 물이 잘 뽑히기 때문에 과습에서 오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수분이 지나치게 많을 때에는 뿌리가 썩는다) 중경 제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재래의 방법 보다 회수를 많이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즉 논에는 이앙후 一〇일 건너씩 제초를 四회 실시할 것이며 밭에 있어서는 발아한 후 一〇—一五일 건너 四회 실시하되 축력 제초기나 개량 호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많다. 중경의 깊이는 五—七센치로 하되 가물 때에는 이 보다 좀 얕게 할 것이다. 배토를 하는 리유는 작물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랑의 배수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곁 가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며 무, 마령서, 고구마 등 지하 부분을 수확하는 작물에 있어서는 밑이 잘 들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배토 작업을 잘 하면 병해충이 토양 중에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시비

우리가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해마다 같은 곳에서 곡초와 량곡을 수확하기 때문에 비료 양분이 량곡과 곡초로 변한 만큼 그 이상의 양분을 반드시 논、밭에 보충해 주어야 한다. 비료에는 화학 비료와 자급 비료가 있다. 화학 비료는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덧거름으로 주는 것이 좋은데 벼에 있어서는 이앙 一〇일후와 유수가 형성되기 一〇일전에 추비를 주고 옥수수는 개교리가 나오기 一〇일전부터 이삭이 형성될 때까지 二회에 걸쳐 덧 거름을 주되 류안은 논에, 질안은 밭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퇴비를 해마다 많이 주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토와 점토질의 좋지 못한 토질들을 개량

하며 농작물의 뿌리가 잘 뻗게 한다。

ㄱ、유기 광물질 비료

퇴비 三·五톤에 소석회 三〇키로그람과 린산석 三〇〇키로그람을 잘 섞어서 사용하는데 이 분량은 一정보당의 분량인바 보통 퇴비 三〇—四〇톤을 준 것과 같은 효력을 나타낸다。

ㄴ、립상 과석

퇴비를 부드럽게 채에 쳐서 과석 一에 六—八의 비례로 섞고 (밀 거름으로 줄때)손으로 꽉 쥐여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배지 않을 정도로 물을 쳐서 잘 혼합한 다음 이것을 양철로 만든 통에 넣고 一분간 五〇회의 속도로 五—六분은 바른편으로、다음 五—六분은 왼편으로 돌리면 통안의 비료는 알맹이로 된다。

4、인공 보충 수정

자연 조건으로 인한 여러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작물의 수정 작용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빈 알들이 많이 생겨 수확을 감소시킨다。

빈 알을 없이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수정을 도와 주는 것을 인공 보충 수정이라고 한다。

ㄱ、옥수수의 인공 보충 수정

아침 이슬이 진 후부터 시작하여 더워 질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좋다。먼저 수정 용기에다 숫꽃의 가루를 二五—三〇대에서 털어 모은 다음 이랑 사이로 다니면서 이삭의 수염에다 화분을 털어 주면 된다。

ㄴ、모밀、기장의 인공 보충 수정

꽃이 만발하였을 때 아침에 실시한다。二〇—三〇센찌 넓이로 얽은 그물을 새끼에 달고 발이랑 량쪽에 두사람이 서서 한끝씩 잡고 앞으로 끌고 가면서 이삭을 흔들어서 화분을 날리여 준다。

ㄷ、호박、오이、수박의 인공 보충 수정

호박이나 오이、특히 수박은 헛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지 않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 숫꽃의 화분을 부드러운 붓끝이나 솜에 묻쳐 암꽃의 주두에 발라 주거나 숫꽃의 웅예(꽃속)를 따서 암꽃의 주두에다 직접 문질러 주면 이러한 헛꽃을 없이 할수 있다。

그런데 숫꽃의 화분을 다른 덩굴에서 취하면 더욱 좋다。

5、병충해의 방제

보통 병이나 벌레에 의한 피해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실지는 벌레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해마다 一〇—二〇%의 감수를 가져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발생케 되는 원인과 해충의 경과 습성들을 잘 파악한 후 제때에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ㄱ、벼 도열병

도열병의 병균은 종자、사람、농기구 등에 붙어서 전염하거나 공기전염을 한다。잎이나、마디、이삭、벼 알 등에 발생하는데 이병에 걸리면 앞에는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바 이 반점이 길죽하게 점점 커지면서 반점의 중심부는 회색 빛을 띠게 된다。병이 심해지면 이삭이 못나오거나 혹은 나왔다 하더라도 희게 말라서 구불어지고 만다。

이 병을 방제하기 위하여서는 종자를 호르마린으로 소독할 것과 병에 걸린 포기를 전부 뽑아서 태워 버릴 것이다。

또한 이 병이 류행할 때에는 〇·六%의 과석회 보루도—액을 정당 一、五〇〇—二、〇〇〇릿틀을 씩 二—四회에 걸쳐 산포하는 것이 좋다。

ㄴ、묘판 부패병

이 병은 묘판 물의 온도가 낮을 때에 많이 생긴다。방제법은 수묘판에 방풍 장치를 하고 물은 따뜻한 낮에만 대여 줄 것이며 찬물은 직접 대지 말고 물 웅덩이를 만들어 햇볕에 물을 덥혀서 대도록 할 것이다。동시에 부패병이 생겼을 때에는 六두식 보루도—액을 묘판 一평당 〇·五—〇·七릿틀을 뿌려 주면 된다。

6、벼 대충(명충) 및 엽 잠 충 방제

어린 벌레에는 류산 니꼬찐 八〇〇배 액을 평당 〇·六—〇·七릿틀을 분무할 것이며 五%데·데·떼나 一—二% 겍사 호로란 가루를 정당 二〇—三〇키로그람을 산분하면 된다。또한 전해에 발생하였던 논에는 봄에 一개월 이상 벼그루가 보이지 않도록 물을 대여 벌레를 죽일 것이다。

7、늦 벌레 방제

어린 벌레들이 집단 생활을 할때 五%데·데·떼 가루의 三% 혼택액이나 一—二% 겍사호로란의 二% 혼택액을 정당 五〇〇—一、五〇〇릿틀을 분무할 것이며 또한 五% 데·데·떼 가루나 一—二%

겍사 호로란 가루를 정당 二〇—三〇키로그람을 산분하면 된다。

벌레가 컸을 때에는 미끼로 대두박 一〇키로그람당 五%데·데·떼 一키로를 섞어서 정당 六〇—七〇키로를 뿌릴 것이다。

8、면화、소채 진두물 방제

진두물이 배추에 생겼을 때에는 물 一릿틀에 류산 니꼬찐 一그람、비누 四그람의 비례로 녹여 정당 一、〇〇〇릿틀을 뿌릴 것이며、면화 오이에는 류산 니꼬찐의 약물을 만들어 정당 一、五〇〇—三、〇〇〇릿틀을 뿌리면 된다。

그리고 담배 가루를 물 一릿틀에 八〇그람의 비례로 二—三일 동안 우려 비누 四그람을 넣어서 녹인 후 정당 一、五〇〇—三、〇〇〇릿틀을 뿌리는 것이 좋다。그런데 진두물은 잎의 뒷면에 붙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뿌릴 때 이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9、청벌레 방제

무、배추、양배추 등에 많은 피해를 주는 청벌레는 흰나비의 유충이다。

이 벌레는 一년에 四회나 나타나기 때문에 봄 가을 소채에 계속적으로 해를 준다。방제법으로서는 五% 데·데·떼 혼택액을 정당 五〇〇—一、〇〇〇릿틀을 산포할 것과 五% 데·데·떼 분말을 정보당 二〇—三〇키로를 뿌리면 된다。그리고 비산 석회 〇·三%(三三〇배액)액을 정당 五〇〇—一、〇〇〇릿틀을 분무하던가 또는 가루로 一五—二〇키로를 뿌릴 것이다。

10、록병

이 병은 밀、보리、귀밀 등에 생기는데 공기 전염을 하며 五—六월 경에 많이 발생한다。이 병에 걸린 밀、보리의 잎이나 줄거리에는 노란 빛(누른 록병)붉은 빛 혹은 갈색(붉은 록병)의 반점이 생기고 시일이 지나면 그 부분의 껍찌가 터져서 가루가 난다。병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삭은 나오지만 결실이 충실치 못하며 심한 경우에는 빈 이삭이 나오고 만다。방제 법으로서는 반드시 야로비 짜찌야로 과종할 것이며 가을 밀에는 린산 가리 성분이 많은 비료를 주어야 한다。그리고 록병이 류행할 때에는 〇·五도액의 류황 합제를 뿌려줄 것이다。

11、로균병

로균병은 주로 오이에 발생한다。전염하는 경로는 토양 전염과 공기 전염을 하는데 이른 봄에 많이 발생한다。

병의 징상은 오이 잎의 엽맥을 따라서 모가나는 불규칙한 반점들이 생기고 나종에는 잎과 줄거리가 희게 마르는 것이 로균병이다。방제 대책으로서는 같은 밭에 오이를 계속하여 심지 말것과 병에 걸린 줄거리는 모아서 태워 버릴 것이다。만일 로균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四두식 석회 보루도 액을 정당 五〇〇—一、〇〇〇릿틀을 분무하면 된다。

이상 지적한 것은 많은 병충해 방제법중 직접적인 방법들만을 기록한데 불과하다。병충해와의 투쟁에 있어서 항상 주의하여야 할 것은 어떤 작물이나를 물론하고 그 지방에 따라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여 심을 것과 같은 밭에 계속하여 같은 작물을 재배하지 말고 해마다 그루를 바꿀 것이며 병이 발생하였던 밭의 짚 부수러기 같은 것을 모주리 태워 버릴 것이다。

二、농약에 대하여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들을 농약이라고 한다。농약은 국영 상점이나 소비조합에서 사서 그대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다시 조제하여 써야 할 것도 있다。때문에 우에서 말한 약제들의 조제 법들을 다음에 소개한다。

1、석회 류황 합제

원료로 생석회 六〇〇그람、류황 一、二〇〇그람、물 一〇릿틀을 준비한 다음 음식을 끓이지 않는 솥에다 적은 량의 물은 약간 데워서 생석회를 소화시키고 류황을 따로 물을 조금씩 치면서 잘 갠 다음 물로 풀어서 생석회 물에다 점차적으로 주입한다。류황을 다 넣고 나서는 물을 정량으로 붓고 끓이는데 물을 다 붓고는 반드시 물 우를 표시하여 두었다가 끓일 때 수분이 증발하는 만큼씩 물을 보충하되 조제가 끝나기 一五분 전까지 보충해야 한다。조제액을 약 五〇—七〇분간 끓이면 약액은 투명한 적갈색을 띠게 된다。약액이 적갈색을 띠지 않고 푸른 빛을 띠게 되면 그것은 불량품이며 작물에 약해를 준다。그러므로 조제가 끝나면 앉굼을 잘 깔아앉힌 다음 밀봉해서 저장한다。그런데 원료의 량을 규정대로 하였다 할지라도 원료의 질이나 조제상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류황 합제의 농도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비중계로 약액의 비중을 측정해 두는 것이 좋다。보통 이와 같이 만든 약액은 보—메 二〇—三三도의 농도를

가지는데 二七도 이상이면 된다。

이 약액을 사용할 때에는 규정된 량의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려는데 례를 들어서 보―메 二五도의 원액을 가지고 ○·五도 액을 만들자면 원액 三·五릿틀을 물 九六·五릿틀에 풀면 된다。

보―메 비중계를 사용할때 비중계의 표시도가 곧 그액의 비중의 도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환산을 하여야 한다。즉 보―메 二五도라면 비중계의 실지 표시도는 一、二○八이고 二四도일때의 표시도는 一、一九八이며 二三도일 때는 一、一八八이다。

2、四두식 보루도액

원료로 류산동 四五○그람、생석회 四五○그람、물 四두를 준비한다。먼저 류산동을 적은 그릇에 담아 약간 따뜻한 물로 푼다。또는 다른 작은 그릇에다 생석회를 담고 약간씩 물을 부으면서 소화시킨 후 두말들이 나무통 두개에다 각각 물 두말씩을 담고 한통에는 생석회를、다른 통에는 류산동을 풀어 잘 혼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너말들이 통이나 독에 두 약액을 동시에 주입하면서 잘 혼화시키면 된다。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너말들이 통에 물 두말에 푼 생석회수를 넣고 류산동 액을 이 통에 주입하면서 혼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 약제를 만듬에 있어서 류산동 액은 철물에 담으면 철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변질하기 때문에 조제에 사용하는 그릇은 나무로 만들 것이다。토기、자기 등을 사용도 좋지 않는바 약액을 혼화시킬 때에는 반드시 나무를 사용하여야 한다。또한 해가 너무 나려 쪼일 때나 바람이 강할 때、그리고 비가온 직후나 이슬이 많을 때에 보루도 액을 뿌리면 약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일기를 잘 선택하여 뿌려야 한다。석회 보루도 액을 조제함에 있어서 八두식 보루도 액은 우에서 말한 원료에 물 八두를、一○두식 보루도 액은 같은 원료에 물 一○두를 넣으면 된다。

3、류산 니꼬찐 一、○○○배액 조제법

원료로 류산 니꼬찐 한홉、비누 二二五―九○○그람、물 一○두를 준비한다。

적은 량의 따뜻한 물에 비누를 잘 풀어서 잔 재물이 없이 한다음 물 전량을 주가하여 다시 잘 풀고 류산 니꼬찐 원액을 주가하면서 혼화시킨다。

八○○배 액을 만들 때에는 우의 분량의 원료중 류산 니꼬찐만 一二五홉을 넣으면 된다。주의할 점은 원액을 저장할 때에는 반드시 밀봉하여야 하며 희석한 약액은 속히 사용할 것이다。

4、비산 석회 액 조제법

비산 석회 조제법은 간단한 바 비산석회 四五○―九○○그람、생석회 四五○그람、대두 전착제 一八七―三七五그람、물 一○두를 잘 혼화시켜서 사용하면 된다。

5、비산연 약액 조제법

원료로 비산연 四五○―六七五그람、생석회 四五○그람、대두 전착제 一、一二五그람―一、八七五그람、물 一○두를 준비한다음 먼저 생석회를 적은 량의 물에 소화시킨 후 물 전량에 용해시킨다。

비산연은 주머니에 넣어서 생석회 물에다 조금씩 풀어 넣은 다음 전착제를 가용한다。

6、농약 사용상 일반적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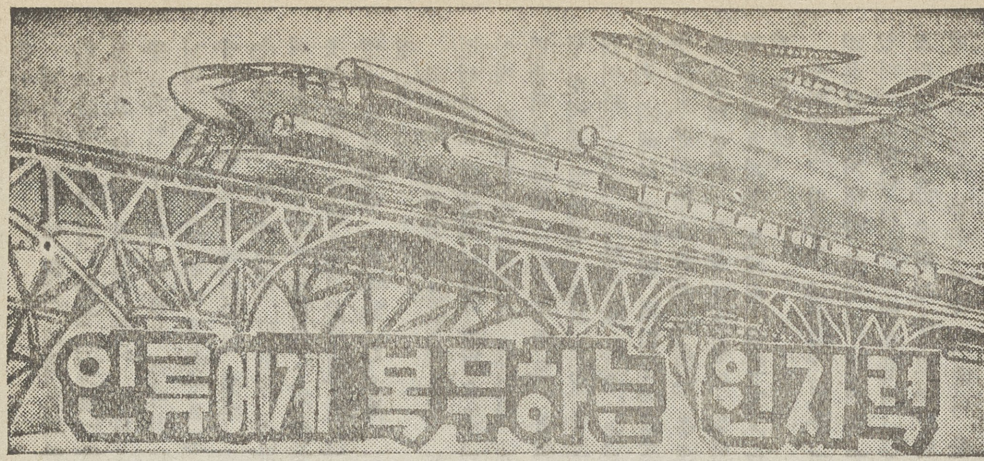
농약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사용하면 효과가 나지만 지나 치게 사용하면 도리여 약해를 입게 한다。

그러므로 약제의 분량 조제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또한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비교적 농도가 적은 것을 여러차례에 결쳐 산포하는 것이 효과가 더 많다。그런데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약을 사용할 때에는 해충이 성장하면 약해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번식 시초에 산포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다수확을 위하여 새로운 경종 방법들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항상 그 지대의 모든 자연적 특수성과 시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언한다。

석회 류황 합제 희석표

원액의 농도		보메 0.5도의 농도를 가진 희석액100릿터를 얻기 위하여		원액의 농도		보메 0.5도의 농도를 가진 희석액100릿터를 얻기 위하여	
보메의 표시도	비중계의 표시도	원액의 량 (릿터)	물의 량 (릿터)	보메의 표시도	비중계의 표시도	원액의 량 (릿터)	물의 량 (릿터)
25	1.208	1.66	98.34	19	1.150	2.29	97.71
24	1.198	1.74	98.26	18	1.141	2.44	97.56
23	1.188	1.83	98.17	17	1.132	2.51	97.49
22	1.172	1.93	98.07	16	1.124	2.73	97.27
21	1.169	2.04	97.96	15	1.115	2.93	97.07
20	1.162	2.16	97.84	14	1.106	3.24	96.76
				13	1.018	3.50	96.50



쏘련 기사 아·마르낀

一九二○년도에 전로 전기화 위원회 계획을 작성할때에 로씨야의 제일 오랜 동력 학자 그·므·끄르쥐쟈놉쓰끼는 선진적 학자들의 학설을 선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우리들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대 화학의 초보인 화학적 분자와 원자를 뒤이어 전기의 근본적 본질인 이온과 전자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방사능을 가진 물질면에서 찬란한 전도가 열리고 있다。화학은 전기에 대한 일반적 학설의 일부분으로 되고 있다。전기 공학은 우리를 원자 에네르기의 내부적 축적에로 접근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들은 이미 강력한 원자력을 리용하는 길에 들어섰다。과학은 희랍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떼우스 처럼 자연속에서 막대한 량의 에네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비밀을 쟁취하였다。

작년도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으로 수록되였다。즉 쏘베트 학자들과 기사들은 五천키로왓트의 위력을 가진 원자력에 의한 발전소를 설계하여 건설하는 사업을 성과 있게 수행하였다。이리하여 발전소는 린근 구역들의 공업과 농업 부문에 송전하였다。이는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에서의 현실적인 첫 걸음으로 되였다。뒤이어 그 다음 과업들이 제기되였다。이미 五―一○만키로왓트의 위력을 가진 원자력에·의한 발전소 건설 공사들이 진척되고 있으며 원자 화학의 성과들을 앞으로 실천적으로 리용할 데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여 가고 있다。최근 우리 나라에서의 발명은 이때까지 우리들이 어떤 물질 속에 내포되여 있는 수만의 에네르기 중에서 그 일부분만을 리용하였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그 몇가지의 실례를 들어 보자。

一그람의 석탄을 태웠을때 우리들은 八카로리에 해당하는 열 에네르기를 획득한다。그런데 역시 같은 량의 석탄에 의하여 발생된 원자내의 에네르기는 二七억만배나 더 많다。다만 한방울의 물안에는 거의 一五○만 키로왓트시의 원자 에네르기(전력으로 환산하여)가 포함되여 있다。이리하여 매 키로왓트시의 전력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二○명 이상의 한시간 작업을 대신하는 것이다。이 모든 것은 물론 다만 리론적 타산에 불과한 바 우리들은 아직 원자 에네르기를 실천적으로 광범하게 리용하도록 연구하지 못하였다。

쏘베트 과학은 산업、운수 및 농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원자내의 에네르기를 개조하는 합리적 방법들을 완강하게 탐구하고 있다。이리하여 지금에 와서는 건설 분야에서와 굴로 작업 분야에서 원자력에 의한 폭발법들을 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형태들을 명백히 나타낼 수 있게 되였다。물론 원자

력에 의한 폭발 작용의 힘은 비상히 큰 것이다。

평화적 건설에 원자 에네르기를 적용함으로써 자연의 많은 『결함』들을 시정하고 있다。실례를 들어 흔히 말하는 투르가이 수로의 파괴는 씨비리 강들이 남방 중아세아와 까자흐쓰딴으로 흐를 수 있는 수로를 열어주고 있다。이곳에는 햇빛에 탄 수억만 헥터의 사막이 놓여 있다。앞으로 쏘베트 기사들이 이곳에 물을 끌어오게 된다면 이 마른 땅들은 놀랠만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크나큰 제방들도 종합적으로 일시에 진행되는 대량적 폭발 방법으로 몇분동안에 건설할 수 있으며 완전한 산맥을 만들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유익한 광물 산지를 굉장히 깊이 파낼 수도 있을 것이다。우리 나라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지대의 거대한 예비들이 있다。그중 대부분의 령토들은 영원한 동토 지대로 되여 있다。이를 개조함에 있어서 원자 에네르기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원자력의 리용과 관련된 일부 기술적 리론들은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리론들이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례를 들면 사와라와 같은 사막 지대의 관개 계획、그리고 기타 지브랄따르 해협의 대규모적 수력 발전소 건설 계획、런던—파리—베를린—와르샤와—모쓰크바—북경간의 쾌속 전기 철도 시설 계획、베링그 해협의 제방 건설은 더욱 거대한 계획으로 되고 있다。이 건설은 자뽈랴리에 지대를 덥게 하기 위하여 태평양의 난류를 북빙양으로 흐르게 하는 시설과 련관되여 있다。이 놀랠만한 공학적 리론의 실현은 새로운 대륙을 개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 인민들의 부원을 비할 바 없이 증가시키는데 복무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인민 경제 부문에서 원자 안에 내포된 에네르기의 거대한 힘을 모두 폭발의 형태로 리용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때문에 지금 과학의 기본 과업은 원자핵 방사선들의 속도를 조종하며 그의 강도를 조절하는 데 있다。이런 방향에서 이미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은 원자핵 방사선이 고도의 열을 내면서 흐르고 있는 특별한 원자핵 보이라들에서 원자 에네르기를 획득하고 있다。이 열이 까스 또는 증기 타—빙에서는 기계 에네르기로 변화하며 다음 전기 발전기에서는 전기 에네르기로 변화한다。이때에『연료』량은 차량으로써가 아니라 그람으로 측정된다。

원자 에네르기가 전기 에네르기로 변화하는 다른 공식들도 있으나 우에서 지적된 방법들은 가장 현실적인 것들이다。

원자력에 의한 발전소들은 우리 나라 어느 곳에나 건설할 수 있다。그러나 주민들이 방사선 배출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전소들은 아마도 주민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하에 설치될 것이다。지금 원자 보이라들은 두터운 콩크리트 벽이나 또는 강철판으로 둘려 싸여져 있다。그리고 보이라의 운반과 조종은 완전히 자동화되여 있다。

『원자 연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거대한가? 실지에 있어서 그의 가능성은 무한하다。지금 우리들은 수소핵으로부터 저항력이 없는 우라늄、또륨、플루또니핵들을 구분하거나 또는 수소핵에 헤름핵을 화합하는 방법으로 원자 에네르기를 획득하지만 앞으로는 저항력이 있는 핵을 가진 대부분의 물질로부터 에네르기를 획득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오랜 항로에서는 연료의 예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바로 이는 현대적 비행、운수 및 항해 앞에 극복하기 어려운 장해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원자핵 연료의 리용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二〇%의 능률을 가진 발동기는 약 한그람의 원자핵 연

료(우라늄)만으로써 六、〇〇〇마력시를 낼 것이다。연료의 무게가 보잘 것 없이 적은 조건 하에서도 우리는 비상한 속도와 장거리 비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한시간에 천키로메터 이상의 속도로써 비행하는 큰 비행기들은 착륙함이 없이 지구를 돌게 될 것이다。큰 기선은 몇방울의 원자핵 연료를 가지고 대양들을 충분히 횡단하게 될 것이다。

원자 에네르기는 농업 부문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값싼 발전소는 메마르고 황폐된 땅에 생명수를 주며 관개 공사를 실시하는 모든 과업들을 해결하는데 방조할 것이다。원자 발동기에 의하여 농업 생산의 광범한 자동화와 전기화 문제도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실천적 사용이 아까데미끄 아·느·네스메야노브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전 시대에 걸친 계속적인 사업이며 에네르기의 낡은 생산 방법들이 원자 동력학과 공존할 것이며 그렇기때문에 기관차도 전기차와 같이 운행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지금 우리들은 다량의 석유、석탄、편암(片岩)을 요구하고 있다。앞으로 우리들은 이런 유익한 광물들을 화학 공업을 위한 원료로서 특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자 기술에 의하여 우리들은 화학자들의 숙망이였던 즉 지금 학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원소들의 호상 변화를 실현하는데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중세기에 련금술자들도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향하여 지향하였다는 것은 흥미 있는 사실이다。그들은 하등 금속을 귀금속으로 즉 수은을 금으로、보통 돌을 가치 있는 금속으로、일례로 석탄을 금강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적 돌』을 찾아내려고 하였다。수백년간 그들은 이 과업을 해결하는데 공연히 애를 썼던 것이다。그들의 노력은 우리 시대의 화학자들로 하여금 겸손한 웃음을 띄게 하고 있다。

그러나 一九二七년도에 학자들은 놀랠만한 새 소식을 들었다。즉 교수 미께는 수은에서 금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분석한 결과는 이것이 실지 순금이라는 것이 확증되였다。그러나 다만 이것이 수은에 내포되여 있었던 금일 뿐이다。五키로그람의 수은에서 약 一미리그람의 금을 얻었다。원소들의 변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비밀이 원자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원자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원자핵의 충전 및 전자량은 우리에게 화학 원소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있다。이리하여 만일 지금 산업이 一、五〇〇종의 원료를 리용한다면 앞으로 화학적 원소들을 개조하며 각종 새로운 화합 물질을 획득함으로써 생산은 비상히 확대될 것이다。새로운 원자 기술에 의하여 대 변혁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인민 경제 부문이란 없을 것이다。

쏘련에서의 원자 에네르기 생산은 주로 평화적 산업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쏘베트 인민들은 새 전쟁 방화자들의 온갖 흉책을 경각성 있게 주시하고 있다。원자탄이나 수소탄으로써는 인민들을 놀래우지 못할 것이다。우리 조국의 안전의 초소에 굳건히 선 쏘베트 무장력은 가장 새로운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온갖 강탈자들에게 파멸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여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있는 원자탄과 수소탄은 전쟁 방화에 복무하고 있으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무서운 무기가 평화 옹호의 효과 있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쏘베트 국가는 이 새로운 형태의 에네르기가 오직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평화적 목적에서만이 리용될 수 있도록 심심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원자 에네르기의 리용은 자연력에 대한 인간의 권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류앞에 생산력을 장성시키며 기술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동적 부원을 증가시킬 거대한 가능성들을 열어주고 있다。

『스메나』지 一九五五년 제一호에서

(김 경 식 역)



김책 공업 대학 광산 지질학부 부 학부장

한 관 빈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석탄을 잘 안다. 누구에게든지 석탄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는 불붙는 거문 돌 혹은 흙이라고 대답하며 만지기만 하면 거문 가루가 손에 묻는 것을 련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석탄을 알고 있다고 보면 큰 오해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 생활의 그 어느 부분을 불문하고 석탄이 리용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듯 석탄은 현대 사회 생활의 혈맥과 같은 역할을 놀고 있다. 레닌 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실로 『석탄은 공업의 진실한 식량이다』

기차나 기선을 타고 다녀본 사람들은 기관차나 기선에 석탄을 실은 것을 보았을 것이며 석탄을 연소하는 데서 에네르기를 얻어 기차나 기선들이 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금속 공장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보이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석탄을 가공하여 만든 콕스로써 광석이나 철을 녹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석탄을 연소하여 보이라의 물을 끓인다는 것을 안다. 많은 도시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석탄이 없으면 식사를 못하며 겨울에 추운 방에서 지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은 석탄의 용도를 잘 인식 못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오늘날 만년필을 쓰지 않고, 잉크를 쓰지 않고, 전화를 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은 극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만년필, 잉크, 잉크스탠드, 기타 많은 물품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물품들의 원료는 석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석탄의 력사

우리는 석탄에 대해서 리해할려면 석탄이 생긴 수억년전 시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긴 력사를 려행하여야 한다.

석탄은 지금으로부터 약 二억 五천만년 내지 三억년전에 땅 우에 번성하였던 식물들이 공기 없는 곳에서 부패되여 생겼다. 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지구상에 인간이 생긴 것은 약 九〇만년전이라고 하는데 석탄은 인간보다 약 三〇〇배나 더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간은 항상 지구상에서 생활하여 왔다면 석탄은 많은 지질 변동에 의하여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였으며 그곳에서 온갖 압력을 받으면서 늙어 왔다. 석탄이 늙어 가는 과정을 간단히 본다면 우선 고대 식물이 번성한 것이 공기중에서 부패되지 않고 물 속에서 부패되여 쌓여질때 토탄이 된다. 이러한 토탄은 식물과 비슷하게 무겁지 않고 자기 내부에 식물들의 자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안주, 정주 지방의 평야에서 이러한 토탄이 많이 채굴되고 있다. 토탄이 지질 변동의 결과 땅 속에 들어 갈때는 그의 부패 작용은 완전히 공기와 접촉 없이 진행되며 압력과 열 작용을 받으면서 진행되는바 이때 토탄은 점점 굳어져 가며 자체에 탄소를 더 풍부케 하여 갈탄이 된다. 이러한 갈탄은 함북, 평남, 기타 지방에 많이 존재하며 아오지, 고건원, 안주 등 기타 많은 탄광들에서 채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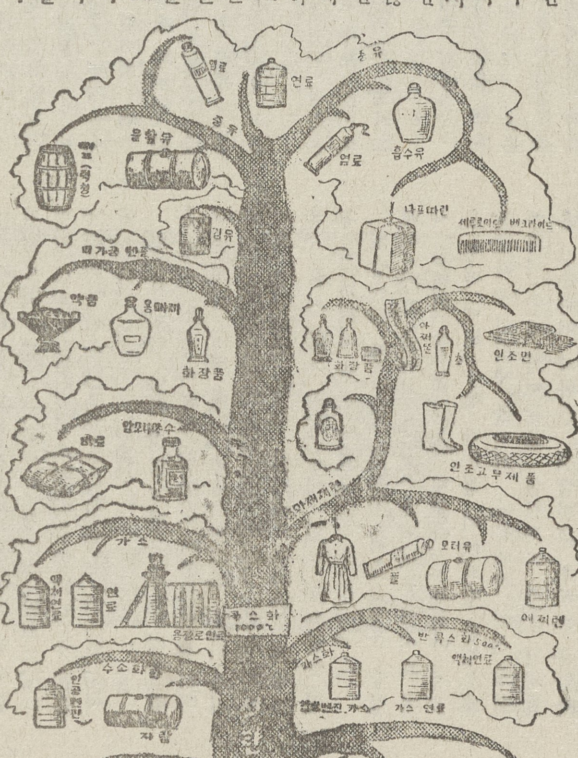
갈탄이 더 늙어지면 력청탄이 되며 력청탄이 더 늙어진 것이 무연탄이다. 무연탄은 갈탄이나 력청탄에 비하여 더 굳으며 탄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탄이 심한 지질 변동을 받아 이곳 저곳으로 밀려 다니는 과정

에서 부서져 분탄이 되고 마는 수가 있다. 이러한 무연탄은 우리 나라 평남도, 강원도 지방에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신창, 고원, 사동, 개천 등 기타 많은 탄광들에서 채굴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가지 석탄 종류를 알게 되였으며 그중 토탄이 가장 어린 것이고 무연탄이 가장 늙은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석탄의 형제중에서 무연탄이 가장 늙은 것은 아니다. 무연탄이 더 오랜 기간 지하에서 늙어 가는 과정에 그는 누구든지 잘 아는 연필 속을 만든다든가 전기용광로등의 전극 제작등에 많이 사용되는 흑연이 된다. 흑연은 대부분이 탄소이며 연소 할때에 많은 열 에네르기아를 발생하며 재는 극히 적게 남는다. 그러나 흑연도 가장 늙은 석탄은 아니다. 흑연은 또 심한 지질 변동에 의한 열 작용과 압력을 받으면서 늙는 과정에 다만 탄소만 구성되여 있는 굳고 아름다운 금강석으로 변한다. 금강석은 유리, 암석등 굳은 물체를 절단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석탄의 맏형인 만큼 특수한 온도와 조건에 있어서는 불이 붙으며 붙은 후에 재는 조금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석탄의 형제는 六형제로써 그의 맏형은 금강석이요, 제일 어린 동생은 토탄이다.

석탄은 탄소, 수분, 휘발분, 회분, 류황분, 기타로 구성되여 있다. 다음으로 석탄이 자하에 부존하는 각종 형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석탄은 주로 일정한 두터이를 가진 탄층으로써 지하 깊은 곳에 각종 경사 각도로 퍼져 있다. 석탄은 지구의 많은 부분에 분포되여 있으며 그의 전체 매장량은 대략 八만억톤에 달하고 있는 바 그의 일부는 우리 나라에 분포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매장량은 정확하게 알려져 계산된 것이 아니며 지질 탐사의 결과 그는 더 증가되여 가고 있다. 조선의 석탄 매장량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계산 통계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석탄을 위한 지질 탐사와 매장량 계산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풍부한 지하 자원 탐사, 그중 석탄의 탐사 사업을 위하여는 과학 기술로 무장된 지질 탐사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석탄의 용도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탄소는 석탄의 기본적인 구성 부분인 것이다. 모든 무기원소들은 상호 화합하여 대략 三, 〇〇〇개의 물체를 형성한다면 (물론 실험실에서는 三만개까지 만들 수 있다) 탄소로써는 一〇〇만 이상의 물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화학의 발전에 따라 이 숫자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다.

석탄으로서는 실로 우리가 놀랄만치 수많은 물품들을 만들 수 있으며 개중에는 이름 모를 것들도 많다. 그림에서 보다싶이 석탄 나무는 자기 기초를 지하 깊이에 뻗치고 있으며 매 가지에 각종 열매들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열매들이 석탄 나무에 생기는 열매 전체가 아니다. 현대 공업에서는 二〇〇여종에 달하는 공업품을 석탄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각종 기름, 인조고무 제품, 약품, 비료, 염료 등은 석탄을 원료로 대량 생산되고 있으며 석탄을 원료로 하는 각종 세루로이트, 에보나이트, 베크라이트 제품들은 각종 도구를 제작하며 기계의 치차까지 이런 물체들도 제작하여 내는 것이다.

만약 석탄이 없다면 사람들은 색갈 없는 의복을 입어야 할 것이며 모자, 양말, 구두, 고무신도 자기 형태를 변경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연필도 없고 잉크도 없고 만년필도 없게 될 것이며 기차도 기선도 움직이지 못하며 자동차에는 휀들이 없어지고 색도 없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석탄이 없으면 현대 공업도 있을 수 없으며 철도를 비롯한 각종 운수 기관이 정지되며 화학 공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에서 석탄 증산에 가장 큰 주의와 배려를 돌리고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탄광 로동자들의 우대와 석탄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실시하고 있다. 얼마전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탄부들을 우대할 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정령에는 탄부절을 설정하며 공훈 탄부 칭호 제정 및 탄광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한 모든 문제가 반영되고 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 공업의 발전은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석탄을 많이 채굴하면 할수록 나라는 급속도로 풍부하여지는 것이다.

석탄 채굴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석탄이 불붙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곧 그를 파서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석탄의 수요는 점점 증가되여 갔으며 채굴도 그에 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되여 왔으며 또 앞으로 더 많이 채굴될 것이다. 실례로서 一八九七년까지 세계 전체에서 채굴된 석탄량은 六억 三천 九백만톤에 달하였다면 一九一三년도에는 일년동안에 一一억 九천 五백만톤, 一九四〇년도에는 一五억톤을 채굴하였다. 현재는 매년 一五억톤 이상을 채굴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 나라에서도 채굴되는 것이다. 전후 三개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에는 一九五六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四〇〇만톤의 석탄 채굴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석탄은 곡괭이나 삽으로는 도저히 채굴할 수 없다. 오직 채굴의 모든 작업 공정을 기계화함으로써 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석탄 채굴 작업은 대부분이 지하에서 공기가 나쁘고, 조명이 나쁘고 작업 장소가 제한되여 있는 힘든 조건에서 진행되므로 우선적으로 기계화되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석탄은 주로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석탄을 채굴하기 위하여서는 지하 수백 메터, 수천 메터의 깊이까지 갱도(굴)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물론 지표에서 얼마되지 않는 깊이에 무존할 때에는 굴을 뚫지 않고 석탄 우에 있는 표토들을 전부 파 버리고 로천 채굴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꼭 우물 파듯이 적은 굴을 수집 메터 파고 들어가 석탄을 호미나 곡괭이로 파서 삼태기 같은데 담아 내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백 메터, 수천 메터를 기계화된 방법으로 굴진하고 지하에 들어가 그곳에서 역시 수천 메터의 수평 갱도들을 굴진하고 각종 기계들을 사용하여 석탄을 채굴하고 전차로 운반하며 권양기로 지표에 끌어 냄으로써 완전한 지하 공장을 형성하고 작업한다.

석탄을 채굴하려면 긴 거리의 암석 굴진을 하여야 하는데 현대 갱도 굴진에는 각종 착암기들이 사용되며 발파를 리용하고 적재 기계를 리용하여 파괴된 암석들을 광차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만약 옛날과 같이 손으로 정을 리용하여 발파공 一메터를 뚫기에 며칠씩 걸리는 수가 있었다면 오늘날 착암기로서는 몇분 동안에 뚫을 수 있다. 손으로 암석을 뜯어내면서 굴진하여 한달 동안에 六—七메터의 갱도 굴진을 한다면 기계화된 굴진 방법으로써 二〇〇—三〇〇메터를 한달 동안에 굴진할 수 있다. 온성 탄광 굴진공 리성로 동무는 三대공 발파법을 적용함으로써 한달 동안에 三〇〇메터의 갱도 굴진을 보장하였으며 안주 탄광 녀성 굴진공 우복순 동무는 一대공 발파로써 한 발파에 三·五—三·六메터의 거리를 굴진하였다. 이미 쏘련에서는 갱도 굴진에 착암기나 발파 방법도 적용하지 않고 완성된 종합 기계로써 암석을 깎아내면서 굴진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갱도는 쎄멘트, 벽돌, 혹은 나무 동발로써 보갱하며 철로를 시설하고 전차가 다니게 하며 갱도 전체에 전등 또는 네온 싸인등으로 조명을 하여 두므로 현대 기계화된 지하 탄광은 꼭 지하 궁전을 련상케 한다.

이렇게 굴진된 갱도를 따라가면 직접 석탄을 채굴하는 장소에 도달한다. 이 장소가 직접 우리의 보배인 석탄을 캐여 내는 채굴 막장이다. 과거에는 조그마한 굴을 탄층에 뚫어 나가면서 곡괭이와 삽으로 석탄을 한덩어리씩 뜯어 냈다면 오늘날에는 각종 채굴 기계들을 리용하여 석탄을 채굴한다. 오래전부터 쏘련에서는 석탄 채굴을 위한 종합 기계인 콤바인들이 작업하고 있으며 각종 절탄기들로 작업하고 있다. 콤바인으로 석탄을 채굴할때에는 탄층에서 석탄을 직접 채취하여 막장에 설치되여 있는 막장 콤베야(운반 기계)에 적재하는 일까지 이 기계로 한다. 이러한 기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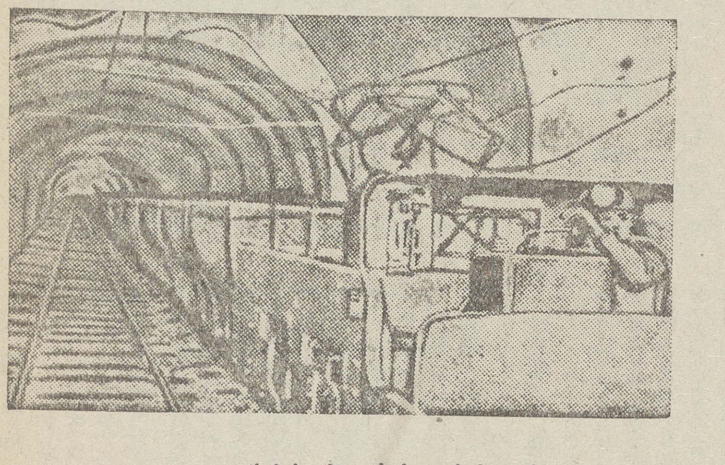
써 몇년전부터 쏘련 꾸즈바스 탄전의 콤바인 운전수인 공청원 뜨레페로브를 위시하여 탄전의 많은 동무들이 매달 二만 五천톤 이상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 채굴에 아무데나 이와 꼭 같은 콤바인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질 조건에 따라서 콤바인을 사용치 못하고 절탄기를 사용하고 발파 작업으로 석탄을 채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방법은 우리 나라 안주 탄광에서 적용되고 있다.

석탄의 무존 상태와 지질 상태에 따라 채굴 기술은 여러 가지로 각이하게 연구 적용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 밑에서 오랫 동안 신음하여 온 우리 나라·탄광들에서는 채굴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경우에 삽과 곡괭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무연 탄광에서 이러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 매 탄광에서는 자기 조건에 알맞는 선진 기술을 연구함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례로써 안주 탄광에서는 八〇메터의 긴 막장을 가진 장주식 채탄법(혼히 장벽식 채탄법이라고 말하고 있다)을 적용함에 성공하였으며 개천 탄광 와동갱에서의 무연탄 채굴에서도 선진 기술을 도입함에 노력한 결과 一九五四년 一〇월에 채탄공들의 평균 로동 생산성이 一七五%로 증가되였다. 특히 민청원 변 창문 동무는 한 교대에 五·五톤의 채탄 기준량을 一〇·七톤까지 초과 채굴한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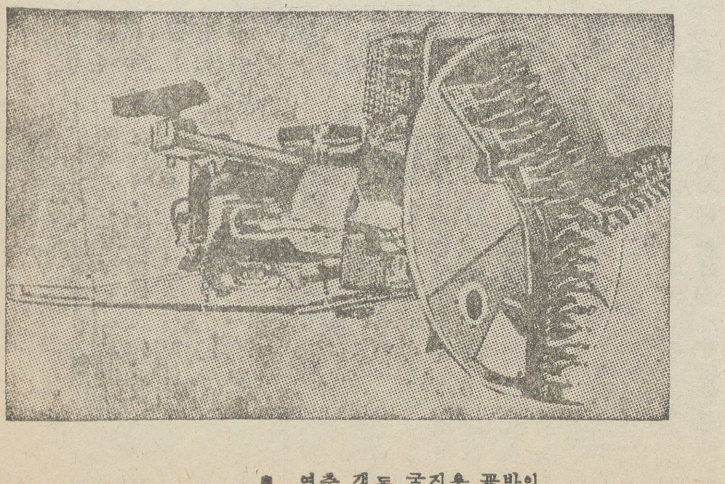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오늘날의 탄광은 기계화되여 가고 있으며 장래의 탄광 로동자는 기계 스위치를 누르는 기계 기술자로 변할 것이며 석탄은 지하 깊은데서부터 지표까지 기계의 힘으로 운반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오늘날 수력을 리용하여 석탄을 채굴하는 방법도 연구중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석탄의 지하 채굴과 동시에 로천 채굴도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대규모적인 굴착기, 기관차, 전차들로써 기계화되고 있다. 쏘련에서 적용되고 있는 굴착기 중에는 한번에 三五립방 메터의 흙을 파는 기계가 이동하면서 작업하고 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탄은 인간 생활의 보배이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석탄을 『흑금』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이 『흑금』 채굴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석탄을 귀중히 여겨야 하며 석탄 채굴 일꾼들은 자기 사업의 영예감을 가져야 한다. 석탄을 천대하는 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과 나라의 부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덩어리의 석탄이라도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석탄을 싣고 달리는 갱내 전차



• 연층 갱도 굴진용 콤바인

술어해설

선전 선동

선전은 어떠한 사상, 지식을 상세하고 깊은 고찰의 방법으로써 전파시킨다. 그리하여 어떤 사실의 필연성 필요성에 대하여 광범한 대중에게 해설하며 설득시킨다.

선동은 일정한 사상과 구호를 전파시키는 방법으로써 광범한 대중의 의식과 기분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활동이다.

선전이나 선동은 서로 공통적인 과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업의 수행 방법은 서로 다르다. 례를 들어 실업자 문제를 취급한다면 선전원은 자본주의적 경제 공황의 본질, 그의 불가피한 원인,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교체의 필연성 등을 제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선전원은 이 사상을 모두 련관시켜 대중에게 선전하여 리해시킨다. 그러나 선동원은 같은 실업자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특출한 사실, 례하면 실업자 가족이 굶어 죽은 사실, 그들의 파업 등을 들어서 청중에게 하나의 사상 즉 빈부의 차이,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의 사상을 주며 불만과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격분을 그들에게 일으키도록 한다.

콤뮤니께

콤뮤니께는 라전어 콤무니코(부도)로부터 나온 말이다. 오늘날 이 말은 주로 두가지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다.

1, 공식 보도

2,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 협상의 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보도, 성명,

이 경우에 콤뮤니께의 원문은 당사자들의 호상 합의에 근거해서 작성되여 채택된다. 이 경우에 의무에 관한 콤뮤니께는 국제 조약의 형식 중의 하나로 된다.

꼬미씨야

원어는 라전어 꼬미찌오(위임)에서 나온 말인데 오늘에 있어서는 흔히 일정한 과제의 수행, 어떠한 문제 해결의 계획, 준비를 위하여 상시적 또는 림시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협의회, 참의적 형식의 기관을 의미한다. 어떤 꼬미씨야는 국가 정권의 기능이 부여되는 것도 있는 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꼬미씨야는 국가 주권 기관 밑에서 보조적 기구로서 복무한다. 직맹 단체들에서의 각종 꼬미씨야도 역시 그 보조적 기구이다.

우차스똑크

공업 기업소에서 구조상 기본적인 생산 단위는 쩨호(직장)이다. 쩨호에는 기본적(생산적) 쩨호, 보조적 쩨호, 봉사적 쩨호 및 기타 쩨호들이 있다.

그런데 우차스똑크라 함은 이러한 쩨호(직장)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는 생산 단위이다. 례컨대 압연 쩨호내에 철판(鐵板) 우차스똑크, 조강(條鋼) 우차스똑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전에 직장(쩨호)내에 우차스똑크에 해당하는 생산 단위로서 계(係)라는 것을 설치한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동일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광산에 있어서는 채광 구역이 다른때마다 그 구역들을 우차스똑크 라고 부른다.

구매력

구매력이란 화폐로써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분량을 말한다.

로동자들의 주되는 수입 원천인 임금이 화폐 형태를 취하며 또한 그들의 생활에 요구되는 생활 필수품이 상품 형태를 취하는 이상, 그들의 소비를 특징짓는 주되는 지표인 구매 능력은 그들이 받는 화폐 임금의 수준, 물가 수준 및 세금 부담의 수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는 근로자들의 구매 능력은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 법칙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의 평균 수준의 저하 소비 자료의 실제 가격의 등귀, 세금 부담액의 제고 등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체의 생산이 자본가의 리윤 획득에 복종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리윤과 임금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서 있다. 자본가가 차지하는 부분인 리윤은 로동자가 받는 부분인 로임이 저락됨에 따라서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본가의 리윤이 저락된다. 리윤은 임금이 저락된 것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임금을 로동자들이 생리적 최소한까지 인하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인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구매 능력은 부단히 장성한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리윤과 임금의 상용적 적대성을 낳는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청산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립각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장성하며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분배 몫으로 되는 화폐 임금이 부단히 제고되며 또한 근로자들의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이 국가 정책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인하되며 그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액이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종합 브리가다 (종합 작업반)

생산 브리가다라는 것은 가장 숙련한 근로자인 브리가질(작업반장)의 지도 하에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직종 또는 린접 제 직공의 로동자 집단을 말한다. 그리하여 브리가다 구성에 있어서는 동종적 원칙과 종합적 원칙의 두개 원칙이 있는 바 동종적 원칙에 의한 브리가다 구성에 있어서는 동일 직종 로동자로 구성되는 브리가다가 구성되며 종합적 원칙에 의한 구성에서는 린접한 각개 직종 로동자들이 포괄되는(기술까지도 포함하는) 브리가다가 형성되므로 이러한 브리가다를 종합 브리가다라고 한다.

로력 기준량과 기술 기준량

로력 기준량—이는 로동에 대한 기준량이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소에서 설정되는 기본적 종류의 기준에는

(1) 로동에 대한 기준

(2) 설비 리용에 대한 기준

(3) 원료 자재, 연료 전력 리용 기준의 세가지가 있는 바 이것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로동에 대한 기준, 이에는

(ㄱ) 로동 시간 지출 기준(시간 기준)

(ㄴ) 단위 시간 당 생산물의 제출량 기준(작업 기준)

(ㄷ) 로동 시간의 표준적 분배 기준

(ㄹ) 도급제 로동자에 대한 로임 기준 등이 포함된다.

(2) 설비 리용 기준—이에는

(ㄱ) 기계 및 기구의 생산성 기준

(ㄴ) 기계 및 기구의 지출 기준

(ㄷ) 기계 및 기구의 리용 기준 등이 포함된다.

(3) 원료 기본 자재 및 보조 자재 연료 및 동력 리용 기준, 례하면 콕스 톤당 석탄 지출 기준—단위 생산물 당 전력 지출 기준, 선철 톤당 철광석 지출 기준 등

그리하여 기준의 수준과 그의 설정 방법은 계획 경제의 조건 하에서는 기준의 수준은 생산에서 기본적인 로동자 대중이 달성한 수준과 가장 훌륭한 생산 혁신자들이 달성한 수준 간에 놓이게 되는 루진적 기술적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기술 기준량—기술적 기준량이라는 것은 계산 분석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기술적 기준화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말한다.

기준 설정 방법에는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즉 (1) 경험 통계적 방법과 (2) 계산 분석적 방법이 있는 바 경험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설정할 시는 정량원은 자기의 경험을 리용하여 주관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거나 또는 지난 기간에 수행하여온 실제적 로동 시간 지출의 통계적 자료에 기초하여 제정하므로 결과적으로 기준은 조직적, 동원적 역할을 상실한 비과학적인 것으로 된다.

따라서 기술적 기준화의 기본 방법은 계산 분석적 방법이 되여야 한다. 계산 분석 방법의 기본은 로동 과정의 전면적 조사와 연구 실제적인 로동 시간 지출의 분석에 의한 기술적 기준의 작성 및 이 기준의 도입과 그에 기초한 로동생산 능률 제고의 방책 작성 등이다.

그리하여 로동 시간 지출의 연구 방법으로 로동일 측정, 시간 측정의 두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사회주의 하에서 기술적 기준은 로동 시간을 절약할 목적에서 설정되는 로동의 척도(尺度)이며 이것은 생산에서 광범한 로동자 대중을 로동 계급의 선진 분자의 주위에 조직하는 거대한 조정력으로 된다.

검 사 제

☆

4

로동신문출판인쇄소

휴식일의 레닌

이완 아라밀레브



1

밤 늦게 통지서가 왔다。이완 알라비예브를 구역 집행 위원회로 오라는 것이였다。그러나 무슨 일 때문인지 통지서에는 쩍여 있지 않았다。통신원이 돌아간 뒤 그의 안해는 놀랜 눈초리로 그를 쳐다 보며 물었다。「무슨 일일까? 이완?」

「무슨 일이든 간에 중대한 일에 틀림 없어、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사람을 보낼리 없어」

늙은 안내자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다。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그는 불을 켜고 반백이 된 수염을 빗기 시작했다。그의 안해는 침대에서 불안스럽게 잔기침을 했다。

석유의 질이 썩 좋은 것이 아니여서 등불은 불똥이 튀였다。이완은 등불의 심지를 낮추고 긴 의자에 누었다。그러나 그는 오래 잠들지 못하였다。

아침에 그는 제일 좋은 장화를 신고 옥양목 내의를 입은 다음 걸어서 거리로 나갔다。공기는 서늘하여 상쾌하였다。그는 성큼 성큼 걸었다。밭에서는 뫼추리가 우짖고 백화나무 숲사이를 갈가마귀가 푸두둑 거리며 날렸다。이완은 새들이 날르는 것을 보고 날짐승이 부러워 지는 것이였다。새를 뿔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것만 그들은 사시 장철 밥통이 가득차 있고 근심이라곤 없으니。누가 갑자기 부르는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쓴 웃음을 웃었다。

구역 집행 위원회 사무실에는 위원장을 만나려온 사람들이 숱해 뫼여 있었다。면 농촌에서 온 농민도 있었고 거리의 시민도 있었으며 교외의 소채 재배가도 있었고 정면에 붉은 별 모표가 붙은 끝이 뾰족한 철 투구를 쓴 붉은군대 제대병도 있었다。

이완 알라비예브는 비서의 책상 앞에 다아가서 지난 밤에 받은 통지서를 내뵈였다。비서 처녀는 한번 훌깃 그를 쳐다 보았다。

잠시후 위원장 실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늙은 안내자는 처녀 비서가 「알라비예브 동무 차례가 왔습니다」고 부르는 맑은 목소리를 꿈길처럼 들었다。

수염을 깨끗이 밀은 나이 듬직한 위원장은 이완에게 악수를 청하고 자리를 권하였다。이완은 안락 의자의 한구석에 앉았다。

「지금도 그저 사냥을 합니까?」

「더러하지요」이완은 대답했다。「그런데 이젠 늙어서 ― 무슨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다 ― 눈이 어두워지구 관절염이 심해져서 인젠 산에 가는 것도 단념해야 할 것 같소이다」

「흠 ― 날카로운 눈매로 늙은 안내자를 살피면서 위원장은 말했다 ― 아직도 그렇게 늙진 않으셨습니다。그래、내 보기엔 아직도 정정하신데요。실은 지금 어떤 분이 사냥하려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그래서 당신께 안내를 부탁하려 한 것입니다。그려니 래일은 아무데도 가지 않도록 하시지요。가장 훌륭한 사냥터를 그분께 가리

켜 드리도록 하십시요」

「아 그런일이야 할 수 있지요」그는 동의하였다。「그 손님이 어떤 분인가요」

「오시거든 보시구려」위원장은 미소를 지우면서 한 눈을 지긋이 감고 말했다。「마을에 가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비밀인가요?」

「비밀? 비밀은 아니지요。그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그 뿐이지요、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분을 보고싶어 할테니까요、그런데 그분에겐 휴식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알겠소이다」늙은 안내자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전화 종이 울었다。위원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이완은 속이 흐뭇해졌다。그는 이고장에서 이름을 날리던 그 전날을 회상했다。모든 지방 관리들이 사냥개 훈련을 그한테 부탁하였으며 그와 함께 사냥하려 갔던 것이다。사람들은 그의 사격이 정확하고 숲 속의 일을 손금처럼 알며 새와 짐승들의 습관을 꿰뚫고 있는데 감탄하는 것이였다。때로는 고관 대작들까지도 그를 청하는 일이 있었다。그들은 그를 천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품값이라곤 거의 주지 않었다。그러나 값진 총과 순혈종 사냥개를 다린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을 따라 사냥하는 것을 락으로 삼고 스스로 자기를 위로 하군 했던 것이다。이완을 없우히 여기는 입이 나쁘고 심술 궂은 이웃 사람인 니끼따 판끄브 조차도 이럴땐 이완을 부러워 했다。

허지만 어느때에는 현지사가 하찰 것 없는 일을 트집잡아 솔가지로 그의 면상을 후려 갈긴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관리는 심심풀이로 한 가론의 워드까를 단숨에 들이키라고 명령한 적도 있었다。그때 이완은 심장 마비로 거의 죽게 되였던 것이다。그러나 이런 일을 이웃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이야기 한 일이 없었다。이런 일이란 사냥 안내자들이 자랑할 일이 아니였던 것이다。

그러던중 전쟁이 일어나고 이어 혁명이 닥쳐왔다。화약도 탄알도 이제는 구할 수 없게 되였다。그래서 이완 알라비예브는 사냥 세월도 다 지나고 다시는 아무 사람도 그를 찾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는 흐뭇하게 기뻐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위원장은 수화기를 걸고 이완을 향하여 말하였다。

「자、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물론 당신도 총을 메고 갈 수 있지요、허지만 어떤 경우에도 총을 쏘지는 마십시요、새가 어데서 날아오던지 말입니다。당신이 할일은 다만 그를 사냥터로 안내해 주는 일 뿐이지요、그분은 안내자들이 그의 사냥 배낭을 가뜩 채워 줄려고 하는 것을 싫어 한다는 것을 알아 두십시요。그분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사냥하게 하시요。그분은 새 한마리 잡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나무래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요。시킨대로 할테니、그리구 난 새떼가 사는 고장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이완은 의기가 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그는 대통에 불을 붙이느라고 수없이 걸음을 멈추면서 손님이란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였다。아마 모쓰크바에서 오는 귀한 분일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안해도 역시 눈에 보이게 쾌활해 져서 방바닥을 닦고 담벽 우의 거미줄을 털어내며 방안을 깨끗이 정돈하였다。

2

해질 무렵이나 되여 흙몬지로 뒤덮인 한대의 자동차가 알라비예브의 집 앞에 와서 멎었다。이완은 손님을 맞으려 나갔다。

갈색 수렵복을 입고 우피 장화를 신은 키가 작고 몸이 딱 벌어진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바른 손에는 가죽으로

지은 총 집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를 정성껏 맞어주는 안내자에게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처음 이완은 딱딱하고 어색한 태도로 전날 고관들을 맞는데 관습되여 있던 송구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손님의 다정하고 친근한 미소에 곧 마음을 풀었다。

운전수는 차를 마당에 세웠다。 손님은 농가 집 담벽 곁에 쌓은 흙테미 우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씻었다。 그는 젓소를 몰고 거리로 가는 농민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담한 집들을 두루 살펴 보더니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완은 다시 한번 손님의 얼굴을 살펴 보았다。 그러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 어른이야! 신문 사진에서 보던 이마가 준수한 바로 그 얼굴이다! 그래 틀림 없이 그분이다!

「레닌 동지가 아니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레닌은 말씀했다。「당신은 이완 와씨리예비치이지요、그렇지요?」

「옳습니다。 울라지밀르・일리이츠」

늙은 안내자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 집안으로 뛰여 들어가다가 하마트면 안해를 넘어트릴뻔 했다。

「빨리! 그분이 바루 레닌 선생이여! 인민 위원장이시여! 알겠소?」

마리아 빼뜨로브나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놀라서 쳐다 보았다。

「그이 라니까! 허지만 돌아다니며 함부로 말내지마우!」

알라비예브는 다시 대문깐으로 달려왔다。

「차를 좀 드시겠습니까? 울라지밀르・일리이츠、그렇지 않으면 시선한 우유를 드시겠습니까?」

「사양없이 차를 한잔들지요」 레닌은 말씀했다。

면 자동차 길에 레닌은 분명히 피로한듯 하였다。 그들은 김을 뿜어 올리는 사모와르곁에 앉아 있었다。 레닌은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사냥에 대하여 몇마디 물어 보고는 말이 없었다。 그는 늙은 안내자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다가 하루밤 류할 곳을 청하였다。

손님한테 신선한 건초를 깔은 방을 안내한 후에 이완도 역시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종일토록 피로할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푹 쉬어야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잠이 들지 않었다。 그는 내내 다음날 사냥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는 무슨 실수나 하지 않을가 근심이 되여 마음이 불안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근래에는 숲 속에 자주 가보지 않아 새들이 모이는 곳도 서름 서름했다。 만일 새들이 자리를 떴으면 어찌할 것인가?

3

마을은 아직도 잠들어 있고 사과밭의 짙은 향기가 인기척 없는 거리에 스며있었다。 레닌과 알라비예브는 갖밝기 시작한 첫새벽에 나무 그늘을 헤치고 들판으로 뻗은 분간 하기 힘든 오솔길을 더듬어 걷기 시작했다。 늙은 안내자가 앞장 서서 성큼 성큼 걸었다。 레닌은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밭 곡식을 바라보다가 안내자를 따라가려고 거름을 재촉하군 하였다。

멀리서 금속성의 소리가 새벽 공기를 헤치고 들려왔다。 한쌍의 백조가 하늘가를 날아가는 것이였다。 레닌은 그 소리를 듣자 무의식적으로 손을 총에로 가져갔다。 늙은 안내자는 이 동작을 보고 말했다。

「너무 멉니다。 레닌 동지」

「그래 그말이 옳소」 레닌은 미소를 띄우면서 대답했다。「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새를 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요」

알라비예브의 아일란드종 사냥개 아크 싸이는 곧장 앞장 서 갔다。 주인은 개를 불러 바싹 뒤따르게 하였다。

향기로운 미풍이 훈훈하게 불었다。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날이 밝아왔다。 바른손 편으로는 짙은 봇나무 숲이 둘러 서고 왼손편으로는 강물이 반들거리

며 흘렀다。 멀리서 한방의 총소리가 들려왔다。

안내자는 짐짓 놀랐다。

「강을 따라 내려갈까요。 울라지밀르・일리이츠? 저기다 배를 하나 마련해두었지요。 거기는 사냥하는데 더 좋을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레닌은 동의했다。

그들은 이슬 젖은 풀을 헤치고 잰걸음을 쳤다。 그들은 빨리 총을 쏘고 싶어 조마심이 났다。

강 기슭에서는 두방 세방 련겊어 총소리가 울렸다。 놀란 물오리들이 황겁하게 물 우로 날렸다。

「우리 마을 사람들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다。「사냥철이 잡히면 언제나 첫날 이른 새벽에 나오군 하지요。 이날엔 절름발이도 집에 남어 있기 싫어하니까요」

그들은 강물 기슭으로 내려가 선창이 펑퍼짐한 배에 탔다。

이완은 닻줄을 풀고 로를 꽂은 다음 잠시 서서 하늘에 코를 대고 공기를 마셨다。

「저녁 나절엔 비가 올 모양인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냥개가 배에 뛰여 올라 한복판에 자리잡었다。 레닌은 선미에 앉고 이완이 로를 저었다。 소리없이 배는 모래강변을 따라 흘러내려 갔다。 로가 찰삭 찰삭 규칙적으로 고요한 강물을 치고 미끄는듯 배가 지난 뒤에는 잔 물결이 일고 작은 물방울들이 맴돌이 쳤다。 강물을 굽어 보고 서 있는 야산들이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비치어 보라빛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엷은 안개에 싸여 비단결 같은 강물은 고요히 멋어 움지기지 않는듯 하였다。

「이제 총을 준비하지요、울라지밀르・일리이츠」 안내자는 말했다。「벌써 오리들이 놀라서 날렸습니다。 이젠 어느 때 오리떼들이 날려 들지 모릅니다。 배는 든든하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레닌은 쌍알백이 총에다 총알을 재웠다。 강물길은 구불 구불한데 가운데로 갈대풀이 욱어져 있었다。 알라비예브는 배를 갈대풀 숲으로 끌어 들이고 단단히 부뜰어 맸다。

강 량 기슭에는 배도 없고 사냥개도 데리고 오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가 낮게 드리운 버드나무 숲 사이에서 있었다。 바로 이날이 일요일이고 사냥철 첫날이여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나와 왁자 지꺼리는 소리가 강물을 타고 들려왔다。 그러나 오리떼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죽은듯이 조용해 졌다。 숲 속에서 련겊어 총소리가 나자 한두마리 오리가 가꾸로 떨어지면서 나머지 놈들은 황겁하게 흩어졌다。 어떤놈은 감출곳을 찾기도 하고 어떤놈은 허공 높이 날라오르기도 하였다。 다만 가슴팍에 회백색줄이 진 갈매기 한마리가 훌적 강물을 스쳐 날기도 하고 물속을 헤여 들어가기도 하며 평온하게 물고기를 잡아 먹고 있었다。

오리떼들이 또다시 나타났다。 레닌은 련발총을 련겊어 쐈다。 오리 한마리가 배 가까이 떨어지고 또 한마리는 다른 오리떼에서 떨어져 나와 엇비슷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저놈도 잡았습니다!——안내자는 웨쳤다。——훌륭한 솜씨이군요 울라지밀르・일리이츠!」

이때 숲 속에서 또 한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레닌이 상처를 입힌 오리가 내리 떨어지고 말았다。 다음 순간 니끼따 판끄브가 버드나무 밑에서 달려나와 오리를 줏어들고 다시 숲속 제 자리로 들어 갔다。

「헤이 자네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그 오린 자네게 아니야!」 이완이 소리질렀다。

「제거면 왜 집어가지 않었나?」 비웃는 니끼따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두 사냥꾼이야!」

레닌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잠시동안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게 누구의 오린지 알구나 그러나?」 늙은 안내자는 분이 치바쳐서 소

리쳤다。『그 오린……』

이때 레닌은 그저 미소를 띄운채 안내자의 저고리 자락을 잡아 끌으며 말했다。

『관계 없소。이완 와씨리예비치、나는 상처를 입히고 그가 잡었거든。가져 가게 버려 두시오、또 얼마든지 딴 놈들을 잡을 수 있는데』

이완은 지주 뽈꼬브의 령지를 토지없는 농민에게 분배할때의 일이 생각났다。니끼따는 알라비예브가 자기 몫의 토지를 받는 것을 무척 방해 하였던 것이다。『알라비예브는 밤낮 주 관리들의 꽁무니를 딸아 다녔소。우린 한뼘의 땅도 그에게 줄 수 없소』하고 웨쳤던 것이다。그리고 부유한 농민들이 모두 그를 지지했다。이완은 이들을 저주하고 레닌한테 신소하겠다고 그들을 위협했던 것이다。그러나 농촌 위원회는 이완이 그전에 주 관리들의 사냥 안내를 했다고 해서 토지 분여를 금지하는데 동의 하지 않았다。그리고 니끼따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지난날의 원한이 새롭게 사모쳐 그의 분노는 더 한층 타올랐다。그는 얼굴을 씰룩거리며 숯이 거문 두 눈섭을 찡그리고 툴툴 거렸다。



『허지만 남의 것을 훔친다는 건 강도입니다。레닌 동지、한번 좀 맛을 뵈여야지』

『쉬 오리떼가 또 왔소』

이완은 뱃전에 엎드리고 레닌이 총을 들어 날아오는 오리를 쐈다。오리 한마리가 고개를 아래로 치박고 물 속으로 떨어졌다。

『아크싸이!』늙은 안내자가 개를 불렀다。

사냥개는 물 속으로 뛰여 들어가드니 오리를 향하여 헤염쳐 갔다。레닌의 얼굴에는 유쾌한 웃음이 서리었다。강물 우의 이 아침은 그의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회상시켰다。형 드미뜨리와 함께 까잔 부근 꾸꾸쉬끼노에 가서 첫 사냥을 배우던 때가 회상되였다。그들은 언제나 빈 배낭을 들고 피로해서、그러나 쾌활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곤 하였던 것이다。그리고 무엇을 잡으려 갔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드미뜨리는 크게 웃으며 "시간"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사냥개는 오리를 찾아 입에 물고 배로 돌아왔다。늙은 안내자는 개의 목줄을 잡아 물에 홈벅 젖은 개를 배에 올려 주고 입에 문 오리를 빼앗었다。



『오늘은 더 날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울라지밀르·일리이츠、숲으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군요』늙은 안내자가 말했다。

『그럼 갑시다』

레닌이 말했다。

그들은 봇나무 숲가를 따라 걸었다。바른 손편으로는 이끼덮인 진펄이 펼쳐지고 불룩불룩한 흙데미는 갓 붉기 시작한 딸기로 덮여 있었다。늙은 안내자는 아크싸이를 진펄로 몰았다。사냥개는 곧 무슨 냄새를 맡고 두그루의 봇나무가 서 있는 지점까지 왔다。

레닌은 총을 어깨에 메였다。

사냥개가 앞발을 약간 구불인채 꼼작하지 않고 멎어 섰다。늙은 안내자는 레닌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였다。그것은『주의하고 보라』는 뜻이였다。

레닌은 사냥군들이 언제나 경험하는 긴장된 전률감을 느꼈다。그는 숨을 죽였다。바람이 나무 끝에 울고 작은 산새가 봇나무 숲에서 울었다。그러나 레닌은 다만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 만을 들었다。태양이 머리 우에 높이 떠 오르고、하늘은 청람 빛으로 개였는데 공기는 한없이 맑기만 하여 잠시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듯 싶었다。그럴때 늙은 안내자는 개를 채근해서 봇나무숲 속으로 달려 들어 가게 하였다。홀릴듯한 정적은 깨여졌다。한떼의 새가 후다닥 날아 진펄 쪽으로 흩어져 갔다。

레닌은 총을 내리고 한숨을 지운 다음 손수건을 끄내서 얼굴을 문지르며 결눈질로 늙은 안내자를 쳐다 보았다。

『놓쳤군요? 울라지밀르·일리이츠 한방에 두마리 영락없이 떨구는 것을』늙은 안내자가 웨쳤다。

레닌은 과오나 범했던 것처럼 쓴 웃음을 지었다。

『허지만 뢰추리가 아니오?』

『온참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구요』

레닌을 바라보는 이완의 수염이 떨리고 눈은 그의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레닌은 안전 장치를 하고 총을 어깨에 메였다。

『볼쉐위크는 언제나 모범이 되여야 하오、그런데 당신은 내가 수렵법을 어기라고 충동하는 것이오? 그럴 수가 있나요 이완 와씨리예비치?』

레닌은 호탕스러운 웃음을 터트렸다。그의 눈은 쾌활한 빛으로 반짝이였다。늙은 안내자는 부끄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레닌은 얼마나 훌룡한 분인가! 옛날 권세 있는 사람이 숲 속에 오면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쐈다。그런데 레닌은 철이 아니라고 해서 뢰추리를 놔 준 것이다!

지난날 살기 어렵던 시대에 이완도 역시 다른 사냥군들처럼 수렵법에 그리 구애 하지는 않았다。그러면서도 제철 아닌 사냥을 할때에는 량심이 괴로웠다。그리하여 지금 뢰추리를 놓쳐버린 때문에 일어난 그 충격이 사라지자 그는 레닌의 행동에 깊이 감탄하였다。

그들은 숲속 깊이 헤쳐 들어 갔다。어둠 침침한 숲 속에서는 양치류 잎사귀와 락엽송 잎사귀에 이슬 방울이 그대로 반짝이고 있는 것이 뵈였다。풀 향기 그윽한 공기는 푹운하였다。발 밑에 나무 딸기의 붉은 빛이 그렇게도 아름다워 짓밟기가 애처러웠다。

레닌은 이완의 뒤를 따라 걸었다。그는 여름날의 선명한 색조와 두루리의 정적을 즐겼다。그는 대부분 도시에서만 살아왔고 도시 생활을 사랑하였지만 들과 숲과 개울은 마술적 매력을 가지고 그를 끌었다。때때로 그는 사무실 책상앞에 앉아서 어스럼 달빛 어린 들판의 대기 속에서 지내던 밤과、야영의 우등불에 타는 소나무 가지의 독한 냄새를 생각했으며 어깨에 총을 메고 숲 속을 거닐던 때를 생각하였다。

『피로 했습니까 울라지밀르·일리이츠? 한 시간 쯤 좀 쉴까요?』이완이 말했다。

『아니 난 온 종일이라도 견딜 수 있소』레닌은 힘주어 말했다。

그들은 짙은 숲을 빠져나와 딸기가 더욱 많고、사이사이로 오얏 나무와 락엽송이 서 있는 진펄에 다달았다。여기에는 뢰조 떼가 많았다。아크싸이는 끊임없이 냄새를 맡고 다니며 새를 풍겼다。

레닌이 쏘았으나 맞지 않았다。또 한

번 실수를 했을때 차근히 쳐다보고 있던 늙은 안내자는 바싹 다아왔다。

『사정 거리를 좀 멀리 놓아야 합니다 울라지밀르•일리이츠、새가 멀리 나라 간다고 서두를건 없습니다。너무 가까이서 쏘면 탄알이 뭉테기로 나가서 마칠 가능성이 더 적어집니다』

이때 사냥개는 또 다른 새떼를 풍겼다。이완은 기뻐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날새게 총을 들었다。산새가 사정거리에 들어갈때까지 날아가게 두었다가 방아쇠를 당겼다。두마리의 새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도 아오、이완 와씨리예비치』— 레닌은 웃음을 띄고 손을 모아 비비며 말했다。『그런데 새를 보고 약간 흥분했던 것이오——벌써 오랫동안 사냥을 해보지 않아서』

한번 실수한 뒤부터 레닌의 명중률은 좋아졌다。더욱 많은 새가 잡혔다。아크싸이는 새를 물어오고는 다시 새로운 냄새를 찾아 달려갔다。

사냥개의 취각은 령활했다。 그는 실수 없이 냄새를 맡아냈고 진펄의 풀밭을 종횡 무진하게 달렸다。 그러나 한번도 시야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으며 한번도 헛일을 하지 않았다。 레닌은 사냥개를 칭찬했다。

『그런 개 아니면 길르나요』 늙은 안내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약간 개를 훈련시킬 줄 알지요、제구실도 못하는 개를 데리고 사냥하기란 정말 답답한 일이지요』

아크싸이는 새로운 냄새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이깔나무 숲속을 가볍게 달려갔다。

『틀림없이 뢰조일겝니다』 늙은 안내자는 속삭이였다。『약은 놈 같으니라구、우릴 따돌랴구 하는 모양이지、개를 따라가 보시지요、전 돌아서 앞질를 테니』 늙은 안내자는 한쪽으로 달려가 노란 꽃이 덮인 등성이에 올라서서 큰 기침을 하고는 돌쳐서 걸어왔다。이때 아크싸이는 한 곳에 멈춰섰다。그러자 뢰조가 풍겨 날르는 푸두덕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레닌이 쐈다。 그러나 새는 잠간 기웃둥했다 다시 숲 속으로 빨리 날아 들어가고 끄리털 한줌이 너울거리며 떨어졌다。

『놓칠것 같구나』 레닌은 날아가는 새를 다시 묘준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두번째 총을 쐈다。이번엔 새가 떨어졌다。두사람은 그리로 달려갔다。

『고만 조마 조마 했드랬군요』늙은 안내자는 쾌활하게 말했다。『처음엔 실수하지 않나 하구 생각 했습니다。목표가 원체 힘들었거든요、더구나 해를 거슬려 묘준한다는 건』

5

마른 소나무 가지는 이글거리고 타올랐다。이완은 쇠로 만든 차관에 물을 기려다 불우에 올려 놓았다。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기의 사냥 경험을 이야기했다。그러다 화제는 토지 문제로 옮겨졌다。레닌은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그리고 그의 한가지 한가지 대답을 깊은 흥미를 갖고 들었다。늙은 안내자는 이분이야 말로 모든 진실한 사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느꼈다。

이완은 레닌의 총을 손에 들고 만저보다가 어깨에 메였다。

『참 좋은 총입니다。묘준도 정확하고 실수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그는 총신을 분해하여 버들가지에 헌겁쪽을 말아 총구를 닦아낸 다음、하늘에 대고 총신구를 검사했다。

『제一급 강철이로군요、거울처럼 반들거리구 상처하나 없이 새것처럼 빛나는 데요』『별로 쓰지 않으니까 그럴꺼요』레닌이 말씀했다。『사냥하려 다닐 틈이 없어서』

늙은 안내자는 말없이 총을 살피고 있었다。

『한곡조 부려 보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레닌 동지』

레닌은 의아스러워서 늙은 안내자를 쳐다 보았다。

『한 곡조? 무엇으로?』

『당신의 총으로 말씀입니다』

『정말로?』

레닌은 의아하게 물었다。『총을 악기로 쓴다는 말은 아직 들어 본 일이 없소、부려 보시요』

로인은 총구에 입술을 대고 부렀다。그의 두볼은 벌름거렸다。몇번 시험삼아서 부려본뒤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소리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눈썰매의 방울 소리에 섞여 눈보라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섞이고 겨울 얼음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눈썰매 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이였다。

선풍처럼 뜨로이까가 눈길을 달려 멀리 사라져 나가면서 방울소리가 점점 가늘어져 가다가 마지막 소리는 눈펄 우에 고요히 사라져 가는 것이였다。

『훌륭하오 이완 와씨리예비치』레닌이 말했다。『당신은 희귀한 능수요、난 그런 음악을 아직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소、어데서 그런 훌륭한 연주를 배웠소?』

『우리집에 전해 나려 오는 것이랍니다。제 아버지가 그 능수이였고 나두 이것을 좋아 부렸댔지요。어떤때 나무 그늘에 함독크를 걸어 놓고 앉아서 부노라면 눈물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태양은 이미 중천에 솟아 오르고 이슬 방울도 사라져 한기는 완전히 땅에서 사라졌다。

『날이 개이고 말았군요、그런것 같지요?』늙은 안내자는 살피면서 말했다。

『한잠 주무시지 않겠어요?』

『누시요、난 앉아 있겠소』레닌이 대답했다。

이완은 나무그늘을 찾아 눕자 마치 며칠 밤 자지 못한 사람처럼 이내 깊이 잠들었다。

레닌은 나무그루에 기대였다。해는 눈에 띄일 만치 서쪽으로 돌고 해별이 숲속에 가득이 비껴들었다。 때는 바로 새들 조차도 잠잠한 한낮이였다。

레닌은 헤염치기로 하였다。 그는 일어나 깊은 물을 찾아 개울을 따라 내려갔다。뜻 밖에도 숲속 한 복판에 대접이나 놓인듯 작은 호수가 나타 났다。그는 옷을 벗고 높은 동뚝에서 물속으로 뛰여 들어갔다。 물은 농도가 질어 마시면 달착지근 할 것 같았다。

레닌은 물 우로 다시 소꾸쳐 올라 폐에 가득히 숨을 들여 쉰 다음 다시 물속으로 헤염쳐 들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경쾌한 솜씨로 지난 날 스비야가에서 그랬듯이 호수 한복판으로 헤여 나갔다。

그러다 모래사장에 올라와 오랫 동안 앉아 해별을 쬐였다。 그러면서 물가에 나와 서로 희롱하며 한가히 노는 눈이 둥글고 등이 거문 잉어들을 바라 보고 있었다。때때로 바람이 불어 물결치면 잉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가듯 깊은 물속으로 피해 들어 가노라고 작은 물탕개를 치는 것이였다。

6

이완은 사람 말소리에 잠이 깨였다。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몸을 돌쳐 누었다。레닌은 흙데미 우에 앉아 있고 나무딸기로 가득찬 바구니를 든 어린애들이 그를 둘러 싸고 있었다。좀 떨어져서 수염이 흰 로인 둘이 넘어진 나무등컬 우에 앉아 있었다。

이완은 그들이 이 우지 사는 페도트 리브니끄브와 페오크치스트 샤트로브라는 것을 알았다。그들이 가진 바구니로 보아 송이 버섯을 따려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레닌은 어린애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전엔 아저씨두 어린애였나요?』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록색 내의를 입은 소년이 물었다。

『그럼 나두 어린애 였지』레닌이 대답하는 것이였다『우린 찜비르스크라는 도시에서 살았단다。난 그때 거우하고 놀길 좋아 했지 우리네 거우는 크기도 하고 사납기도 했단다。내가 한번 장난을 걸면 막 날 쫓아 왔서。그래서 난 땅바닥에 덩굴면서 발길로 찼단다。웃

을게 아냐、거우들은 잘 놀질 않아』
어린애들은 웃었다。 레닌은 그들과 함께 크게 소리내여 웃었다。
이완은 단 잠을 깬 것이 속을 거실리게 하였다。 그는 얼굴을 무접게 찡그리며 손짓을 했다。 어린애들은 이내 이것을 알아 차리고 낯서른 손님한테 인사를 한후 떠나 갔다。 허지만 두 늙은이는 떠날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보아하니 타고장 사람 같시다』 페도트 리브니끄브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레닌을 살핀 후에 말을 건네였다。
『그렇소、난 모쓰크바에서 왔소』 레닌이 대답했다。
『그래 지금은 모쓰크바가 어떤가요?』
레닌은 모쓰크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었다。 두 늙은이들은 열심히 들었다。 레닌은 전국 각지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장들과 새로운 도시들에 전력을 공급할 볼쉐위크의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두 늙은이는 이에 찬동하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완은 이런 담화를 좋아 하지 않았다。 바로 이때문에 구역 집행 위원회 위원장이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그분네들이 이걸 알면 내가 말낸 줄 알겠다。 그분네들은 일요일 날이면 누구나 숲속에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마른 나무 가지를 줏어 불을 다시 피웠다。 물을 또 끓이려는 것이였다。
『그래 여기선 살기가 어떤가요?』 레닌은 로인들에게 물었다。
『아직 그리 씨원한건 없지요、허지만 농민들의 살림은 차츰 펴 가는 것같소』 페도트가 말했다。『그런데 알고 싶은게 있소、난 일생에 三대의 짜리를 겪었지요。그래서 지난 세상 일은 다 맛봤지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을 하고 있는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모두들 정부를 받들고 있지요、허지만 아직두 할일이 남아 있지요、가령 소금이 상점에 하나두 없구、석유도 없거든요』
레닌은 활기를 떠였다。 그는 때때로 머리에 손을 올리면서 학교、합작사、지방 쏘베트의 사업 방식들에 대하여 물었다。
늙은이는 자기 말에 조심하면서 실례를 들어 자세히 이야기했다。
『당신은 타고장 사람이니 레닌 울랴노브가 우리 마을의 한 녀인의 곤



경을 어떻게 구해 주었는가를 이야기하여 주지요』
페오크치스트 샤트로브는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정말이요?』레닌이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구 말구。사정이란 이랬지요。 아포니야 텔데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생시엔 아주 얌전하구 삭삭한 것이 술이 취하기만 하면 제 처를 때립니다 그려、루께리야─그 처의 이름이지요─루께리야는 一○년이나 잘 참아 왔드라우、그런데 쏘베트 정권이 서자 루께리야는 맘먹구 제사내한테 말했더랍니다。이전처럼 그렇게 계속 때린다면 곧장 레닌 울랴노브 한테 가서 신소하겠다구 했지요、그랬드니 어떻게 된줄 압니까? 아포니야의 버릇이 뚝 떨어졌지요。』
『사람들이 레닌을 무서워 하나요 그럼』 레닌이 물었다。
『무서워하는 사람두 있구 존경하는 사람두 있지요』 페도트 리브니끄브가 말했다。『세상엔 별에 별 것이 다 있으니까요、어떻게 세상 사람을 다 좋게 해줄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눈만 꿈적해도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등을 밀쳐 넣기 전에는 천당에도 들어가기 싫다는데』
샤트로브는 마을 의사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는 밤낮 자전거만 타고 호수에 낚시질 하려 가면서 환자는 조금도 돌보지 않지요、그런데 글세 월급을 다 준답니다』
레닌은 이마살을 찌푸렸다。
『구역 쏘베트에 가서 말해 보았나요?』
『무슨 소용 있는 줄 아십니까?』 옆에 친구가 대꾸했다。『가령 그를 내보낸다해도 그 자리에 대신 앉힐 사람이 있나요。 슈끄로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거기도 심보가 나쁜 의사가 있었댔지요。 워드까를 가져 오지 않는 사람의 병은 보아 주질 않했지요、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면직시켰지요、그랬드니 오늘까지 후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많지 않다는군요。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지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야 할 수 없지요』 레닌이 말했다。 그의 말소리는 엄숙해졌다。『이는 긴급한 문제입니다。정말 의사도 교원도 농학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一년 동안에 양성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민과 로동자들의 아들 속에서 마을을 위하여 전문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이지요』 샤트로브가 말했다。
차관이 끓었다。 이완은 외투를 벗어 풀 우에 깔고 안해가 싸준 점심을 꺼냈다。 송이 버섯 따는 로인들은 레닌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여 한자리에 어울렸다。
『모쓰크바에서 레닌 울랴노브를 만날 수 없나요』 리브니끄브가 갑자기 물었다。
『만날 수 있지요』 레닌이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그이한테 송이 버섯을 선물로 갔다 드릴 수 없을까요? 그리구 봐호니노촌의 페도트 로인이 보낸 거라구 전해 줄 수 없나요?』『힘들지 않은 일이지요』 레닌은 이말에 난처해하면서 말했다。『허지만 필요한 것 같지 않소、그리구 송이 버섯이 도중에 부수러질 것이요』
『천만에』 페도트가 고집스럽게 말했다。『우리 송이 버섯은 씨베리아까지 가지고 가도 성할 것이요』
『내것도 좀 가져 가지요』 페오크치스트가 말을 가로 막었다。『수고를 해주시요、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저 차에다 놓아 가지고 가면 되겠는데。 레닌도 자기를 생각해 주는 우리 같은 늙은이가 있는 줄 알면 기뻐하실거요。 그리구 송이 버섯은 우리 고장에서 제일이거든』
『좋습니다。 당신들 말씀대로 하지요』 레닌은 웃으며 말하고 로인들의 바구니에서 송이 버섯을 꺼내여 사냥 배낭에 넣었다。

샤트로브는 늙은 안내자를 한결으로 끌고 가서 물었다.

「자네가 데리고 다니는 이 량반은 누군가?」

「옛 친구야」 이완은 우물우물하며 말했다. 「어떤 기관에서 사업하고 있어」

「머리가 제법 좋은데」 샤트로브는 계속했다. 「말하는게 듣기 싫지 않거든, 그런데 어데서 본것 같단 말이야, 얼굴이 낯이 익어」

「보기는 어데서 보았겠나」 늙은 안내자는 말머리를 잘라버리고 말았다. 「이 지방에 처음 온 사람인데」

송이 버섯 따는 로인들은 집으로 떠나갔다.

레닌도 역시 일어서서 산판을 아래우로 천천히 거니는 것이였다. 그의 안색은 유쾌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7

안내자의 천기 예보는 저녁 무렵에 가서 맞었다.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이고 무더운 광풍이 소나무를 쓸어 엎을듯이 불었다. 천동이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레닌과 알라비예브는 큰 소나무 그늘에서 비를 걷고 있었다. 우에서는 비방울이 나무끝에 쏟아지고 흙탕물진 개울물이 지난해의 락엽을 싣고 산 기슭을 흘려 내렸다. 이완은 담배대에 불을 붙여 물고 지난날 사냥 다닐때 경험한 자미나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억수로 내리는 비소리 때문에 들릴락 말락하였다. 그러다가 천동이 서쪽으로 멀어지면서 소낙비는 끝났다. 비에 젖어 물방울 맺힌 나무 숲에 정적이 스며들고 강렬한 향기가 서리였다. 하늘은 개이고 저무는 햇살이 숲속의 나무들과 산판에 깔린 풍령초와 들국화에 비끼였다. 햇살이 젖은 소나무에 아직도 비껴 들었으나 깊은 숲속으로부터 어둠이 지새들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진분홍 꽃을 한송이 꺾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혁대를 졸라매며 말했다.

「돌아갈 시간이 되였소, 이완 와씨리예비치」 그들은 가장 가까운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길녘에서 산새가 풍겨도 그들은 돌이켜도 보지 않았다.

이완은 안해가 우유와 갓 구어낸 빵을 가져오는 사이에 송이 버섯과 이날 잡은 날짐승들을 차속에 실었다.

「이걸 갖고 가십시요, 먼길을 가셔야 하겠는데 도중에서 시장하실 겁니다」

레닌은 집주인 한테 깊이 감사하였다.

「이걸 받으시요, 당신의 총에 맞을 것이오 아마」 그는 자기의 총알을 꺼내 주면서 이완한테 말했다. 「당신의 총 치수가 내 총하고 같으니까」

안내자는 그 많은 총알을 보면서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으나 사양했다.

「아닙니다. 레닌 동지, 필요 없습니다. 총알에 화약 재일 시간도 없으실터인데」

「받으시요, 시간이야 만들어 내지요」

이완은 벌써 숲속에 있을때부터 레닌한데 아무런 사례금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인물과 함께 걷고 우등불결에 함께 앉어 그이를 위하여 피리를 불며 옛친구 처럼 담화하고 롱담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예는 아닌 것이다! 그는 레닌이 돈을 줄까봐 겁이나서 더욱 정색을 하고 거절하였다. 일리이츠는 그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 곤경을 모면하는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이 총알은 선물인데 선물은 거절해서 안된다고 말했다.

일리이츠는 이완에게 모쓰크바에 오라고 초대하였다. 늙은 안내자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레닌 동지」 그는 말했다. 「기회만 있으면 꼭 가서 찾아 뵙기도 하고 모쓰크바도 보겠습니다. 허지만 늦가을에 첫눈이 오거든 한번 오십시요, 토끼와 여우 사냥을 갑시다. 코스트로마종의 사냥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짐승의 땅구멍이라도 쫓아냄니다」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고 시간이 있

으면 꼭 오지요」 레닌이 대답했다.

자동차는 떠나 마을 길을 미끌어 지듯이 달려갔다. 늙은 안내자는 그 뒤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페도트 리브니꼬브와 페오크치스트 샤트로브가 닥아왔다.

「왜 그리 빨리 떠나가나 그사람이? 이완!」 샤트로브가 물었다. 「좀 먼 호수로 가면 물오리가 많은데 거기로 안내 하지 않구」

「시간이 없다네」 늙은 안내자는 명하니 말했다. 「법령에 서명을 해야 하니깐」

두 로인은 마주 바라 보았다.

「무슨 법령에」

「정부의 법령 말이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나 레닌 울랴노브이시여」

「레닌!」 리브니꼬브가 깜짝 놀란 소리를 질렀다. 「롱담 말게 이완」

「아니야 롱담이 아니네 레닌이 옳아!」 샤트로브가 웨쳤다. 「어떤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서 그런데 딱 누군지 몰랐거던 이제 생각나네 그분의 사진을 술해 봤지, 틀림없이 그분이였네!」

「그런데 왜 우릴 속였나 이완?」 페도트가 나무렵게 말했다. 「나두 역시 그분이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서, 어덴지 다른데가 있었단 말이네」

그때 니끼따 판꼬브가 손에 물오리 두마리를 들고 한구석에서 나타났다.



「자네의 그 모쓰크바에서 온 사냥군은 어데 갔나?」

「이제 방금 떠났네」 늙은 안내자는 경멸하는 웃음을 띄고 말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자넨 오지 않데그려, 그의 인사를 전하네 자네네 니께따는 남의 물건을 채가는데 선수라고 말하데」

「아차! 늦었군」 판꼬브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자네 배에 앉은 그분이 누군지 알었으면 그런 짓을 했겠나」

리브니꼬브와 샤트로브가 참지 못하고 웃었다. 이완 알라비예브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역시 니끼따의 그 질투심이 많은 것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랑패하는 것을 보고 속이 후련했던 것이다.

「이번일을 거울로 삼게」 이완이 말했다. 「다음엔 그렇게 황겁하게 남의 것을 채지 말게 그런데 그분이 레닌—울랴노브인 것은 어떻게 알았나?」

「자네네 마누라가 우리 마누라 한테 귀뜸해 주었다네, 그말을 들었을 때 난 놀라서 자빠질번 했네」

송이 버섯 따는 로인들은 허리가 휘게 웃었다. 알라비예브는 마리나 빼뜨로브나를 손가락질 하며 말했다.

「마을에 소문을 퍼트리지 말라고 그렇게 내 말했는데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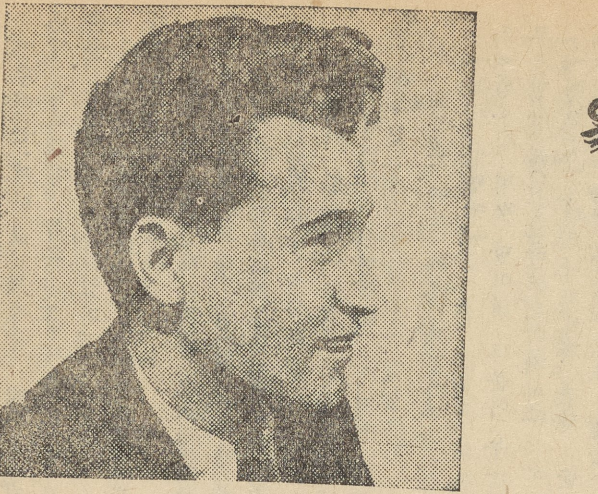
(쏘베트 문학 一九五四년 九월호 에서)

(김 기 역)

위대한 생활의 시

"모쓰크바를 멀리떠러져서"에 대하여

김명수



(브·아쟈예브)

쏘련의 저명한 젊은 작가 브·아쟈예브의 장편 소설 『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는 감동적이며 매력 있는 특이하고 찬연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위대한 쏘베트 생활의 시적 정수가 수정처럼 맑게 결집되였으며 쏘베트의 새 인간들의 고귀한 정신적 풍모가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 있다。 쏘베트 인민들이 이 소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함은 제一차 전련맹 쏘베트 작가 대회를 앞두고 께로진스끼 제강소 로동자들이 「문학 신문」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한가지 사실로서도 명백하다。

『우리는 전쟁이래 로동의 주제에 대하여 씌여진 훌륭한 작품들을 사랑합니다。「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의 바뜨마노브와 베릿제의 이름은 마치 실제 인물처럼 생산 협의회에서 자주 이야기되며 제一급의 지도 일꾼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쏘베트 독자들이 이 작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소설은 쏘베트 사회와 쏘베트 인민들에게서 로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로동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금싸레기로 되며 쏘베트 인간들의 품성이 어떤 것들인가를 단순하고도 힘 있는 말로써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작자 브·아쟈예브는 쏘베트 시대가 길러낸 젊은 세대의 작가로서 공장에서 직접 로동자로 또는 직공장으로 생활의 체험을 쌓았으며 특히 근 一五년간을 원동의 대 건설장에서 일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동에서 발휘되는 쏘베트 사람들의 애국주의와 영웅주의를 관찰하였다。 천고의 밀림과 혹한 속에서 전개되는 영웅 서사시적 투쟁 화폭은 이 젊은 작가에게 억누를 수 없는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었으며 모쓰크바 꼬리끼 문과대학 통신과에 적을 두면서 자기의 체험을 형상화하는데 진지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였다。

작자의 직접 체험이 낳은 이 소설은 비록 젊은 작가로서의 수법상의 미숙과 생경함이 부분적으로 없지 않으나 이러한 약점을 보충하고도 남는 것은 이 소설에 형상된 인물들의 청신성과 생동성, 그 밑바닥을 흐르는 박력 있고 억센 애국적 빠포스이며 쏘베트 사람들의 영웅적이며 헌신적인 사상과 행동의 아름다움이다。

소설은 히틀러 강도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 전쟁 시기에 원동에서 진행된 송유관 건설의 이야기로서 시종 일관되고 있다。 일견하여 극히 산문적이고 따분할 것처럼 보이는 생산 보고와 같은 이 이야기가 랑만적이며 시적 정격을 띠고 우리 앞에 전개된다。

파시스트 무리들은 모쓰크바를 위협하면서 한걸음씩 쏘베트 심장부로 닥아 들어왔고 일본 제국주의 군대들은 방대한 병력을 쏘 만 국경에 집결시키고 침공의 시기를 노리고 있던 준엄한 시기에 원동에서 진행되는 송유관 건설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작품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모두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젊은 기사장 대리 알렉쎄이 꼽쑈브는 사랑하는 수도 모쓰크바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순간에 모쓰크바를 버리고 수천키로의 먼 후방인 원동에서 송유관 공사에 종사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건설 소장 바뜨마노브, 기사장 베릿제, 당 위원장 잘낀드를 중심으로 하여 건설장에 팽배하게 일어나는 로동의 분위기 속에 곧 휩싸여 버린다。

건설 기간을 전전 계획의 三분의 一인 一년 동안에 완성하라는 당과 정부의 명령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 방위의 신성한 호소였다。 송유관 건설이 전체 작전에 있어서 얼마나 한 기여를 하는 것인지 그들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민 위원 쏘베트가 결정한 이 건설 공사가 전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들은 탱혹한 겨울 밀림 속에서 온갖 난관을 과감히 극복하면서 불꽃 튀는 총 돌격을 감행한다。

소설의 슈제트는 매우 간단하며 직선적이다。 전체 슈제트는 송유관 건설 과정과 함께 곧바로 줄달음친다。 이야기는 바뜨마노브 지도부가 공사 기간 一년간 단축의 정부 지시를 접수하지 않는 낡은 지도부와 교체하여 사업에 착수하는데로부터 시작되여 예정 기일 내에 공사를 완수하는데서 끝난다。 그러나 이 간단한 슈제트 안에 포괄된 전체 내용은 깊은 생활의 진실로써 충만되여 있다。

생활이 시로 되고 있는 나라, 로동이 예술로 되고 있는 나라에서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나며 로동과 집단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 소설은 힘차게 엮어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에 있는 것은 따분한 생산 공정이 아니라 그 공정 속에서 활동하며 투쟁하며 사색하며 기뻐하는 인간들, 왕성한 투쟁 의욕과 앙양된 생활의 환희로써 충만된 쏘베트 인간들이다。

이러한 쏘베트 인간들의 전형적 특질들을 바뜨마노브, 베릿제, 꼽쑈브, 따냐, 잘낀드 등과 같은 작품의 주인공들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건설 소장 바뜨마노브는 원칙적이며 비타협적인 공산당원이다。 그는 항상 국가적 책임성에 대한 자각으로 충만되여 있다。

그가 낡은 지도부의 모든 성원들을 재 조직하고 발동하는 그 능난한 솜씨, 마비된 집단을 하나의 의지로 통일시키면서 앙양된 로동 의욕에로 고무하는 그 경탄할만한 수완은 다만 령도 예술에 그치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책임성이 하나의 생활 감정으로 되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발휘될 수 있는 능력 이다。 바뜨마노브의 지휘 하에 재 사령부는 자기의 행동 계획, 광범한 건설 준비의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였으며 가렬한 추위 속에서 드디여 전투는 전개되였다。

전형적 공산당원인 바뜨마노브에게는 가장 성격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강한 요구성과 엄격성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 제도가 길러낸 쏘베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그들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온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의 한 표현으로 된다。 서로 사람들을 신뢰하며 인간이라는 말이 존엄하게 울리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낮추 평가될 수 없으며 그 능력은 무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뜨마노브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낀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분명히 내 행동은 때로 너무 지나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실례고 주요한 점에 있어서는 역시 내가 옳다는 것을 시인해야 할거네, 자네가 나를 아마 친절한 인간으로 만들지는 못할거네, 그래 나의 엄격한 태도 가운데 선량한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르겠나。 자네도 무척 감동적으로 그레취낀과 꼽쑈브에 대해서 말했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들의 털끝만한 실책도 용서할 수 없네! 이제 그들한테서 요구되는 것이 어지간히 많을 걸세, 더구나 그들은 든든한 일꾼들이네!』。

그의 이 말 가운데는 그 자신의 엄격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엄격성은 사람들에게 고상한 책임성을 환기시키며 건설적인 의욕을 북돋아 주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한 정력을 불러 일으킨다。

따냐 와씰리첸꼬에 대한 바뜨마노브의 태도는 그를 리해하는데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것으로 된다。 따냐는 강의하며 대담하며 솔직하고 아름다운 녀 공청원이다。 그는 공청원들의 지도자로 되여 밀림 속에서 전선을 가설하는 총 책임을 맡았으며 그는 또한 이 어려운 임무를 온갖 헌신성을 다하여 수행한다。 그는 대원들을 훈련하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도록 고무하였으며 전체 대원들은 따냐의 중심에 집결되여 눈부신 투쟁을 전개한다。 이러한 작업 현장에 바뜨마노브가 왔다。 그는 따냐를 그 헌신적인 로력과 눈부신 성과로 하여 응당 찬양할 수도 있을 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대원들이 전부 있는 앞에서 따냐가 책임진 전선을 전부 가설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렬하게 꾸짖는 것이다。 이것은 바뜨마노브의 감정이 돌처럼 차고 굳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 이 준렬한 꾸짖음 속에는 그의 따뜻한 정신적인 우정과 원조가 들어있는 것이다。 따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뜨마노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진의를 리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은 바뜨마노브가 따냐를 준렬하게 꾸짖으므로 해서 따냐에게 거대한 방조를 주었

다는 것을 알아 채린다。 왜냐 하면 커다란 곤난과 일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따냐는 그만큼 대원들에게 요구성과 엄격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것이며 이것을 알고 있는 바뜨마노브는 따냐를 엄격하게 비판함으로써 대원들에 대한 따냐의 엄격성을 정당화해 준 것이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뜨마노브는 따냐를 찬양해 준 것 이상으로 따냐의 위신을 높여 주었으며 따냐의 사업을 방조해 준 것이다。

이 엄격성이 화신처럼 보이는 바뜨마노브가 사랑의 노래로써 저명한 시인 쉬빠쵸브를 애독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며 그의 풍부한 인간성의 일면을 뵈여 주는 것이다。 가정과 사랑에 대한 그의 진지한 감정은 그가 언제나 결혼의 기념물인 반지를 몸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실로써도 명백하거니와 특히 크림에 남겨 두고 온 그의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뼈를 쑤시는 듯한 고민과 가책을 맛보는 그의 모습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는 「결혼 생활과 가정에 대한 조소는 퇴폐 시대와 타락한 사회의 표증」이라고 한 잘낀드의 말을 회상하면서 맹혹하게 자기 자신을 매질하는 것이며、

사랑은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것、허나 노래를 짓기는 쉬운 일이 아니여라

쉬빠쵸브의 시의 一절을 읊으면서 자기는 이 노래를 짓지 못하였다고 고민하는 것이다。 그는 남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자기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엄격한 것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위하여 사업하며 생활하는 쏘베트 사람의 이 정신적 특질은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을 울려 준다。

쏘베트 사람들에게는 로동하며 투쟁하려는 의욕이 하나의 천성처럼 되여 있다。 그런 사람의 하나를 우리는 기사장 베릿제에게서 발견한다。 오랜 기사의 경력을 가졌으며 원동의 대 간선 철도 부설、수력 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남방의 여러 건설 사업에 종사해 온 그는 언제나 사업하려는 불타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 온 사람이다。 그는 송유관 건설장에서 위대한 一○월 혁명 기념일을 맞기 전까지는 비당원 볼쉐위크였다。 그가 그때까지 당원이 되지 않은 사실은 그의 성격을 리해함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이다。 그의 입당 청원을 심의하는 날 자기가 왜 비당원으로 남아 있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입당이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당성을 내적으로 느끼면 충분하다고…。 대학 재학중이나 일을 시작한 초기에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만일 당에 들어가면 사회 사업과 기타의 여러가지 임무 때문에 나는 학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며 기술 학습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나의 동무한 사람이 사실 그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긴 거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태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도、내 나이가 지긋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었습니다。 동무들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거 베릿제가 무슨 일로 갑자기 당에 들어오는군! 하고、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느 면으로서라도 동무들! 나를 검열해 보십시요 ―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쟁 첫날부터 나는 바로 내가 당 밖에 남아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나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떤 무뢰한이 독일놈들이 승리하는 경우에는 비당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따위의 수작을 지꺼리는 것을 들었을 때 특히 그랬습니다。 내가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은 나의 부단한 고통으로 되였습니다』

베릿제의 이 말은 당과 조국에 대한 깨끗한 량심을 털어 보이는 동시에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하려는 그의 청백한 심정을 엿뵈여 준다。 그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견디는 사람이다。 자기의 사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만 있을수 있는 이 고조된 의욕! 이것은 그의 성격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가 송유관 부설로의 계획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조사와 탐구와 연구를 계속하는 로력의 긴장정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몇번이고 부설로 상공을 선회하며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하며 밤마다 소리 없이 방안을 거닐거나 거먼 턱 수염을 하늘로 쳐든채 쏘파 우에 깜짝도 않고 누어 사고에 잠기는 베릿제의 모습은 로력이 천성으로 된 사람의 고귀한 풍모다。 그의 이러한 천성은 사생활에서도 표현되는바 그는 누구든지를 돌봐 주지 않고는 못견딘다。 로력에의 부단한 충동으로 움직이는 그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쏘베트 애국주의다。

이러한 쏘베트 애국주의의 또 하나의 표현을 우리는 젊은 기사 꼽쇼브에게서 찾아 본다。

그는 항시 사랑하는 수도 모쓰크바를 생각하며 조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 전선으로 동원되지 못함을 량심의 가책으로 느낀다。 그러나 원동에서의 송유관 건설 사업이 어떻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점차 깨닫게 된 그는 이 사업에 헌신적으로 동원된다。

그의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기 비판에 대한 욕망이다。 그는 남이 그를 비판할 때면 언제나 웃는다。 그의 이 웃음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바뜨마노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알료샤 ― 이 자는 욕을 하문 웃고 있네。 한번은 그가 웃고 있는 바람에 화를 내기까지 했다네。 「뭣이 웃으운가? 잘 듣고 수염을 꼬아두어야(정신을 차려 기억해 둔다는 의미) 허지」하고 말했더니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다보면서 말하겠지 ―」저는 듣고 꼬고 있습니다 ― 아직 수염은 기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웃는건 소장 동무가 아주 욕설을 잘 허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뚜드리십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으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기 결함을 더 잘 볼수 있으니까요…」라는 거야。』

이처럼 꼽쇼브는 그에 대한 비판에 아무런 불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즐겁게 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겸손성과는 어데까지나 구별된다。 차라리 생활에 대한 적극성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가 얼마나 견고한 의지의 소유자인가를 말해 준다。 자신이 없고 발전성이 없는 사람만이 비판을 두려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발전하려는 부단한 지향과 조국에 대하여 더 많은 복무를 하려는 의지에 충만된 꼽쇼브는 자기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몹시 유쾌한 것이다。 그가 웃은 것은 자기의 결함에 대한 공정한 비판이 고마운 까닭이다。 그 결함을 능히 시정할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꼽쇼브야 말로 새로운 쏘베트 시대의 전형적인 새 세대의 인텔리이다。 사업에 대한 그의 정직하고 정실한 태도、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자기에 대한 비타협적인 요구성과 함께 적 후방에서 빨찌산 투쟁을 하는 그의 안해에 대한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그를 더 한층 매력 있는 인간으로 보이게 한다。

그의 안해 지―나는 꼽쇼브가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귀환했을 때 이미 집에 없었다。 그는 남편을 전선에로 보낸 뒤

라팔 소리 들리고 돛은 올랐다。
나의 병사들은 나를 부른다。
내 그대에게 돌아가리라
방패를 손에 들고 또 방패에 누어서라도…

라는 시 구절과 『방패를 들고、사랑하는 아료―샤 방패를 들고요! 들리나요 당신을 향해서 웨치는 나의 목소리가!』라는 락서를 남겨둔채 그 자신도 전선으로 떠났던 것이다。 이러한 안해를 생각하는 꼽쇼브의 절실하고 뜨거운 련모의 마음은 남이 그의 아름다운 회상을 방해하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그에게 춤출 것을 요구하는 처녀들의 제의를 상대방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거절해 버린다。 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청년을 건설장의 처녀 제―냐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딘다。 사랑이 부질없는 것임을 아는 제―냐는 고민 끝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 밖에도 베릿제와 따냐와의 사랑、결혼 생활에 실패한 녀의사 울―가의 고민 등、이 소설에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륜리가 쏘베트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중심하여 폭풍 같은 건설 투쟁 속에서 벌어지는 서사시는 생활의 시로써 충만되여 있다。 씨비리의 거센 눈보라、五○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애로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가? 물자가 부족하였으며 기술자들이 많지 못하였으며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가진 낡은 인간들이 있었으며 험난한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바뜨마노브 사령부에 집결된 이 애국적 집단들은 이 모든 곤난성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조국에 대한 그들의 헌신성을 유감 없이 시위하였다。 전시 조건하에서 큰 공사에 수반되는 온갖 곤난성은 다만 그들의 의지를 더욱 튼튼히 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성격을 더욱 강의하게 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애국주의를 더욱 앙양시켜 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쏘베트 애국주의의 심오한 본질을 천명하고 있는 이 소설은 쏘베트 제도가 길러낸 새 인간들의 일대 집정을 이루고 있으며 새형의 쏘베트 인간들이 가진 고상한 정신적 품성들이 화원처럼 꽃 피여 청신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동시에 이 작품에서는 구 기사장 그룹쓰끼를 비롯하여 자본주의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인간들의 정체와 그들의 운명을 뵈여 주고 있다。

『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는 활동하며 투쟁하려는 욕망이 불타며 행복된 생활에의 지망으로 충만하며 조국에 대한 복무감과 창조적 정열로써 팽배한 쏘베트 사람들의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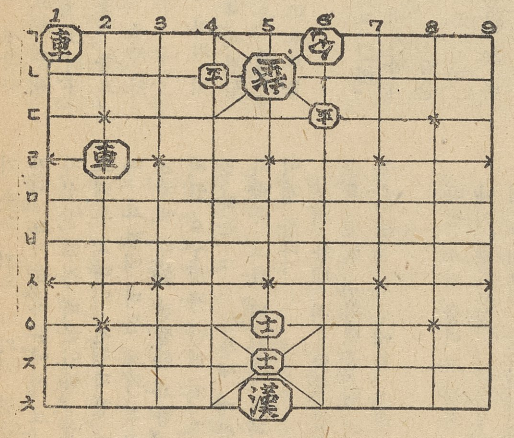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사람은 변화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체계를 집단의 자리에 내놓는다』는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이 한 말은 이 소설 전체의 주요한 내용을 해명해 준다。 소설은 송유관 건설 공사의 완성으로써 끝나는 바 모쓰크바로 가는 비행기 속에서 알렉쎄이 꼽쇼브는 자기들의 건설 투쟁이 벌어졌던 곳을 내려다보면서 한때는 방대한 건설 규모로써 그를 매혹했던 거대한 송유관 건설도 국가 전체에 비하면 성냥갑만큼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기 조국의 광활성과 위대성을 다시금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으며 그 조국의 품속에서 찬란한 래일을 위한 투쟁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직감하고 행복감에 충만되는 것이다。

이 특이하고 찬연한 소설이 오늘 전후 건설 투쟁에 궐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교양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새삼스럽게 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며 이 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감과 함께 거대한 국가적 책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새 인간들의 품성의 모범을 보게 되며 이러한 주인공들이 우리들 자신을 무한히 고무해 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제二차 전련맹 쏘베트 작가 대회의 자기 보고에서 쑤르꼬브는 이 소설을 「천재적」인 작품이라고 말하였다。 확실히 아쟈예브는 이 소설을 내놓음으로써 쏘베트 문학의 보물고 속에 찬란한 기여를 했으며 쏘베트 인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보적 인류들에게 거대한 정신적 기쁨과 생활의 교과서를 제공해 주었다。 좋은 작품이란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량식과 같은 것이며 우리들의 호흡하는 공기와 같다。 『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작품이다。 현실적이면서 랑만적인 위대한 생활의 시로 엮어진 이 소설은 고귀한 사상과 고결한 정서로써 우리들의 정신을 북돋아 준다。 이 소설의 번역 출판은 쏘베트 문학에 대한 독자들의 팽배한 요구에 대한 보답이며 새로운 기여로 된다。 또한 이미 출판된 제一、二부는 발전하는 우리 번역문학에 새 경지를 개척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요구에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성과를 뵈여 주고 있다。

《장기—박보 수풀이》

문제 『漢』이 먼저써서 이기는 수 (단 두편의 교전 회수에는 제한이 없음)



—☆—

『청년 생활』 제3호 및 제4호 《장기—박보 수풀이》 해답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편집위원 리홍종 (주필)
김두준 박철복 허석선
신호근 장성준 최만석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잡지 『청년생활』 1955년 제4호

1955년 4월 15일 인 쇄
1955년 4월 20일 발 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0064 21,000부 발행 값 60원



